

## **Ministry Focus Paper Approval Sheet**

This Ministry Focus Paper entitled

### **THE NEGATIVE EFFECT OF THE NEW AGE MOVEMENT AND THE CHURCH'S COUNTERPLAN**

written by

**KYONG HWAN KO**

and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has been accepted by the Faculty of Fuller Theological Seminary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undersigned readers:

---

Jeong Kii Min

---

Moon Sang Kwon

---

Seyoon Kim

December 24, 2001

**THE NEGATIVE EFFECTS OF THE NEW AGE  
MOVEMENT AND THE CHURCH'S COUNTERPLAN**

**MINISTRY FOCUS PAPER**

SUBMITTED TO THE FACULTY OF THE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BY

**KYONG HWAN KO**

DECEMBER 2001

# 뉴에이지 운동의 악영향과 교회의 대책

이 논문을 풀러 신학교  
목회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지도 민종기 교수

**고 경 환**

2001년 12월

## ABSTRACT

The Negative Effects of the New Age Movement and the Church's Counterplan

Kyong Hwan Ko

Doctor of Ministry

2001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The world is now entering into the saturation of eastern religions and some thoughts concerns of which are contacting non-spiritual world. The New Age Movement is spreading its force rapidly giving a false teaching on the human spirit and the spiritual world under the disguise of science.

The New Age Movement is about to settle in highly materialized society as a new faith with the purpose of reforming the human spiritual consciousness. It is stretchng out its influence on both religions and the whole society. The New Age Movement, which shows its primary concern on the reach of mysterious things by extending human conciousness, has mixed various elements in several religions with science, psychology, technology and psychoanalysis.

The New Age Movement is hard to define in a few words because it is syncretic on a religious dimension and has small groups scattered in various dimensions, such as medical science, spirituality, society, and politics. Besides, it puts an emphasis on the sensible and intuitional experience and rejects a reasonable and national word rather than concerns a religious dogma and institution of the traditional religions. It insists that the world should have single united government for the world peace and that all religions should be unified.

What the New Age Movement deals with is deverse in kind. Psychoanalsis, transcendental meditation, Zen, yoga, worship of human psychology, holistic health replacement, a previous existence(revival of life, transmigration of souls), shaman, ecstasy, psychic concentration, magic, Guru, spiritualism, fortune telling belong to

it, where no meaningful religious tradition is found. In other words, the New Age Movement is a syncretism mixed with eastern religious, philosophical elements and western psychoanalysis, science such as psychology, Judaism, revelation in Christianity, Gnosticism and mysticism.

Modern western world influenced by Christianity for centuries suffering political, social, ideological, and religious retrogression and collapse due to the contradiction and imperfection of material civilization, which in turn has brought corruption of moral value in every life and replaced it with materialism and hedonism. The New Age Movement took advantage of this and has shrewdly permeated into the church and the consciousness of the people in the world as well. Hence, in order for the Church to keep herself against the Movement, she has to accomplish renovation and reformation from inside. Weakness of the New Age Movement is that it lacks a clear system and structure because of its syncretic nature. On the contrary, the Church has developed in the eternal flow of history and under the lead of the Holy Spirit. The Church, therefore, should rise up boldly with hope and faith in the work of the Holy Spirit.

An urgent counterplan and a proper step against the inflow of the tide of the New Age Movement, with the active coping with of the Church and the Christians, will minimize the damage caused by the Movement.

Theological Mentors: Jeong Kii Min, Ph.D.

Moon Sang Kwon, Ph.D.

Seyoon Kim, Ph.D.

## 감사의 글

이 논문이 완성되기까지 제목에서부터 마지막 구두점에 이르기까지 깊은 애정을 가지고 세밀하게 지도해 주신 민종기 박사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많은 시간을 내어 애써주신 권문상 박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조언해 주시고 학문적 세계의 깊이를 보여주신 김세윤 박사님, 엄예선 박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부족한 저를 늘 깊은 사랑으로 품어주신 영적인 아버지요 스승이신 조용기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박사과정을 끝까지 마칠 수 있도록 부족한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 순복음 원당교회 교역자님들과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논문이 나올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준 성선호 목사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목회의 길을 함께 걸으면서 힘과 용기를 주는 나의 사랑하는 아내 향란과 사랑하는 딸 민지, 미셸, 민정에게 고마움을 전하면서 감사의 인사를 대신합니다.

고경환 목사

## 목 차

ABSTRACT .....	ii
감사의 말씀 .....	iv
제 1 장 서 론 .....	1
제 1 절 연구 목적 .....	1
제 2 절 연구 방법과 연구 계획 .....	3
제 2 장 뉴에이지 운동의 정체 .....	5
제 1 절 뉴에이지 운동의 정의와 기원 .....	5
1. 뉴에이지 운동의 정의 .....	5
2. 뉴에이지 운동의 뿌리 .....	6
가. 사탄의 기만과 바벨론 종교 .....	6
나. 힌두교 .....	7
다. 불교 .....	8
라. 영지주의 .....	9
마. 요가 .....	10
3. 뉴에이지 운동의 배경 .....	11
제 2 절 뉴에이지 운동의 본질 .....	12
1. 뉴에이지 운동의 4대 핵심교리 .....	12
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	12
나. 너희 눈이 밝아지리라 .....	13
다. 너희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	13
라. 너희가 선악을 알리라 .....	15
2. 뉴에이지 운동의 전략 .....	16
3. 뉴에이지 운동의 목표 .....	18

가. 신지학 협회의 목표 .....	18
나. 마틸린 퍼거슨이 주장하는 목표 .....	19
제 3 절 뉴에이지 운동의 활동 .....	20
1. 뉴에이지 운동의 지도자 .....	20
2. 뉴에이지 단체 .....	23
3. 뉴에이지 운동의 활동분야 .....	24
제 3 장 뉴에이지 운동이 개인의 세계관에 미치는 악영향 .....	27
제 1 절 뉴에이지 세계관의 영향 .....	27
1. 혼합주의 .....	27
2. 범신론 .....	30
3. 뉴에이지 윤리 .....	32
4. 뉴에이지 인간론 .....	33
5. 바람직한 기독교 세계관 정립의 필요성 .....	35
제 2 절 뉴에이지 세계관의 악영향 .....	37
1. 뉴에이지 세계관의 침투실태 .....	37
가. 종교 단체 .....	37
나. 서적 .....	39
다. 음악 .....	41
라. 미술 .....	42
2. 다른 세계관과의 관계 .....	43
3. 성경과 예수의 권위에 대한 도전 .....	45
제 4 장 뉴에이지 운동이 사회 제반 분야에 미치는 악영향 .....	48
제 1 절 종교와 교육 분야에 미치는 영향 .....	48
1. 종교 분야 .....	48
2. 교육 분야 .....	51
가. 지구촌교육 .....	52
나. 뉴에이지의 교육 내용과 방법 .....	55
다. 몬테소리 교육이론 .....	57



제 2 절 심리학과 건강 분야에 미치는 영향 .....	61
1. 뉴에이지와 인간 잠재력 운동 .....	61
2. 뉴에이지와 적극적 사고 방식 .....	68
3. 뉴에이지와 명상, 기, 참선 .....	65
가. 명상 .....	65
나. 기 .....	66
다. 참선 .....	67
제 3절 사단숭배와 비술적 분야에 미치는 영향 .....	68
1. 사단숭배 .....	68
2. 영매술 .....	69
가. 영매술이란 무엇인가? .....	69
나. 영매술과 성경예언 .....	71
다. 중매(Mediums)에서 영매(Channels)까지 .....	74
3. 점성술 .....	80
4. 최면술과 심령치료 .....	82
가. 최면술 .....	82
나. 심령치료 .....	83
5. 초능력과 마술 .....	84
가. 초능력 .....	84
나. 마술 .....	85
6. U.F.O 숭배 .....	85
제 5 장 뉴에이지 운동이 대중문화에 미치는 악영향 .....	90
제 1 절 뉴에이지 운동과 대중문화 .....	90
1. 대중문화에 대한 기본적 이해 .....	90
2. 뉴에이지 운동의 문화적 침투 .....	95
가. 음란성 문제 .....	95
나. 텔레비전 .....	96
다. 광고 .....	98

3. 현대 문화에 요구되는 윤리적 반성 .....	100
제 2 절 뉴에이지 운동의 대중문화 침투에 대한 실태분석 .....	101
1. 영화 .....	101
가. 스티븐 스피버그의 뉴에이지 영화 .....	101
나. 뉴에이지 영화의 문제점 .....	102
2. 음악 .....	105
가. 오지 오스본 음악 .....	105
나. 블랙사바스(검은 안식일) .....	105
다. 뉴에이지 음악의 평가 .....	206
3. 뉴에이지와 기호 .....	107
제 6 장 뉴에이지 운동에 대한 교회의 대책 프로그램 .....	115
제 1 절 뉴에이지 운동에 대한 대책 프로그램의 필요성 .....	115
1. 뉴에이지 운동의 일반적 위협 .....	115
가. 단일 세계정부와 종교 추구 .....	115
나. 적그리스도의 위협 .....	117
다. 배교 위협 .....	118
2. 뉴에이지 운동의 교회 위협 .....	119
3. 뉴에이지 운동에 대한 교회의 인식현황 .....	120
4. 강력한 대책 프로그램과 교회의 자구적 노력의 필요 .....	122
제 2 절 뉴에이지 운동에 대한 교회의 대책 프로그램 .....	124
1. 대안모색을 위한 제언 .....	124
2. 교육적 대안 .....	125
3. 문화적 대안 .....	127
4. 영성적 대안 .....	129
제 7 장 결론 .....	131
참고문헌 .....	135
VITA .....	143

## 그림 목차

<그림 1> 뉴에이지 운동의 대표적인 기호 1 .....	108
<그림 2> 뉴에이지 운동의 대표적인 기호 2 .....	109
<그림 3> 뉴에이지 운동의 대표적인 기호 3 .....	109
<그림 4> 뉴에이지 운동의 대표적인 기호 4 .....	110
<그림 5> 뉴에이지 운동의 대표적인 기호 5 .....	110
<그림 6> 뉴에이지 운동의 대표적인 기호 6 .....	111
<그림 7> 뉴에이지 운동의 대표적인 기호 7 .....	111
<그림 8> 뉴에이지 운동의 대표적인 기호 8 .....	112
<그림 9> 뉴에이지 운동의 대표적인 기호 9 .....	112
<그림 10> 뉴에이지 운동의 대표적인 기호 10 .....	113
<그림 11> 뱀 .....	113
<그림 12> 유니콘과 타루스 .....	114

## 제 1 장 서 론

### 제 1 절 연구 목적

오늘날 뉴에이지 운동은 교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양한 근원에서 시작한 이 운동은 교회에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다. 이 뉴에이지 운동은 오늘날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마술, 초능력시범, 의학계와 심리치료계에서의 전인치료, 신과학, 기업체의 사원연수, 명상과 선(禪)을 주제로 한 음악, 지구촌교육에 이르기까지 뉴에이지 운동은 모든 영역과 분야에서 영향력을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

인간은 누구나 문화 속에서 살고 있다. 만일 인간의 삶 속에서 문화를 터부시한다면 단절된 삶을 살거나 원시적인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sup>1)</sup> 이제 정치, 경제, 사회는 물론 어떠한 단체까지도 전문화, 다원화, 정보화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지난 30년 간 뉴에이지 운동은 급속도로 대중들의 빈틈을 비집고 침투해 들어갔다. 이와 같이 뉴에이지는 무서운 독이 들어있는 하나의 종교다. 이 땅에서 뉴에이지가 가볍게 취급되는 것은 그것이 종교 형태를 띠기보다는 문화 형태를 띠기 때문이다. 뉴에이지 운동가들은 인간의 문제는 죄가 아니라 무지라고 강조한다. 그러므로 계몽을 통하여 인간은 무엇이든지 해결할 수 있으며 인간의 창조력과 인간의 힘만이 세상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뉴에이지 운동은 동방종교에서 많은 영감을 얻고 있지만 현대인들에게는 포장된 모습으로 등장한다. 그것은 동방종교의 본질에 요즘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인 건강, 부, 개인주의를 덧입혀 놓은 사탄의 교묘한 전략 전술인 것이다.<sup>2)</sup>

1) 국진호, 뉴에이지 운동에 대한 기독교적 비판 (대전: 침례신학대학교 출판부, 1993), 1.

그런데 이 운동은 다양한 근원과 배경을 가지고 있다. 뉴에이지 운동의 근원은 무엇인가? 베리트 커요스(Berit Kjos)는 휴머니즘, 쾌락주의, 힌두리즘과 비교(比較, occultism)의 혼합이며<sup>3)</sup> 존 쿠퍼(John Cooper)는 “평화와 사랑, 생태학에 대한 1960년대 반문화 운동의 관심, 1970년대의 자아인식에 대한 추구, 그리고 1980년대의 쾌락주의의 결합”이라고 했다. 이런 흐름은 동방의 많은 종교와 고대 자연 종교들의 혼합된 양상을 많이 가지고 있다.<sup>4)</sup>

이 뉴에이지 운동이 오늘날 세계적인 관심을 끌고, 문화와 학문의 모든 영역에 걸쳐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기까지는 헬레나 블라바츠키(Helena Petrovna Blavatsky)가 주도했던 신지학협회(Theosophical Society)의 활동이 주요한 역할을 했다. 이 협회는 뉴에이지 운동의 신조를 바탕으로 100년 이상의 활동을 계속해 왔고 지금은 1만 여 개 이상의 뉴에이지 조직들로 구성되어 있다.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를 통해서 뉴에이지 의식은 실제로 표면화, 공개화 되어 나타나기 시작했고 대부분의 뉴에이지 점성가들은 기독교 시대의 종말과 뉴에이지 시대의 시작을 예고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자는 뉴에이지 운동의 정체와 활동을 파악하고 뉴에이지 운동이 사회전반과 교회에 미치는 악영향을 알아보고 그 해악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이쯤하여 ‘문화명령’이라 일컬어지는 말씀이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범죄 후 인류는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리를 잃어버리고 오히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사단의 계략과 영향력 하에 놓이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 다룰 뉴에이지 운동도 이러한 사단의 반기독교적이고 반복음적인 계략 중 하나이다. 따라서 뉴에이지의 정체와 그것이 교회에 미치는 악영향을 철저히 파헤치고 그 대책을 강구하여 교회와 성도를 뉴에이지 운동이라는 사단의 계략과 도전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2) 신상연, 최후의 유혹 (서울: 낮은 울타리, 1993), 53-55.

3) Berit Kjos, Your Child and the New Age (Wheaton: Victor Books, A Division of Scripture Press Inc., 1990), 87.

4) John Cooper, "The New Age :a False but Attractive Religion," The Banner, 23 October 1989, 8.

더 나아가 이 논문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요 14:6)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요 10:10)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모르고 어두운 이 세상의 혼탁한 사조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뉴에이지라는 거짓된 진리를 분별하고 빛이요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케 하는 데에 도움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마 28:18-20, 막 16:15)인 선교적 사명을 수행하는 데에 부분적인 기여를 하는 것도 이 연구의 목적이다.

## 제 2 절 연구 방법과 연구 계획

본 논문은 먼저 뉴에이지 운동의 정의와 근원, 배경과 본질 등, 우선 뉴에이지 운동의 정체에 대해서 연구하고 오늘날 사회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 뉴에이지 운동의 활동을 논의한 후에, 사회전반과 교회에 미치고 있는 뉴에이지 운동의 영향에 대해서 파헤치고 이 뉴에이지 운동을 기독교적인 입장과 성서적인 관점에서 비판하며 그 대책을 고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려 한다.

2장에서는 뉴에이지 운동에 대해 간단히 고찰하고 뉴에이지 운동의 기원과 본질, 그리고 활동 등 오늘날 현 사회의 각양 각색의 다양한 분야에서 그 영향력을 증대하고 있는 뉴에이지 운동의 정체를 파헤치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할 것이다.

3, 4, 5장에서는 뉴에이지 운동이 미치는 악영향, 즉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우선 3장에서는 뉴에이지의 세계관을 개괄해 보고 그 세계관이 개인의 세계관에 미치는 악영향을 조명해 보며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하여 뉴에이지의 세계관을 비판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해 나갈 것이다.

4장에서는 뉴에이지 운동의 사회전반에 미치는 영향력과 그 실태를 가능한 모든 분야에 걸쳐 파헤치고 뉴에이지 운동이 어떠한 방법으로 그들의 사상과 세력을 펼쳐 나가는지 그 도구들을 조명해 보며 뉴에이지 운동의 악영향을 고찰하는 데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5장에서는 뉴에이지 운동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크고도 그 영향력이 심각한 대중문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다. 특히 대중문화의 메신저 역할을 하는 대중매체를 통한 영향력과 이런 영향에 쉽게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뉴에이지의 악영향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뉴에이지의 전반적인 가르침과 교리를 최종적으로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비판하며 뉴에이지 운동에 대한 강력한 대책과 적절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을 논의할 것이다. 또한 뉴에이지 운동에 대한 지금까지의 교회 대책을 진단하고 지역교회 차원에서 모색해야만 하는 뉴에이지의 운동에 대한 대안과 전략을 다각적인 면에서 고찰하고 그 구체적인 대책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논의할 것이다.

## 제 2 장

### 뉴에이지 운동의 정체

이 장에서는 뉴에이지 운동의 정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뉴에이지 운동이란 무엇이며 뉴에이지 운동의 기원은 무엇인가? 뉴에이지 운동의 본질과 그것의 구체적인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 형식으로 본 논문을 전개하고자 한다.

#### 제 1 절 뉴에이지 운동의 정의와 기원

##### 1. 뉴에이지 운동<sup>5)</sup>의 정의

뉴에이지 운동은 깨우침과 조화의 새 시대(물병좌의 시대(Age of Aquarius))를 꿈꾸거나 공통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개인 또한 단체로 이루어진 조직망이다.<sup>6)</sup> 이 운동은 모두 일원론(monism), 범신론(pantheism) 그리고 신비주의(mysticism)에 바탕을 두고 있다.<sup>7)</sup> 한마디로 서양의 세속적인 인본주의와 동양의 고대 신비주의적인 인본주의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없이 인간성의 회복과 참된 평화, 그리고 참된 행복이 실현되는 새로운 시대를 이룩하려는 범세계적인 종교 운동이다.

5) 이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이는 17세기 프랑스 개혁 종교 공동체의 목사인 Gillos Castelnau인데, 그는 이 표현을 사용해 우리 사고방식의 개혁을 의미하려고 하였다. 즉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볼 때 '뉴에이지'라는 표현은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 즉 개인 선의 추구가 중심 축을 이루는 세상을 묘사한 것이다. 이창욱, "뉴에이지 운동과 신앙생활", 사목 207호 (1996), 23.

6) 세계관(world-view)은 "모든 실체들을 보는 관점 혹은 해석하는 길이라고 볼 수 있으며 한 개인이 이것을 통하여 혹은 이것을 인하여 삶과 세상을 이해하는 하나의 구조물"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Norman L. Geisler and William Watkins, Worlds Apart: A Handbook on Worldviews (Grand Rapids: Baker, 1989), 11.

7) 이 정의는 다음의 책에 바탕을 두었다. Elliot Miller, A Crash Course on the New Age Movement (Grand Rapids: Baker, 1989), 15.



한편 최근 뉴에이지 운동가들 가운데는 자신들에 관해 뉴에이지 운동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꺼리고 명확한 정의를 거부하는 자들이 많다. 뉴에이지 작가인 제레미 타아처(Jeremy Tarcher)는 영원의 철학으로서의 뉴에이지(New Age as a Perennial Philosophy)에서 뉴에이지 공동체 전체를 대변하는 것은 결코 없으며 이것을 어떻게 정의해야 할 것인지 혹은 그것이 하나의 운동으로 불릴 만큼 구심력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통일된 견해가 없다고 말했다. 기껏해야 이 운동은 폭넓은 사상들과 철학체계들을 연결시켜 자연의 전체 질서 안에서 인간이 차지하는 위치를 이해하여 그 이해한 것을 근거로 체계화시키려고 힘쓴다. 그러나 그 연결시키는 정도가 낱말까지 못하다.<sup>8)</sup>

## 2. 뉴에이지 운동의 뿌리

그러면 뉴에이지 운동은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가? 뉴에이지 운동의 뿌리를 살펴 보도록 하자.

### 가. 사탄의 기만과 바벨론 종교

뉴에이지 사상의 대부분의 개념은 고대 종교 체계들에서 나온 것이다. 뉴에이지 운동의 주요 사상들은 창세기에 나타난 인간 타락 사건 속에 그 본질적인 정신이 내포되어 있다. 사탄은 아담과 이브를 불복종으로 유혹하여 복종 외에 다른 선택이 있음을 알려 주었다. 사탄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창 3:4-5).

이 성경 본문에 포함된 기만은 새로운 세계를 향한 달콤한 유혹이었고 그것은 뉴에이지 운동의 근본 뿌리가 되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자만, 즉 모든 것이 인간의 정신 속에 잠재해 있다는 믿음이다.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다.<sup>9)</sup> 이러한 사탄의 기만 속에 나타난 의도와 전략은 뉴에이지 운동에 숨겨져 많은 동양의 종교들과 신비주의, 세속적 휴머니즘 현상들을 통하여 드러나고 있다.

8) 박영호, 뉴에이지 운동평가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2), 74-75.

9) A. H. Maslow, The Father Researches of Human Nature (New York: Penguin, 1976), 92. 여기에서 “Creative people”이라고 표현했다.

특히 바벨론의 신비 종교는 모든 종교들에게 영향을 주었는데 본질적으로 뉴에이지의 운동과 종교 의식, 예배, 교리 등 많은 점에서 매우 흡사하다. 결국 이 운동을 면밀히 살펴보면 하나의 체계임을 알 수 있다.<sup>10)</sup>

#### 나. 힌두교

힌두교는 BC 1500년경에 생겼는데 매우 복잡하며 수세기에 걸쳐서 발전했다. 이 사상의 핵심은 살아 있는 존재들 속에 영원한 원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아트만(Atman)이라고 부르며 우주에 생명을 주는 우주적 정신(cosmic spirit)을 뜻하고 개인의 마음 중심에 존재한다고 보며 힌두교의 유일한 궁극적 실체, 즉 신이라고 보는 브라만 개념과 연결된다. 이들의 중심 교리인 업(業), 즉 카르마(karma)는 인과율이다. 악한 행위들은 악한 결과들을 낳고 선한 행위들은 선한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힌두교의 목표는 생존의 보다 높은 차원을 추구하면서 선한 업을 쌓는 일이다. 인간존재의 최후 단계인 니르바나(Nirvana)로 영혼을 데려감으로써 완성되는 윤회의 사슬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들이 요가를 통해서 윤회의 사슬에서 육신과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얻는다.<sup>11)</sup>

구원관은 극기와 명상을 통하여 얻은 지식으로 업의 수레바퀴로부터 해방되어 브라만으로서 환생하게 된다. 이것은 신에 대한 사랑과 인간관계 속에서 베푼 사랑의 결과로 평가된다. 힌두교의 경전인 베다(Veda)는 힌두교의 예배의식 때 사용되는 태양이나 다른 신성한 존재들에게 하는 기도 주문을 포함하고 있다. 우파니샤트(Upanishad)는 후대의 경전들로서 보다 불가사의하고 신비적인 사상을 담고 있다. 가장 신성한 책으로서 바가바드 기타는 기원전 1세기 동안 기록된 것으로 크리슈나와 아르주나 사이의 대화로 이루어졌으며 이 책은 신에 대한 깊은 헌신으로 인도하는 경전중의 경전으로 평가받는데, 카르마를 비롯한 많은 교리가 뉴에이지 사상에 흡수되어서 뉴에이지의 사상적 뿌리가 되고 있다.<sup>12)</sup>

10) 김호, 뉴에이지 운동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9), 11-12.

11) A. C. Bhaktivedanta, Bhagavad-Gita (New York: The Bhaktived Book Trust, 1972), 118. 힌두교 경전 바가바드기타에서 'Karma-Yoga'라고 표현한다.

12) 김호, 뉴에이지 운동, 12-13.

## 다. 불교

불교의 현실관은 불심을 가지고 인간의 의식을 초입하여 참 자아를 찾는 것이다. 그러므로 참선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내면과 외면의 구별이란 무의미한 것이다. 자기 내부에 있는 참 자아 밖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고 모든 것이 무(無)인 것이다. 표면적으로 시야에 비치는 모든 사물들은 단지 불심을 동요케 하는 것에 불과하다.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것이다. 불심을 떠나서는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교리는 2,500년 전 인도를 방랑하며 부처, 즉 도를 깨우친 사람으로 추앙되는 수도자 싯다르타(Siddhartha, Gautama)의 생애와 가르침으로부터 비롯된다. 오늘날 부처의 가르침을 신봉하는 자들은 전 세계에 걸쳐 5억이 넘는다. 그들 대부분이 아시아에 편중되어 있기는 하나 상당수가 유럽과 북미주 지역에도 거주하고 있다.

불교는 세계적인 주요 다른 종교들과 마찬가지로 믿음과 실행이 일치하지 않는다. 물론 뉴에이지 사상도 마찬가지이다. 불교가 뉴에이지 사상에 미친 영향은 두말할 나위 없이 명백하다. 불교보다 적어도 천년은 앞서 발달한 불교의 모체인 힌두교도 뉴에이지 사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양대종교는 특히 윤회(re-birthing)와 업을 강조한다.<sup>13)</sup>

이들은 인간이 오직 선을 충분히 쌓음으로 인해서 반복되는 탄생과 죽음, 환생의 숙명적인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가르친다. 적선만이 인간을 물질세계로부터 해방시켜 자유로운 존재로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해방된 상태를 열반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고통이 끝나고 영원한 기쁨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특히 선종은 부처 사후 1,000년 후에 발전된 새로운 종파로서 서양에서 대중의 호응을 얻고 있으며 뉴에이지 사상들을 제공한다. 명상을 뜻하는 일본의 쯤(Zen), 즉 선(禪)도 역시 뉴에이지 사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데 중국의 타오(Tao), 즉 도교와 많은 연관성이 있다. 현상세계를 움직이는 이면에는 도(道)라는 것이 있으며 이 도를 현상세계의 본질로 보는 것이 도교의 기본사상이다. 이 도는 영원불변하는 원리이며 우주 만물의 기원으로 여겨진다. 수동적인 힘인 음(陰)과 능동적인 힘인 양(陽)의 상반되고 조화로운 세력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우주 만물이 생성된다고 믿는다.

13) John Rodgers, New Age Bible, New Brunswick (Inner Light Publications, 1992), 51.

선은 존재 중심의 상실되었던 상태를 회복하는 사상을 포함한다.<sup>14)</sup> 이것은 명상에 의 존함으로 '너는 부처이고 너 자신의 내면을 살피라'는 것인데 뉴에이지의 맥락에서 보 면 이 가르침은 '너 자신 안에서 신을 발견하라', '인간은 모두 신이다'라는 뉴에이지의 가르침 그 자체이다.<sup>15)</sup>

#### 라. 영지주의

영지주의는 유대주의, 동방의 신비주의, 그리스 철학과 기독교를 혼합한 일종의 혼합주의(syncretism)다. 이 사상의 시작은 기독교와 때를 같이하며 사도시대 말기의 케린더스(Cerinthus), 2세기 초엽의 바실리데스(Basilides)와 2세기 중엽의 발렌티누스(Valentinus)등에 의해 시작되었다. 케린더스는 애굽의 지혜를 공부하였고 그의 그리스도관은 예비론주의(Ebionism)를 따른 것으로 예수님이 신성을 가진 것은 세례받을 때 성령이 그에게 내려옴으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들 주장에 의하면 예수님 이 운명하시기 전에 성령은 예수님을 떠났고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신 예수님은 신성 을 가진 예수님이 아니라 평범한 인간 예수라고 한다. 그의 신관은 그리스 철학적인 이원론이다. 예수의 처녀 탄생을 부인하며 예수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써 지혜롭 고 매우 도덕적인 위인이며 그리스도는 전연 다른 존재로서 예수에게 깃들어 계셨다 가 십자가형 직전에 떠나갔기에 그리스도의 수난은 가현(假現)이라는 것이다.<sup>16)</sup>

이들의 구원관은 높은 지식을 통해서 얻는다는 것이며 여기에서 영지주의란 용 어가 생겼다. 이 지식은 사색적인 것이 아니라 직관적인 것으로 이를 달성한 사람은 극 소수였다. 영지주의는 인간이 신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영지가 뜻하는 것처럼 인간이 신이라는 것을 깨달게 될 때 그 능력은 무한하다고 보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들은 죽음 자체를 환생이라고 보고 이 영지주의를 비밀스러운 계시의 신화로 보며 특정한 소수에게만 전수되는 밀교적인 지혜는 물질 세계를 지배하는 힘과 싸워서 이 기게 하고 또 우주의 비밀을 해독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 지혜로 인간은 구원받 을 수 있다는 논리에서 이 사상은 뉴에이지의 근본적인 뿌리가 된다.<sup>17)</sup>

14) Thich Thien-An, Zen Philosophy & practice, (Emeryville: Dharma college Publishing, 1972), 93. 3가지 신은 concentration, enlightenment, supreme way이다.

15) 김호, 뉴에이지 운동, 14-15.

16) Elaine Pagels, The Gnostic Gospels (New York: Vintage Book, 1981), 13. 요 20:11-19의 해석이다.

## 마. 요가

요가는 일반적으로 의(意)를 다스려 마음의 통일을 기하는 수행법을 말한다. 요가(Yoga)는 결부시킨다는 의미의 유지(Yuj), 즉 영어의 'Yoke'에서 나온 말로 마음을 가다듬는 것, 한 목적을 위해서 마음을 가다듬고 힘을 집중하는 것을 말한다. 요가의 목적은 명상에 의해서 절대자와의 합일(合一)을 실현함에 있다. 요가는 육체적인 훈련과 수양 때문에 대중들의 인기를 얻고 있으며 차원 높은 목적을 이루는 기초가 되고 있다. 이 요가는 명상 훈련에서 시작하여 자아를 해방시켜서 다른 차원의 세계로 이끌어 가려는 힌두교에서 발전되어 나온 힌두교의 구성요소이다.

뉴에이지 요가의 대부인 마하리쉬(Maharish)는 월스트리트 저널(The Wall Street Journal)지에서 요가는 자연법에 근본을 둔 진화론에 근거한 과학으로 접근하기에, 우리 삶에서 직면하는 문제들과 범죄에 대하여 적극성과 조화를 이루어 범죄의 근절을 가져왔다고 주장하며 이렇게 시작한 신문 지면의 1/5에 자기의 요가 학교를 길게 소개했다.<sup>18)</sup>

요가에서는 물질적 우주와 형이상학적 우주의 합일(合一)을 말하고 천국과 지옥은 오직 마음의 산물로 규정하고 있다. 강신술, 마법, 신비종교 등의 사상적 배후에는 요가의 원리가 있음이 어디서나 쉽게 발견된다. 이런 요가 사상은 뉴에이지 운동의 교리와 일치하는 것들로서 뉴에이지 신봉자들은 자신의 육체와 의식을 다스리며 나아가서는 의식확장과 고등의식 개발을 위해 요가의 정신 훈련과 신체훈련을 하는데 정신 훈련으로는 명상, 자율 신경 훈련, 정신통일과 '만트라'(Mantra)를 반복하는 일종의 연도인 코안(Koan, 48가지의 요가 자세)을 하며, 신체훈련은 호흡훈련과 연화좌, 코브라좌, 물구나무서기 등의 여러 가지 몸의 자세를 포함하고 있다. 마지막에는 사탄의 세력 하에 붙잡히게 하며 악령 숭배로 귀결하게 한다. 그러므로 아무런 의심도 갖지 않고 요가에 빠져드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갈 5:1)는 말씀을 깊이 새길 필요가 있다.<sup>19)</sup> 이런 요가의 행동 지침은 최초의 인류에게 행한 이후로 계속 지속되

17) Peter Jones, Gnostic Empire Strikes Back (New York: Presbyterian & Reformed Publishing, 1992), 113. 군대 내의 여권운동, 동방종교운동, 호모섹스운동, 자연숭배등은 공통적으로 영지주의에서 출발한다고 지적한다.

18) The Wall Street Journal, 2 November 1992, A2.

19) 김호, 뉴에이지 운동, 15-19.

어 온 사탄의 가장 진부하지만 효과적인 전술이다.<sup>20)</sup>

### 3. 뉴에이지 운동의 배경

그러면 뉴에이지 운동의 배경은 무엇인가? 뉴에이지 운동의 정의와 기원과 함께 역사적 배경을 간략하게 살펴봄으로써 뉴에이지 운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강화하고자 한다. 뉴에이지 운동의 출현은 1960년대를 출발점으로 보아야 한다. 1960년대는 서구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이며 어려운 시기였다. 당시 쿠바의 위기와 새로운 핵전쟁의 가능성, 베트남의 전쟁, 미소(美蘇)의 냉전시기였다. 이 시기에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 학생들의 시위가 강렬했다. 학생들은 자유를 원했고 정부와 권위에 대항하였다. 또 교회에 대해서도 환멸을 느끼며 기독교 자체에 대하여도 환멸을 느꼈으며 노동자들의 파업이 국가 경제를 어렵게 만들었다. 이 시기에 서구사회는 큰 진공상태였다. 젊은이들이 마약을 복용했고 동양의 신비주의가 환영을 받았다. 심지어 문선명의 통일교가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들은 유럽의 지하철 입구나 미국의 고속도로 휴게실 등지에서 꽃 파는 장사를 통해서 세계의 통일에 기여하겠다는 정신으로 물질봉사에 기꺼이 헌신하였다.

이 시기에 실존주의 세력이 점점 많아지고 또 이러한 진공을 채우기 위해 자유주의 물결이 급속도로 팽창했다. 로빈슨의 신에게 솔직히, 알티저의 기독교 무신론 복음, 하비콕스의 세속도시, 플레처의 상황윤리 등은 하나님의 죽음의 신학이었다. 또 1962년에 열린 바티칸 회의는 다른 종교에 대한 관용의 태도를 취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젊은이들에게 환멸과 좌절이 짝트게 되었다. 유명한 비틀즈 그룹이 생겼으며 동양의 신비종교들이 나타났다. 비틀즈의 단원은 동양종교가 자신들에게 신(神)이 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고 했다. 여기서 동양의 심령기술로 명상, 요가, 신비요법, 최면술, 초능력요법, 마인드 컨트롤, 자기암시 등이 짝트기 시작했다.<sup>21)</sup>

20) 안점식, 세계관과 영적 전쟁 (서울: 조이선교회 출판부, 1995), 184.

21) 박영호, 뉴에이지 운동 평가, 9-10.

## 제 2 절 뉴에이지 운동의 본질

### 1. 뉴에이지 운동의 4대 핵심교리

뉴에이지 운동의 4대 핵심교리는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내용을 근거로 설명할 수 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범죄에는 먼저 사탄의 시험이 있었다. 뉴에이지 추종자들이 주장하는 핵심 교리는 창세기 3장 본문의 네 구절로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sup>22)</sup>

#### 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창 3:4)

사탄은 그의 본성을 드러냈다. 여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데 성공한 사탄은 하나님께 정면으로 도전한다. 하나님께서 “정녕 죽으리라”하신 데 대해서 뱀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고 했다. 여자는 “죽을까 하노라”하며 반신반의했는데 사탄은 그녀를 꾀어서 “결코 죽지 않는다”며 전적으로 부정하려고 시도했다. 이처럼 죄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고 죄의 근원이 되는 사탄은 하나님에 대한 대항자인 것이다. 여기서 분명한 사탄의 목적은 거짓말로 하와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격리시키려는 것이다.

사탄은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을 미끼로 유혹을 하는데 뉴에이지 사상은 그들을 유혹할 정당한 구실로 윤회설을 제시한다. 윤회설은 인간은 죽어도 다시 다른 육체 안에서 삶을 계속하며 육신의 껍데기를 바꾸는 것이 곧 죽음이므로 두려워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 세상의 지혜를 다음 생에서도 이용할 수가 있고 인간을 심판하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뉴에이지 사상의 윤회론은 힌두교의 카르마 이론을 확대, 발전시켜서 죽음의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게 하고 죽음의 공포를 인간의 뇌리 속에서 확실하게 제거해 버리려 한다. 그래서 뉴에이지 록 가수 오지 오스본(Ozzy Osborne)의 ‘자살 해결책’(Suicide Solution)<sup>23)</sup>이라는 노래가 그들의 애창곡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그것의 사상배경을 여기서 찾아볼 수 있다. 그들은 “너

22) 김호, 뉴에이지 운동, 37-38.

23) Los Angeles Times, 14 October 1992. 자살을 부추기는 노래 ‘Suicide Solution’을 듣고 자살한 청소년들의 부모로부터 고소 당해서 5년간 계속되었던 재판은 10월 13일 화요일 연방 대법원의 무죄 확정판결로 일단락 되었다.

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엄청난 거짓말로 현대인을 유혹하고 있다.<sup>24)</sup>

#### 나. 너희 눈이 밝아지리라(창 3:5)

창세기 3장 4절에서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정유혹을 한 사탄은 이제 긍정적인 공세와 설득으로 나서고 있다. 뉴에이지 경전 주해서에서는 뱀은 선도 악도 아닌 세상 모든 종교들의 상징이라고 말하면서, 이 힘이 하락하면, 슬픔, 고통, 병과 죽음을 낳고 상승하는 힘이 되면 약동하는 힘, 죽음이 없는 신체를 만든다고 기록되어 있다.<sup>25)</sup>

사탄은 하와의 의심을 자극해서 물질적인 욕망을 부추기는데 창세기 3장 6절에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한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 지라”고 기록되어 있다. 하와가 나무를 보니 그것은 그녀의 눈에 좋아 보였고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열매를 먹었다. 사탄은 그녀의 눈이 열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하와의 불복종은 문명을 경험하도록 했는데 이 불복종의 표어는 “욕망대로 행하라”는 것이다. 뉴에이지 신봉자들이 이것을 그대로 채택하였다. 교회는 결코 중요하지 않다. 종교적인 체험이 상위 개념이며 이 경험은 신이라고 불리는 어떤 힘과의 합일을 체험하는 것이다. 이런 체험으로 인해 이성적 힘은 사라지고 욕망만이 인간을 지배하여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눈이 밝아지리라’는 말 자체가 어이없는 속임수이고 유혹이다. 사탄은 창세기에서 사용한 수법으로 지금은 뉴에이지를 통해서 거짓말하고 유혹하고 있다. 죄를 지음으로 눈이 밝아져서 계몽의 빛을 보게 된다고 하는 사탄의 설득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강한 유혹이기에 뉴에이지 신봉자들 역시 해묵은 유혹의 가면을 쓰고 손을 뻗치고 있는 것이다.<sup>26)</sup>

#### 다. 너희가 하나님 같이 되리라(창 3:5)

여기서 사탄의 본성이 드러난다. 본문의 유혹자는 원래 천사장 루시퍼로 하나님

24) 김호, 뉴에이지 운동, 38-39.

25) Helene Corinne, New Age Bible Interpretation Genesis (Santa Monica: New Age Press, 1999), 34.

26) 김호, 뉴에이지 운동, 39-40.



과 동등자가 되고자 했다가 하늘에서 추방되어 사탄이 되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엮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사 14:12-13). 이것은 과장된 말이요 거짓말이요 분수를 모르는 인간적인 야망의 말이다. 이런 야망은 후에 바벨탑 사건에서 나타났던 바이며(창 1장) 마귀의 방식을 좇아 자신을 신성시하는 것이요 적그리스도의 선구자로 자처하는 말이다.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살후 2:4). 누구든지 자기를 사람들 위에 높인다는 것은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시하는 무서운 죄악이다.

또한 이 구절에 담긴 사탄의 의도는 하나님과 동등한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내 인간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인간자신이 하나님이 된다는 거짓말은 설득력이 없다. 그래서 뉴에이지 사상은 우회적으로 “만물은 신이고 신은 곧 만물이다”라는 범신론에 호소함으로써 보다 용이하게 인간을 걸어 넘어뜨리고자 한다. 명상을 통하여 물질세계의 영향에서 벗어나 신과 하나가 됨으로써 결국 인간은 인간신이 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한다. 뉴에이지 운동의 광적인 수석 여사제로 불리는 쉘리 맥클레인(Sherry McKelrain)은 페루의 안데스 산맥에서 텍 밑에 황금침을 맞고 “3,500년 전의 자기의 전생을 보고 다시 인간세상으로 돌아왔노라”고 궁지에 빠져서에서 말하면서 신이 되어 가는 자신을 과시하고 있다. 뉴에이지 신봉자들이 제창하는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우리가 자신의 신성을 깨달는 것이 가장 완전한 지혜이다”라는 말은 에덴동산에서 사탄이 하와를 유혹하던 내용인 “너희가 하나님같이 되리라”는 말과 똑같은 반복일 뿐이다.

뉴에이지 사상의 인본주의 심리학자 에리히 프롬(Erich Fromm)은 너희도 신처럼 되리라(You Shall be as Gods)에서 인간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적수가 될 수 있었는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자 하나님의 지위가 위협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위험부담에서 자신을 방어하려고 먼저 인간을 추방시켜 버렸다고 아전인수격인 해석을 시도했었다.<sup>27)</sup> 이 엄청난 거짓말과 유혹은 계속적으로 인간을 향해서 손짓한다.<sup>28)</sup>

27) Erich Fromm, You Shall be as Gods (Greenwich: Fawcett Publisher, 1966), 21.

28) 김호, 뉴에이지 운동, 40-41.

라. 너희가 선악을 알리라(창 3:5)

여기서 말하는 선악은 단순한 도덕적 판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독점하신 우주적인 전 지식을 말한다. 이런 지식이 있다면 더 이상 하나님의 간섭이나 지도가 필요 없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 여기서 사탄은 하나님의 금단을 부당한 것으로 돌리고 인간이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하였다. 이것은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케 하려는 것이었다. 계속 유혹하기를 그 열매를 먹기만 한다면 선악을 결정할 수 있다고 거짓말로 유혹했다. 결국 그것을 먹음으로 선악을 구별할 수가 있었는데 이것이 그들의 윤리를 만들어 냈다. 이 윤리는 상대론인데 자신에게 옳은 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선한 것은 아니다. 이 세상에서 절대적으로 선한 것과 악한 것이란 없다. 단지 상황이 윤리를 결정한다는 이론이다. 따라서 선악을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거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자기가 처한 환경에 따라서 선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결정해서 행동으로 옮기면 된다는 논리이다.

뉴에이지 신봉자들의 선악에 대한 모토는 ‘모든 것이 선하고 선이 곧 모든 것이고 결국 악 자체도 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탄의 ‘너희가 선악을 알리라’는 이 전략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것도 배제하고 인간 자신이 선악을 결정하도록 만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기존의 질서를 파괴하려는 의도의 유혹이다. 나 자신이 도덕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나의 판단에 의해서 나의 감정대로 행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이다. 거짓말을 통하여 사탄은 인류를 사망에 밀어 넣었다. 예수께서 이 사탄을 가리켜서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요 8:44)고 하셨다. 지금도 뉴에이지 신봉자들을 통해서 이러한 유혹은 계속되고 있다.<sup>29)</sup>

29) Ibid., 41-43.

## 2. 뉴에이지 운동의 전략

위에서 설명한 교리를 지닌 뉴에이지 운동의 전략은 무엇인가? 현재 뉴에이지 운동은 급속도로 확산되어 가고 있다. 전국적으로 TM,<sup>30)</sup> 기공, 요가, 실버 마인드 컨트롤<sup>31)</sup>과 ESP<sup>32)</sup>와 같은 강좌가 늘어가고 있고, 이러한 방법을 수행하는 연예인들에 관한 기사도 잡지에서 종종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교회에서조차 아무 비판 없이 뉴에이지 운동의 수행방법들을 도입하고 있는 점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저 한 순간에 일어났다 사라질 것으로만 알았던 뉴에이지 운동이 시간이 지날수록 그 세력이 강해지고 있는 것이다.

뉴에이지 운동은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전략은 바실리아 솔링크 여사가 잘 표현한 대로 바로 '다양성 안의 일치'라는 것이다. 이 전략은 지금 교회로까지 침투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다. 뉴에이지 운동의 전략은 마릴린 퍼거슨(Marilyn Ferguson)이 쓴 물병자리의 음모(의식혁명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어 있음)에 잘 나타나 있다. 이 책에서 마릴린 퍼거슨은 인간에게 변혁이 일어나는 네 가지 단계를 설명하는데 이 네 가지 단계를 지금 뉴에이지 운동의 실체와 비교해 보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를 쉽게 알 수 있다. 그는 인간은 본질적으로 거의 무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부에 숨긴 채 살아가고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인간에게 변혁이 일어나는 네 단계를 여행의 입구, 구도, 통합 그리고 공모라고 설명한다.<sup>33)</sup>

여행의 입구 단계는 뉴에이지 운동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단계인 것이다. 지금은 주로 육체적인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뉴에이지 운동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30) Trumpet Medium, 교령회(seances)에서 트럼펫을 통해 영의 음성을 발하는 심령술사 또는 민감자

31) 심리학에서 사용되는 마인드 컨트롤(Mind Control)이란 '자기최면' 또는 '자기암시'라고 볼 수 있다. 인간이 자기 자신에 대해 끊임없이 긍정적인 목적을 가지고 자기 최면을 걸면 암시 효과를 통해 잠재된 자의식을 일깨우고 계발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뉴에이지에서 말하는 마인드 컨트롤은 이것과는 좀 다르다. 일반 심리학에서 말하는 인간의 잠재의식을 일깨우고 계발하는 것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인간이 스스로 신과 같은 존재임을 깨닫게 하고 인간 스스로 신이 되는 과정을 거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엠마오 편집부 편, 뉴에이지 (서울: 도서출판 엠마오, 1996), 66.

32) Extra Sensory Perception, 초감각 지각, 특별한 느낌, 마치 신의 계시를 받은 것 같이 머리에 번득이는 신통한 생각 등이 밖으로 드러나는 현상.

33) 이경희, "초능력, 점성술, 마술 등으로 접근하는 뉴에이지,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생활, 2000년 4월호, 32.

많은데 사실 그러한 사람들을 포함해서 이 단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영성을 갈구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마릴린 퍼거슨은 이러한 점을 설명하면서 60년대에 LSD(34)가 사람들을 깨달음의 단계로 인도하는 역할을 했었다고 말한다.

두 번째 구도의 단계는 초기 단계에서 온몸의 긴장을 이완시키는 단계이다. 마릴린 퍼거슨은 편안한 마음을 갖게 되면 저절로 내면의 지식이 밖으로 흘러나온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구도의 단계는 명상이나 요가, 선, 기공과 같은 방법들을 시작하는 단계이다. 이것들을 수행하기에 앞서 온몸의 긴장을 이완시킨 다음에 서두르지 않고 서서히 내면의 세계로 빠져 들어간다.

세 번째 통합의 단계는 뉴에이지의 방법들에 깊이 빠져 들어가 내면의 스승을 만나는 영적인 깊이를 더 하는 단계이다. 내면의 스승을 만나는 단계는 사탄이 준비한 환각을 맛보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뉴에이지의 방법을 수행하면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러 유체이탈이나 환상을 통해 영적인 존재를 만나는데 그러한 경험은 바로 사탄이 준비한 프로그램으로, 더욱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드는 계약의 하나이며 통합의 단계에 속한 사람들이 대부분 이러한 것들을 경험한다. 깊은 명상에 빠진 사람들은 종종 신비한 체험을 하기도 하고 눈앞에 펼쳐지는 환상의 세계를 보기도 한다. 그런데 이런 뉴에이지 방법에 빠져든 사람들은 신비주의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나아가서는 사탄숭배라는 그물에 걸려들게 된다.<sup>35)</sup>

네 번째 공모의 단계는 변혁을 기다리고 있는 자신과 같은 사람들을 공모하는 단계이다. 뉴에이지 운동이 지금 수많은 동조자들을 규합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움직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인간의 변혁 그리고 지구 전체의 변혁, 바실레아 슐링크 여사가 뉴에이지 운동을 다양성 안의 일치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각계 각층의 사람들, 즉 개인적으로 앞에서 언급한 세 가지 단계를 거친 사람들이 공모하여 변혁을

34) Lysergic Acid Diethylemide, 환각제의 일종, 1943년 알버트 호프만 박사가 맥각균에서 우연히 합성한 물질로서 무색, 무미, 무취한 백색분말이다. LSD는 주로 강하고 기묘한 정신적 반응을 일으키고 시각, 촉각, 청각 등 감각을 왜곡시키는 가장 강력한 물질이다. 다른 환각제는 주체의 정신을 흐리게 함으로써 신비적, 환상적 세계를 보게 하는데 반해, LSD 환각제는 주체를 자신에게 집중하여 명상적인 상태를 만들어 낸다. 그 효과는 종교언어를 사용하여 비유적으로 해석해 보면, 천상적 기쁨의 느낌, 모든 것이 통합된 의식상태, 시간의 개념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느낌 등으로 나타낼 수 있다.

35) 이경희, "초능력, 점성술, 마술 등으로 접근하는 뉴에이지, 어떻게 할 것인가", 32-34.

일으키려는 공통된 목표를 갖고 있다는 의미를 함축시킨 것이다. 지금 뉴에이지 운동은 세계를 변혁시키기 위해 공모의 단계를 거치고 있다.<sup>36)</sup>

### 3. 뉴에이지 운동의 목표

그러면 뉴에이지 운동의 목표는 무엇인가? 현재 뉴에이지 운동은 기독교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목표를 가지고 있다.<sup>37)</sup> 그러므로 뉴에이지 운동의 대표격인 신지학 협회(Theosophical Society)와 마릴린 퍼거슨이 주장하는 목표를 통해서 뉴에이지 운동의 목표를 살펴보려 한다.

#### 가. 신지학 협회의 목표

이 협회의 설립자 블래바트스키는 신지학 협회의 목표에 대해 신지학의 열쇠 (The Key of Theosophy)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 인종, 피부색, 신앙의 차별을 두지 않고, 인류의 보편적 동포애의 핵을 만드는 것, 블래바트스키는 현재 세계에서는 종족과 종족이, 국가와 국민들이 대립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들 내부에서도 서로 반복하고 있다고 말하며, 특히 소위 문명화된 기독교 국가들간에 가장 현저하게 나타난다고 말한다. 이것은 기독교인들이 성경에 대해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 배타주의적 성격을 띠게 된 유대주의를 따르고 반대로 타인을 사랑하라고 한 예수의 애타주의(愛他主義)를 버렸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신지학 협회는 영적, 육체적으로 같은 기원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다양한 종교, 습관, 신앙에도 불구하고 보편적 동포애를 가지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둘째, 아리안(Aryan) 및 다른 성전(聖殿)의 연구, 세계의 종교 및 고고학(考古學)의 연구를 증진하며 고대 아시아의 문헌, 즉 바라문교(Bramana: 고대인도의 바라문 혹은 브라만 계급을 중심으로 발달한 종교)와 배화교가 가진 철학의 중요성을 입증하는 것이며 셋째, 모든 면에서 자연에 감추어져 있는 신비를 탐구하고, 또 특히 인간 안에 잠재된 심리적 및 영적인 여러 힘을 연구하는 것이다.<sup>38)</sup>

36) 곽용화, 당신은 뉴에이지와 그 음악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서울: 낮은울타리, 1997), 53.

37) 도서출판 엠마오 편집부, 뉴에이지 (서울: 도서출판 엠마오, 1996), 35.

#### 나. 마릴린 퍼거슨이 주장하는 목표

퍼거슨은 물병자리 공모(The Aquarian Conspiracy)에서 현대사회를 정치, 경제, 의료, 교육 등 모든 면에 걸쳐 위기를 맞고 있는 시대라고 보고 있다. 물질문명에 의해 인간들은 자신을 잃어가고 있으며 사회는 거대한 공룡 같은 조직으로 짜여 있어서 인간들의 자유를 빼앗고 신음하게 만들며, 더 나아가서 현대의 물질에 의한 계급제도는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와의 대립을 낳고 굶주린 자를 양산하며, 새로운 세계대전 의 위협, 환경파괴 및 오염, 발달하는 의학으로도 고칠 수 없는 새로운 질병들의 증가 등을 초래하였다. 결국 이 모든 상황들을 인류의 파국을 달음질치는 현상들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퍼거슨은 이런 모든 위기들로부터 벗어나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사회를 건설하고 세계에 평화를 굳건히 세우며 지상에서 굶주림을 없애고자 한다. 동시에 인생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여 인간 사이의 유대성을 강화하고 전체성을 회복하여 정신적인 기아(饑餓)를 고쳐야 하며 이런 목표는 인간이 잃어버린 정신의 위대한 잠재력을 되찾고 스스로 세계의 주인이 될 때 비로소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sup>39)</sup>

결론적으로, 뉴에이지 운동은 인간의 자기 회복과 박애적 평등사회 건설이라는 바람직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아니 주장해야 할 올바른 목표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것을 이루어 가는 방법 자체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가 아니라 인간이 신(神)의 위치에 설 때 가능하다고 주장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들이 일각에서 주장하듯이 적 그리스도를 통한 세계정부 수립에 목표가 있다는 데 물론 이것은 아니다. 적 그리스도는 어떤 특정한 한 인물이지만 뉴에이지 운동에서 말하는 인간은 특정한 인간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신이 되는 인신(人神)을 말하고 있고 하나 되는 평등세계 또한 특정한 권력기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기존 권력기구를 해체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각 사람이 주체적으로 주인이 될 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뉴에이지 운동을 적 그리스도로 단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기존의 사상들과 같이 뉴에이지 운동의 비 기독교적인 성격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sup>40)</sup>

38) Ibid., 35-36.

39) Ibid., 36-37.

40) Ibid., 38.

### 제 3 절 뉴에이지 운동의 활동

이제 뉴에이지 운동의 정체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뉴에이지 운동의 선도적 인물과 단체와 그것의 구체적인 활동 분야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1. 뉴에이지 운동의 지도자

뉴에이지 사고 이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몇몇 지도자들과 그들이 보급하고 있는 사상들을 간략하게 살펴보자. 우선 대표적인 인물로 셸리 맥클레인(Shirley McClaine)이 있다. 맥클레인은 1987년 10월에 2,400명이나 되는 신비주의 종교지도자들을 비밀스러운 장소로 모이게 하는 능력을 소유한 대표적 지도자이다. 그녀는 연극, 춤, 저작과 정치적 활약을 통해 잘 알려지게 되었다. 그녀의 베스트셀러 궁지에 빠져서에서 자신이 뉴에이지 운동으로 전향한 사실을 썼다. 적극성을 띠고 전향한 사람은 아니었으나 그녀는 자기의 혼이 몸밖으로 나가는 체험들, 외계인들과의 접촉, 다양한 영적인 존재들과의 황홀경에서 교통, 개인적인 대화, 폭넓은 독서와 같은 일련의 특별한 사건들을 통하여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존재와 삶의 목적을 찾아 헤매었다. 그러나 어떤 그리스도인도 그녀에게 오지 않았고 돕지도 않았다. 그러다가 어떤 점술가로부터 심령술을 통해서 죽은 자와 접촉해 보라는 권유를 받았다. 그래서 그녀는 35,000년 전에 죽은 자의 영과 접촉했다고 한다. 그녀는 자신을 뉴에이지 운동의 최고의 전도자로 부른다.<sup>41)</sup>

두 번째는 존 네이스빗(John Naisbitt)으로 베스트셀러 작자이자 연사인 그도 자신의 글과 강연을 뉴에이지 메시지의 요소와 결합시킨다. 백 만 부 이상 팔린 그의 책 메가트렌드스(Megatrends, 1982)로 스타덤에 오른 후 네이스빗은 회사의 재창안(Reinvention the Corporation, 1985)으로 다시 많은 부를 획득했다. 네이스빗의 사명은 뉴에이지의 입장을 사업계(business world)에 알리는 것이다. 그는 뉴에이지 저널(New Age Journal)에 기고하여 뉴에이지의 가치들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주 뉴에이지란 용어를 피했지만 그 메시지는 그의 작품에 명백하게 나타나 있다. 그는 매일 그의 아내와 함께 명상하고 환생을 믿으며 뉴에이지 물리요법을 받은 적이 있고

41) Ibid., 28.

점(占)을 보기 위하여 점쟁이(spiritual adviser)에게 다닌다. 한 인터뷰에서 그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말했다. “나는 최근에 워싱턴에 있는 어느 무당에게 점을 보았는데 그 무당은 내게 무엇보다도 내가 뉴에이지 공동체의 한 창시자가 될 것이라”고 말해주었다.42)

세 번째 인물은 마릴린 퍼거슨이다. 물병자리 음모는 1980년대 초에 마릴린 퍼거슨이 쓴 중요한 뉴에이지 사상책이다. 이 책은 그녀가 뉴에이지 운동의 핵심을 전달하기 위해 주의 깊게 저술한 것이다. 다른 잘 알려진 종교지도자들, 과학자들, 철학자들 그리고 심리학자들에 의해 부분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상에서의 삶에 대한 기대와 생활양식에서의 극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강조한다. 그녀가 실시했던 앙케이트에 대한 응답들이 그녀의 사상들을 지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녀가 알아낸 사실들을 통하여 개인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극적인 변혁이 있으리라는 갈망이 널리 퍼져 있음을 면밀히 관찰했다. 그녀는 또한 “두뇌”(Brain/Mind Bulletin)라는 잡지를 출판하여 건강, 정신의학, 의식의 상태들, 꿈, 명상, 그리고 관련된 주제들의 문제들을 탐구하고 있다. 그녀는 두뇌 작용의 두 영역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 또 마릴린 퍼거슨은 사람들로 이뤄진 연결망들이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모든 관심의 영역 안에서 뉴에이지 사상에로의 변혁을 어떻게 추구할 것인가를 더욱 일반화시켜 강조한다. 그녀는 뉴에이지 운동이 어떻게 진전이 이뤄지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묘사한다. 그러나 그녀는 그 운동의 성장을 묘사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이 운동을 찬성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요구된다고 생각되는 ‘모델변이’의 사상을 고취하고 있다. 특히 그녀의 책은 설득력이 있어 사람들로 하여금 뉴에이지 사상을 갖고 성공에 대한 실험과 기대로 향하게 할 것이다. 그것은 직장인들, 은행가들, 정치가들, 의사들, 교육가들, 환경주의자들, 철학자들 그리고 사상가들에게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다른 뉴에이지 지도자들의 견해를 뒷받침하는 청사진과 같은 것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구질서의 속박을 던져버리고 전 세계적 차원의 새로운 질서로의 인류의 해방을 전하도록 설득한다.43)

네 번째 대표적인 인물은 피에르 페이야르 드 샤르댕(Pierre Teilhard de Chardin, 1881-1955)이다. 마릴린 퍼거슨이 그녀의 앙케이트를 분석했을 때 뉴에이지

42) Ibid., 29-30.

43) Ibid., 30-31.



사고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가장 빈번하게 언급된 인물의 이름이 피에르 페이아르 드 샤르댕이었다. 샤르댕은 예수회 신부이자 또한 과학자였다. 그는 우주와 인간의 영적인 본질을 포함하는 인간의 본성과 진화를 이해하기 위해 일생에 걸친 탐구에 근거한 수많은 책들을 출판했다. 그는 이것을 그의 기독교 세계관과 조화시켜 보려고 했다. 그의 많은 저작들은 논문을 편집한 형태로 출판되어 있다. 그는 인류를 우주의 영적(정신적)이고 물질적인 진화의 일부로 간주했다. 그는 실체에는 세 차원이 있음을 주장했다. 지질권(물질), 생물권(생명체) 그리고 정신권(nouspher, 의식의 영역)이 그것이다. 그의 진화이론으로부터 그는 지구가 정신권의 정신적이고 영적인 에너지에 의해 덮힐 것이라고 믿었다. 이 층(layer)은 인류의 정신적이고 영적인 에너지를 포함한다. 그는 그리스도를 이런 진화과정에서 발전되어 나오는 것이며 또한 그 과정의 일부라고 보았다. 그는 우주의 구원이 진화과정의 최고 단계인 인간에게 의존하고 있고 지구와 궁극적으로는 모든 피조물의 치유와 화해의 과업을 떠맡기 위해 영적이고 물질적인 진화의 흐름 속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보았다.

샤르댕의 주장은 성경의 타당한 해석과는 거리가 먼 사상들을 널리 폄했다. 인간의 미래(The Future of Man)에서는 ‘뉴에이지’ 또는 ‘새 세계질서’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하고 있다. 그의 사상들은 피조물과의 화해에 관계된 현 뉴에이지 주의의 견해들과 일치한다. 그가 사는 동안 샤르댕의 작품들은 교회나 동료 과학자들에 의해 수용되지 못했으나 사후에 지금은 그가 대중의 평판을 점점 받고 있다.<sup>44)</sup>

다섯 번째 인물은 매튜 폭스(Matthew Fox)이다. 그는 도미니칸 수도회의 학자로 뉴에이지의 영성과 개인적인 변화에 대한 주요한 저자와 연사로 부각되었다. 그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문화와 창조 영성연구소(Institute in Culture and Creation Spirituality)의 책임자이다. 그 자신의 사상들은 과거의 신비주의자들, 특히 독일의 마이스터 에크하르트(Meister Eckhart 1260-1329)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 그는 창조적 에너지의 흐름 한 가운데로 들어가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그의 사상들은 ‘개인적인 변화’라는 일반적인 뉴에이지 사상에 기반을 두면서 그 사상을 지지하고 있다. 그 주제는 지구의 자원들을 중시하여 되살리려는 필요성을 알고 있는 생태학자들에게 흥미로운 것이다. 그 사상들은 창조 안에 있는 영적인(정신적인)에너지의 흐름을 포함하는

44) Ibid., 32-33.

창조와 진화에 관련된 과학적, 철학적, 종교적 사고가 점차로 고조되는 것과 일치한다. 그 사상의 많은 부분들이 샤르맹의 것들과 유사하다. 폭스는 창조과정내의 축복들-인류가 재발견해야 할 축복들-을 강조한다. 그는 인류의 타락과 죄스러움을 인정하기 보다는 오히려 이것을 강조한다. 그 강조점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왕국'보다는 오히려 이 세상 질서 내에서의 구원에 있다. 우주적 그리스도의 오심(The Coming of the Cosmic Christ, Harper & Rowe, 1988)에서 폭스는 우리 모두가 신비주의자들이 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그리스도는 신비주의자였다고 설파한다. 그는 그리스도가 우주의 영적인 생명의 힘이라는 사상을 만들어 냈다.

## 2. 뉴에이지 단체

그러면 뉴에이지를 대변하는 대표적인 단체에는 무엇이 있는가? 뉴에이지는 세계적인 주요기관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즉 UN, UNESCO, WCC, 로마클럽, 록펠러 재단, 포드 재단 등이 해당한다.<sup>45)</sup> 그런데 뉴에이지 이단을 파악하는데 있어 문제들 중의 하나는 뉴에이지 조직들과 지도자들을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sup>46)</sup> 다음의 조직들의 목록에는 뉴에이지 단체들만이 아니라 비록 분명하게 뉴에이지는 아닐지라도 뉴에이지 신봉자의 공감을 얻고 있는 단체들도 포함되었다.<sup>47)</sup> 또한 인간의 잠재력, 개인성장 그리고 전인적 건강을 연구하는 전세계적 연락망이기도 하고 잡지를 발행하며 최선의 건강, 자기치료, 영성과 같은 주제로 연구회를 개최하는 인본주의 심리학 협회(Association for Humanistic Psychology)가 있고 영매 에드가 케이시(Edgar Cayce)의 가르침들을 보급하고 자기 최면, 시각화, 심령 인도와 같은 주제의 세미나와 강술회를 후원하는 연구와 계발협회(Association for Research & Enlightenment)도 있다. 그리고 회보를 발행하고 초인격(전인적) 심리학의 다양한 학위 프로그램들을 실시하는 국제적인 조직을 갖춘 초인격 심리학 협회(Association for Transpersonal Psychology)도 존재한다. 또한 미국 테네시주 섬머 타운의 저항 문화적인 농장(The Farm)이란 이름의 뉴에이지 공동체로서 이 단체는 자신의 플렌티(PLENTY) 계획을 통해 미국 및 국외에서 박애주의 활동을 한다. 파인드혼(Findhorn) 공동체는 스코틀랜드에 위치한 원형

45) Ibid., 15-16.

46) Walter Martin, 뉴에이지 이단운동, 박영호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2), 129.

47) Ibid., 137.

적 뉴에이지 영성과 세계봉사라는 원칙들 가운데 지속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파인드혼 공동체는 매일매일 생활의 신성함을 강조한다. 에르하드식 세미나 훈련, 또는 집단 감수성 훈련(EST)로 유명한 공개토론회(The Forum)는 베르너 에르하드가 창설한 단체이다. 이 단체는 인간잠재력 세미나의 대상으로 사업계를 목표로 삼는다. 이 단체는 각 사람이 자신의 현실을 창조하고 자신 외에 아무에게도 책임이 없다고 가르치며 인간은 무한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묘사된다. 전 세계에 2천 5백만 명 이상의 지지자를 갖고 있는 비영리적 환경보호단체인 그린피스 유 에스 에이(Greenpeace USA)의 목표는 세계에 혹성의식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들은 해양 생태학, 비무장 그리고 유독성 오염의 방지를 촉진한다. 이들은 사람들을 교육하는 것과 합법적인 로비 활동이라는 두 가지 방법으로 자신들의 목표를 실천한다. 공공 정책 결정들에 영향을 끼치고자 시도함으로써 자연 환경보전을 조장하는 비영리 단체인 시에라 클럽(The Sierra Club)과 관련된 자원 봉사자들은 편지 보내기 캠페인과 정치 로비활동에 전념한다. 저술가이며 강연자인 벤자민 크레임은 자신이 이끄는 뉴에이지 조직인 타라센터(Tera Center)를 자신의 무대로 삼아, 자주 떠오르고 있는 뉴에이지와 뉴에이지의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질서에 대한 강연을 한다. 또한 신지학 협회(Theosophical Society)라는 단체는 헬레나 페트로브나 블라바츠키와 애니 베산트의 사상을 보급하는 단체이다. 이 단체의 목표는 세계적 형제관계를 형성하고 세계종교와 과학과 철학의 비교연구를 하고 인간에게 잠재한 심령능력과 영적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다. 뉴에이지의 조직중 100개 이상의 연락망과 단체들로 이루어진 뉴에이지의 초연락망(metanetwork)인 다양성 통일 협의회(Unity-in-Diversity Counsel)는 세계적 규모로 지구적 협동과 상호의존을 조성한다. 마지막으로, 존 덴버(John Denver)가 창설한 단체로 윈드스타 재단(Windstar Foundation)이 있다. 이들은 또한 생태학, 갈등 해결, 그리고 시민 외교라는 프로그램들을 실시한다.<sup>48)</sup>

### 3. 뉴에이지 운동의 활동분야

뉴에이지 주의자들은 개인적인 변화와 양자택일적인 생활방식을 추구하고 있다. 따라서 그들은 활동 지향적이다. 이런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많은 선택이 가능하다.

48) Ibid., 137-141.

그런 선택할 수 있는 활동들은 서점, 뉴에이지 센터들, 교육신탁, 우편 또는 상점, 신문 그리고 잡지들을 통하여 선전된다. 뉴에이지의 사고는 사업가, 신문편집자들, 텔레비전 제작자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증대하고 있어 그 사상들은 일반 대중들 가운데서 대중매체를 통하여 산업사회에서 보급되고 있다.

뉴에이지 사상들은 주요 회사들의 적극적 사고에 관한 강의, 학교교사들을 위한 자기 표현에 대한 강의, 광범위한 뉴에이지 사상을 담고 있는 어린이들을 위한 주요한 새로운 만화시리즈-우주시대 안에 나타난 이교사상들-와 같은 외관상 해(害)가 없어 보이는 듯한 많은 활동 속에 침투해 들어갔다. 최근에 활동하고 있는 분야는 주로 다음과 같다.49) 첫째 양자택일적인 건강요법이다. 이런 치료법 가운데 침술요법이 있다. 침술요법에서는 신체의 특정부위에 꽂은 바늘(침)이 기(氣)의 흐름을 열어 놓는다고 한다. 우리는 여기서 요가의 카크라스(chakras)와 도교의 음양사상이 연결되고 있음을 보게 된다. 반사학은 또 다른 요법인데, 이 요법에서는 발바닥 마사지가 조화(균형)를 회복시켜 관련된 아픈 신체부위를 치료한다고 한다. 긴장이완, 명상, 요가요법들은 종종 다른 치료법들을 보완하는 것으로 제안된다. 긴장이완요법은 물리요법으로부터 전기자극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가 있다. 그들의 손을 통하여 우주의 영적인 에너지로부터 치유하는 능력을 매개한다고 주장하는 많은 영적인 치유자도 있다. 이외에도 이온요법, 홍채(안구의)요법(iritology), 방향요법(aromatherapy), 약초요법(hervbalism) 등이 있다. 이런 요법들은 종종 감춰져 있어 순수하게 물리적인 치료법들과 구분되기가 어려운 것이 일반적인 사실이다.50)

두 번째 별에로의 투사이다. 이것은 신비적인 전통에 근원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주과학 소설과 관련된 사상들을 이용하고 있다. 시간과 공간 속을 여행하기 위해 육체적인 몸으로부터 분리가 가능한 이중적인 몸인 성기체(星氣體)가 있다고 가르치고 있다. '몸밖의'(out of body) 체험들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다. 많은 사람들은 그 개념을 받아들이고 있고 별에로의 여행이 약속해 주는 그런 부류의 체험을 구하고 있다.

세 번째는 꿈이다. 꿈의 해석은 뉴에이지 주의자들 사이에 중요한 문제이다. 심리학자들, 특히 프로이드와 융의 학파에 속하는 심리학자들은 꿈의 해석에 그들의 이

49) 박영호, 뉴에이지 운동 평가, 55-56.

50) Ibid., 56-58.

론의 기초를 상당히 두고 있다. 개인적인 체험으로부터 미래 예견을 통하여 집단 무의식 조사에 이르기까지 뉴에이지 주의자들이 이 분야에서 연구하는 것이 많다. 꿈 해석입문서들을 출판하는 사람들은 꿈 일기(dream diaries) 사용을 널리 보급하고 있다.

네 번째는 안내자 역할을 하는 영들이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생각하는 영의 세계의 의사전달을 체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영들로부터 끊임없이 인도를 구하고 있다. 그것은 마치 그들이 늘 함께 하는 친구로서의 좋은 스승(mentor)이자 영적인 안내자를 구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영들은 인류가 유익을 얻어낼 수 있는 비밀스런 정보를 갖고 있는 영적으로 고차적인 수준에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셸리 맥클레인 은 그녀 자신의 영의 안내자를 갖고 있다. 영매인 제인 로버츠는 그녀를 통하여 셋(Seth)의 힘으로 책들을 출판했는데, 특히 우주의 비밀들에 관한 책들을 출판했다. 옹도 이 종류의 커뮤니케이션을 중시했던 사람이었다. 말로 하거나 글로 쓰여질 수 있는 메시지를 담은 음성이 마음속에서 들린다고 한다.

안내자로서의 영이란 개념은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통로나 다른 영적인 에너지들을 위한 통로로 선택되었다고 여겨지는 사람 속에서 이뤄지는 매개역할의 개념과 유사하다. 이런 모든 것들에 두루 통하는 전통적인 용어가 '영매'(medium)이다.<sup>51)</sup>

다섯 번째는 피라미드이다. 이집트의 피라미드들은 그 설계도 안에 암호화된 정보를 갖고 있다고 여겨진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모든 근본적인 지식이 이 암호들, 크기들, 기하학적 패턴들 안에서 발견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이로 인해 피라미드에 대한 관심이 유발되었는데 좀더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피라미드가 영적인 변화와 심오한 지혜로 이르게 하는 통로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관심이 생겨났던 것이다. 이것은 숫자, 타롯(점치는 데 쓰였던 옛 이탈리아 카드), 색깔, 점성술, 카발라와 신비로운 문자들(룬 문자: Rune)을 포함하는 많은 다른 요법들과 다름없이 악마적인 능력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 같다.

---

51) Ibid., 60-61.

## 제 3 장

### 뉴에이지 운동이 개인의 세계관에 미치는 악영향

이제부터 뉴에이지 운동이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뉴에이지 운동이 세계관을 포함한 사회 전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선 뉴에이지 운동이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살펴보기 전에 뉴에이지 운동에 스며든 세계관을 비판하고자 한다. 그 자체에 대한 비판을 한 후에 그것이 미치는 세부적인 영향력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 제 1 절 뉴에이지 세계관의 영향

##### 1. 혼합주의

뉴에이지 운동의 기본 사상은 다름의 세 가지 명제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만물은 하나다. 둘째, 만물은 신이다. 셋째, 인간은 신이다. 이상에서 우리는 뉴에이지 사상이 동양의 힌두교 사상을 주요원리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순전히 사상 체계로만 본다면, 뉴에이지 사상은 힌두교의 서구적 양태라고까지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뉴에이지 사상은 힌두교뿐만 아니라 불교, 신플라톤주의, 기독교 영지주의 및 비교주의(Occultism)<sup>52)</sup>가 뒤섞여 있다. 불교의 영향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모든

52) 비교(Occult)란 모든 종류의 주술적, 비의적(秘儀的), 기적적 관념이나 의례, 관행을 말한다. 비밀, 은닉을 뜻하는 라틴어 occult(-us)에서 유래하며 신비하고 불가사의한 사항을 둘러싼 관념, 의례, 관행을 뜻한다. 비교주의는 자연법칙을 초월하여 인간의 운명과 세계 본연의 상태를 좌우하는 여러 존재나 원리 및 힘이 존재한다는 관념과 사고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과학적인 합리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의 것을 다룬다. 따라서 오컬티스트(신비주의자)의 사명은 초자연적 존재나 원리 및 힘을 조작할 수 있는 초능력의 획득과 행사하고 한다. 비교주의에서는 천리안적인 투시력과 예언력 또는 정신력 등의 탐구는 강령(降靈), 영매(靈媒), 빙령(憑靈), 불마(祓魔), 점성, 손금, 연금술 및 점치는 막대에 의한 수(桴)택 탐사, 수정점(水晶

인간의 평등성과 인간 중심적 사고이다. 힌두교의 경우 해탈을 말하기는 하지만, 그 속에는 계급적 요소가 도사리고 있어서 특정계급(브라만, 크샤트리아)에 속한 인간에게는 특전이 부여된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모든 인간들이 자기들의 계급적 특권과는 전혀 상관없이 해탈의 경지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본다. 뉴에이지 운동 역시 인간의 의식 혁명을 통해 신성을 자각하는 것이기에 인간 차별을 두지 않고 박애주의의 정신을 가지고 온 인류가 진정한 신성을 자각하기를 소망한다.

신플라톤주의의 영향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영혼과 물질을 구분하는 이원론적 경향이다. 뉴에이지 운동가들은 물질을 허상이라고 보고 인간이 자기 내면의 신 의식을 일깨워 우주적 신과 합일되는 것만이 진리라고 주장한다. 뉴에이지 사상은 인간을 7층 구조로 보지만 크게 나누면 저급한 육체와 고급한 영혼으로 분류한다. 영혼은 육체(물질)의 방해로 받아서 우주적 신과의 합일을 이루지 못한다. 육체를 완전히 벗어 버리게 될 때 비로소 해탈의 경지에 이른다. 플라톤의 사상은 물질과 영혼이 대립하는 분명한 이원론적 체계이다. 뉴에이지 사상은 플라톤과는 달리 물질을 허상이라고 말하지만 진리 인식의 과정에서는 플라톤적 방법론을 채용하고 있다. 즉 물질계를 저급한 것으로 무시하여, 인간의 영혼에만 관심을 집중한다.

기독교 영지주의의 영향을 볼 수 있는 것도 원칙적으로 신 플라톤주의적 영향과 대동소이하다. 양자는 같은 사상적 뿌리를 가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뿐 아니라 뉴에이지 운동가들은 성경말씀을 특별히 많이 인용한다는 점에서 또 다른 문제가 있다. 그들은 성경을 영지주의적으로 해석하여, 기독교 전통적 의미와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예수를 메시아로 간주한다. 예수는 위대한 영적 각성자이며 인간내면의 신 의식을 일깨워 주었다는 점에서 메시아란 것이다. 예수는 소크라테스, 석가 등의 위대한 스승들과 동일한 반열에 서 있게 된다. 결국, 성경이 증거 하는 예수님의 사역의 독특성과 배타성은 사라져 버린다.

비교주의(occultism)에 대해서는 신지학 협회의 창시자 블래바트스키 여사의 신

---

占), 수비학(數秘學) 등 비술을 낳게 되었다. 특히 초능력 획득과 개발은 일정한 전통적 의식에 따라 사제(師弟)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런데 신비적 영역과 종교적 영역은 중복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초자연적 존재와 힘을 강조하는 종교는 고대와 현대를 막론하고 신비적 요소를 많이 갖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종교의 교의 체계가 정리되고 관념화가 발달함에 따라 초 자연적 관념, 의례, 관행 등은 경시되어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 동서문화 편집부, "오컬트", 한국 세계 대백과 사전 19권 (서울: 동서문화, 1995), 11307.

지학의 열쇠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신지학이란 신들이 가지는 신성한 지혜를 일컫는 말이다. 옛 성인들의 가르침은 대체로 현교적(顯敎的) 가르침과 비교적(秘敎的)가르침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대중들에게 전파된 가르침이고, 후자는 비밀스럽게 전파된 참된 가르침이다. 지혜의 종교는 어느 시대나 비교로 전수되었다. 플라톤이나 석가도 비교의 가르침을 전수 받은 자이며 일반적으로 알려진 그들의 가르침은 현교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한다. 비교적 가르침에 의하면, 현자들의 사상은 하나의 신지(神知)에서 나온, 같은 진리를 가진, 공동의 어머니의 아들에 불과하다. 이런 의미에서 신지학 사상은 세계의 모든 종교와 모든 철학을 다 포괄하고자 한다. 여기서 혼합주의적 성격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그러나 여기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 뉴에이지 사상 자체도 현교적 가르침과 비교적 가르침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우리가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소위 현교적 가르침에 국한된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구 대상은 대중적으로 전파된 뉴에이지 사상뿐이다. 그들의 비교주의적 사상은 항상 베일에 가려져 있다.<sup>53)</sup> 우리가 뉴에이지 운동의 비교적 가르침에 대해 간접적으로나마 알 수 있는 방법은 그들이 사용하는 기호나 초능력이나 자동 기술 등을 통해서이다. 일부 성급한 기독교인들은 뉴에이지의 여러 기호들이나 초능력 등에 관하여 즉각적으로 사탄적이라고 규정한다. 뉴에이지 운동가들이 가지게 되는 신비한 능력이 과연 사탄적이냐 아니냐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일단 유보적인 입장을 취한다. 자연상태의 인간이 외부로부터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서도 일상성을 초월한 능력을 가질 수 있겠는가의 여부에 따라서 뉴에이지 운동의 신비한 능력이 사탄적인가 자연인으로서도 가능한 초월적 능력인가가 결정될 것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근본 태도는 신명기 13장 1-5절에 잘 나타난다.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이 일어나 이적을 행하고 예언을 이루더라도 그것이 진리의 시금석이 될 수는 없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만이 유일한 진리의 판단기준이다. 그러므로 인간이 신비한 능력을 가질 수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는 부차적인 것이고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사느냐의 문제이다.

53) 다른 비교주의자들에 비하면 뉴에이지 운동가들은 자기 사상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경향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깊은 진리에 관한 한 비교적으로 가르침이 전수된다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뉴에이지의 혼합주의적 사고에 결정적 균열을 초래할 만한 사실을 지적하고자 한다. 블래바트스키 여사의 신지학의 열쇠에서 인류는 신지(神知)라는 공통의 기원을 가지고 있으므로 마땅히 하나가 되어야 하고 될 수도 있다고 주장하면서 '단 유대교는 제외한다'는 단서를 붙이고 있다. 논리적으로 추론해 볼 때 유대교의 제외는 기독교의 제외를 당연히 포함하는 것 같다. 인류의 하나됨을 주장하는 그들이 유대교와 기독교를 제외시키는 것은 엄청난 자기 모순이다. 사실, 사랑과 평화의 빛의 원리를 주장하면서도 뉴에이지 운동가들은 유독 기독교에 대해서만큼은 상당한 적의를 가지고 대한다. 자기 자신 외의 모든 가르침을 진리로 인정하지 않는 기독교의 배타성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뉴에이지 운동이 참으로 '하나됨'의 가치를 높이 들고 있다면 그러한 기독교까지도 포용하는 자세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기독교를 유난히 적대시하는 태도 자체를 보면 우리는 뉴에이지 운동을 의심의 눈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뉴에이지 운동이 하나의 세계관을 형성하여 인류화합과 평화와 사랑의 세계실현을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은 나쁘다고 할 수 없지만, 그들의 운동이 비 기독교적 세계화합 운동이라는 점에서 기독교인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절실히 요청된다.<sup>54)</sup>

## 2. 범신론

뉴에이지 사상은 존재하는 것은 우주 대영 밖에 없고 우주 대영의 주기적 순환 과정 속에서 객관상태를 떠난 것이 우리 현실 세계이며, 우리 인간들은 잠재된 신의식을 일깨워서 우주 대영과의 합일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사상은 힌두교의 베단파의 범아일체라는 범신론적 일원론과 동일하다. 이것은 기독교의 신관과 정면으로 부딪친다.

몇 가지로 나누어서 뉴에이지 사상의 범신론을 비판하고자 한다. 첫째, 물질의 문제이다. 뉴에이지 사상은 우주 대영이 주관상태와 객관상태의 주기적 순환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물질세계가 형성되었다고 한다. 우주 대영((Universal Spirit))은 영적 존재이므로 이 물질 세계는 분명히 우주 대영의 본질의 연장은 아니다. 그리고 세계는 하나이므로 영과 물질은 다른 기원을 가져서도 안 된다. 이 논리적 모순을 해결하

54) 엠마오 편집부, 뉴에이지, 160-163.

고자 뉴에이지 사상가들은 물질 세계는 모두 허상이라고 주장한다. 허상이란 말이 무엇인가? 원래 물질계란 없다는 의미이다. 물질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헤겔은 물질을 관념의 외화(外化)로 보았다. 즉 헤겔 같은 절대적 관념론자도 어떤 형태로든 물질의 존재성만큼은 인정한 셈이다. 가장 소박한 입장에서 보더라도 물질이 존재함을 거부할 소지가 없다. 우리는 물질은 허상이라는 주장을 논쟁 없이 거부하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다. 물질은 존재한다. 그러므로 뉴에이지 사상 체계에서 물질이란 개념은 충분히 설명되지 못한 채 모호하게 남아 있다. 결국 물질 세계의 존재성이 뉴에이지 사상을 그 뿌리에서부터 균열시키고 있는 셈이다.

둘째는 인격의 문제이다. 뉴에이지 운동가들은 무한자나 절대자라면 창조자가 될 수 없다고 한다. 신이 창조를 하려면 계획과 생각이 있어야 하는데 절대자란 그 자체로서 완전한 존재이므로, 계획과 생각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절대자는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 내의 유출을 통해서 세계를 형성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절대자가 모든 것을 포괄하는 하나의 존재라면 불변자이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절대자는 우주 삼라만상의 변화무쌍한 생성 변화의 과정을 설명할 수 없지 않을까? 이러한 문제에 대해, 그들은 사물의 생성변화가 우주 대영의 생명주기적 순환과정 때문에 일어난다고 대답한다. 다시 말하면 일종의 우주적 법칙이 있다는 전제를 가진 셈이다. 그들의 사고방식도 논리적으로 합당한 것이 아니라 근거에는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먼저 지적해 두고자 한다. 다음으로, 뉴에이지 운동가들은 절대자를 무제한 자로 규정하는데 반드시 그럴 필연성은 없다.

절대자는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밖에도 세계를 창조하고, 세계와 인격적으로 관계를 가질 수 있다. 절대자가 비인격적이라는 뉴에이지 사상가들의 주장은 자기들의 전제 내지 믿음일 뿐이다. 물론 우리 기독교인들이 절대자를 인격신으로 간주하는 것도 우리의 믿음이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계시의 말씀을 증거해 주셨기 때문에 절대자의 인격성을 확실히 믿는다.

셋째로, 인간의 역할의 문제이다. 힌두교에서는 우주 대영의 주기적 순환운동을 정적으로 파악하고, 인간 역시 수동적 의미에서 우주 대영과 합일을 이루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우주 대영과의 합일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은 조용히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뉴에이지 사상가들의 경우는 인간의 역할을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것으로

로 간주한다. 깨달음을 얻기 위하여, 인간들을 교육시키고, 가능한 한 적극적으로 여러 방법들을 동원한다. 지도자나 교육자는 인간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 단지 도움만을 줄 뿐이고, 인간 자신이 스스로 해탈의 경지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은 하지만 뉴에이지 운동의 양상들을 살펴보면 적극적이고 능동적임이 분명하다. 동양의 힌두교가 서구의 역동적인 문명과 결합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양상이 나타났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문제 제기할 것이 있다. 힌두교적 사상체계에 서구적인 역동성을 부여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나의 문제이다. 우주 대영의 주기적 순환운동 속에 인간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시도는 우주 대영의 존재 자체를 균열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이러한 부분은 또 다른 복잡하고 어려운 파생적인 문제를 낳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제기의 형태로만 남겨 놓는다.<sup>55)</sup>

### 3. 뉴에이지 윤리

세계와 사물과 인간은 본래 하나이며 본질상 우주 대영의 주기적 순환 운동만이 존재할 뿐이라는 사고 방식 속에서는 윤리적 개념을 찾아볼 수 없다. 이것은 비윤리적이라는 말이 아니라, 무 윤리적이라는 말이다. 뉴에이지 사상에는 선과 악의 개념이 없다. 구태여 말하자면, 우주 대영과의 합일 상태가 선이요, 분리 상태가 악이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윤리적인 문제에 관한 한 뉴에이지 운동가들과의 접촉점이 거의 없다. 우리는 이제 선과 악의 뿌리에 자리잡고 있는 죄의 문제에서 출발하여 뉴에이지 사상의 윤리개념을 비판하고자 한다.

첫째로, 죄의 문제이다. 기독교적 의미에서의 죄란 절대자 하나님의 인격적 의지에 반대하는 인격이다. 죄는 인격성을 갖는다. 뉴에이지 사상에서는 절대자의 인격이란 것을 인정치 않는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범신론을 논하면서 이미 비판하였다. 절대자가 인격성을 갖기 때문에 죄가 발생한다.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이 죄의 문제는 가장 본질적인 것이다. 기독교적 의미에서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인격적 의지를 거스렸기 때문에 누구나 죄인이다.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에만 인간은 본래적 상태를 회복할 수 있다. 뉴에이지 운동가들은 인간의 현실존재가 비본래적 상태인 것은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 속에 잠재된 신 의식을 각성하기 위해서는

55) Douglas R. Groothius, 뉴에이지 운동 정체 (서울: 기독교 문서선교회, 1995), 163-165.

우선 인간의 죄된 본성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들여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하나님의 은총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게 될 때(요 15, 17장) 인간은 비로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벧후 1:4)가 될 것이다.

둘째로, 악에 대한 항거의 문제이다. 뉴에이지 사상에 의하면, 선악의 개념이 없다고 하였다. 악이란 우주 대영과의 합일을 이루지 못한 부조화의 상태에 불과하다. 뉴에이지 운동가들이 아무리 적극적이라 하더라도 그런 부조화의 상태를 타파하기 힘들 것이다. 왜냐하면, 고작해야 인간의식을 고양시켜서 해탈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일만을 행할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적인 문제를 예로 들어보자. 일제의 제국주의적 만행과 불의에 항거한 1919년의 3.1운동 당시에 뉴에이지 운동가들이 조선에 있었다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뉴에이지 사상에 전심으로 충실한 사람이라면, 그러한 항거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모든 역사적 사건들은 우주 대영의 객관적 주기의 상태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한 한 부분만이 악하다고는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포괄하는 하나뿐인 존재인 우주 대영 안에는 어떠한 악도 존재할 수 없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악일 수 없다. 이러한 논리 속에서는 역사와 사회 속의 모든 불의와 부패와 거짓이 하나됨이란 미명하에 긍정되고 만다.

뉴에이지 사상가들의 말대로 물질은 허상이기 때문에 역사적 사회적 현상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라고 변명해도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모든 불의와 부패와 거짓은 역시 허상이란 가르침하에 긍정되고 만다. 우리는 인간이 죄악된 존재이므로 인간사회에는 필연적으로 악이 발생한다고 본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악한 세계와 질서에 항거함으로써 그러한 악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더욱 강화해야만 한다고 믿는다.<sup>56)</sup>

#### 4. 뉴에이지 인간론

뉴에이지 사상에 따르면 인간은 신이다. 그러나 신이 인간인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신은 인간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을 포괄하는 무한한 실재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인간이 신의 일부인 것은 아니다. 인간자신은 우주 대영과 불가분리적인 결합을 이룬 존재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기독교적 인간 이해와는 현격한 차이점을 보

56) 엠마오 편집부, 뉴에이지, 165-167.

여준다.

첫째, 기독교적 입장에서 신과 인간은 무한한 질적 차이를 가지고 있다. 성경적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은 하늘에 있고 인간은 땅위에 있다(전 5:2). 기독교의 하나님은 인격신으로서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이다.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는 본질적으로 불연속선이 가로막고 있다. 둘째, 인간은 신이라는 사고방식은 인본주의의 극단화된 양태이다. 인간이 인간자신을 위한 최고의 존재라는 막스의 유물론적 명제조차도 넘어서고 있다. 인본주의의 근본적 사고방식은 인간자율적 능력을 통해 인간의 본래적 상태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이든지 인간의 본래적 상태에 끝내 도달할 수 없을지라도 결단코 외부적인-신적인-도움을 요청함 없이 자신의 비 본래적 상태를 부동켜안고 실존해야 한다는 것이든지 양자택일적이다. 뉴에이지 사상은 전자에 속해 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인간이 죄 문제를 해결함 없이는 인간의 본래적 상태를 회복할 수 없으며 신의 은혜를 통하여 본래적 상태를 회복할 수 있으므로 비 본래적 상태에 머무를 필요도 없다고 믿는다. 모든 인본주의자들은 기독교 하나님이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신적 은혜를 겸허하게 받아들임으로써만이 자신들이 봉착한 영적이고 물질적인 난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영혼과 육체의 문제이다. 뉴에이지 운동가들은 인간을 7중 구조로 나누고 지구의 7중 구조와 대응시키며, 죽음과 환생의 과정을 통하여 인간이 상승구조로 발전해 나간다고 주장한다. 그들이 인간을 7중 구조로 나누고 있지만, 크게 보면 저급의 4부 구조와 고급의 3부 구조로 나누기 때문에 영혼과 육체로 본다고도 할 수 있다. 평이한 용어로 말하면, 인간은 육체에서 해방되어 영적인 자아로 상승해야 한다는 것이다. 육체는 영혼의 일을 방해하는 방해물이다. 인간은 육체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끊임없이 벗어나려고 해야 한다. 그것이 영적인 자아로 상승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뉴에이지 운동가들이 물질을 허상으로 규정하고 우주만물을 범신론적 일원론의 차원에서 보려고 하지만, 인간에 관한 위의 진술을 보면 이원론적 경향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여기서 우리는 뉴에이지 사상 체계의 자기 분열적 양태를 목격하는 셈이다.

아무튼 뉴에이지 사상 체계는 물질을 경시함으로써 인간의 육체적 측면을 정당하게 취급하지 못한다. 물질은 허상이 아니다. 물질은 존재한다. 인간의 육체는 인간을 이루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육체가 없는 인간은 본래적인 인간이 아니다. 기독교인

들은 인간을 영혼과 육체의 아름다운 결합체로 본다. 기독교인들은 인간의 영적 측면만을 강조하여 육체를 무시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까지도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의 육체는 선한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새 시대에 육체가 부활될 것을 믿는다.<sup>57)</sup>

#### 5. 바람직한 기독교 세계관 정립의 필요성

세계관이란 문자 그대로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을 뜻한다. 세계관은 한 사람의 인생관, 가치관 및 신앙관을 총망라하는 것이다. 브라이언 왈쉬(Brian. J. Walsh)와 리처드 미들톤(J. Richard Middleton)은 세계관을 인식의 틀(perceptual frameworks)이며 사물을 인지하는 방식이라고 정의했다. 세계관이란 용어의 이해를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자면 한국에서는 자식이 늙은 부모를 모시고 사는 것이 당연하지만, 서구 사회에서는 부모가 아무리 늙었어도 자식이 함께 모시고 살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부모를 바라보는 관점이 틀리기 때문이다. 즉 한국사람들과 서구사람들은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행동이 다른 것이다. 이처럼 세계관은 한 사람의 생활 양태를 결정짓는다.

사람은 누구나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인생의 최고 행복이요, 최고 가치라는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하여 행동한다. 인생에 대한 참된 지식을 소유하는 것이 최고가치라는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지식을 얻고자 행동한다. 온 세상이 사회주의화되는 것이 최고의 가치라는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사회주의의 실현을 위하여 행동한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의 생활양식과 행동방식의 근저에는 세계관이 깔려 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간에 누구나 세계관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 아서 홈즈(Arthur F. Homes)는 세계관을 요청하는 인간의 필요성을 사중적이라고 한다. 첫째, 사유와 삶을 통일시키기 위하여 둘째, 선한 생활을 정의하고 인생의 희망과 목적을 찾도록 하기 위하여 셋째, 사고를 인도하기 위하여 넷째, 행동을 인도하기 위하여 세계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도 이런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기독교 세계관을 가질

57) Ibid., 167-169.

수밖에 없다. 기독교 세계관이란 기독교인들이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 즉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사고하고 행동하여야 하는가에 관한 지침이다. 기독교 세계관은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동일한 것이 아니다. 포괄적인 원리적 측면에서는 동일하겠지만, 개개의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의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감에 있어서 기계적으로 똑같이 세계를 바라보고 사고하고 행동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예를 들면, 어떤 이는 기도 생활에 치중하고, 어떤 이는 전도를 통한 개인의 구령사업에 치중하고 또 어떤 이는 사회정의 실현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 확장에 치중할 수 있다. 각각의 신앙의 모습이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는 각각의 기독교 세계관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천편일률적인 기독교 세계관을 고집할 필요도 없고, 고집할 수도 없다. 그러나 모든 기독교인들이 공통적으로 소유하고 있어야 할 세계관적인 요소가 있다. 창조-타락-구속이란 틀이다. 이 틀이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기독교 세계관의 기본 구조이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왜 그들의 세계관을 명확히 해야 하는가? 우선 그리스도인은 자신들의 존재뿐만이 아니라 이 세계와 그 과정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하고 바르게 반응해야 하는 일로도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를 인지적인 측면에서도 잘 드러내도록 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기독교 세계관을 진술해 보려는 노력도 우리가 사는 이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알고 드러내려는 노력의 일환인 것이다. 이것이 기독교 세계관의 이론적 동기(theoretical motive)라고 할 수 있다. 둘째로, 그리스도인들이 신들의 세계관을 명확히 해 보려고 하는 이유는 이 세계가가 바로 그들이 관련하여 살고 활동해야 하는 세계이기 때문이다. 즉 세계안에서의 실천과 활동이라는 실천적 동기(practical motive)가 작용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세계관을 외현화하려고 하는 것이다. 기독교 세계관이 이런 실천적 성격에서 나오는 또 하나의 이유로 이 문제 투성이의 어려운 시대에 현대 정신의 혼란 상황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을 위해 그리고 이 혼란에 바진 동료 인간들을 위해 참으로 정합적이고 바른 세계관을 제시해야 할 필요성과 사명을 그 어느 때보다 더 심각하게 느껴야 한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다.<sup>58)</sup>

모든 기독교인들이 올바른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해 있다면, 뉴에이지 운동이 어

58) CUE, 2001년 10월호, 101-102.

편 모습으로 한국사회에 침투해 들어오더라도 능히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뉴에이지 운동이 아무리 다양한 형태로 다가와도 그 기본적인 세계관만큼은 어쩔 수 없이 드러나게 마련이다. 일단 어떠한 문화적 양상이 뉴에이지 운동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나면, 아무래도 쉽게 대처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sup>59)</sup>

## 제 2 절 뉴에이지 세계관의 악영향

### 1. 뉴에이지 세계관의 침투실태

뉴에이지 운동이란 단어가 우리들에게 알려진 것은 불과 얼마 전이며 그 뜻을 아는 사람도 별로 없다. 그러나 사실은 뉴에이지 운동의 경향들이 우리나라에 등장한 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이다.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뉴에이지 운동의 물결은 이미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닌 것이다. 지금은 기독교이건 아니건 알게 모르게 뉴에이지 운동의 사상과 활동에 영향을 받고 있음은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가 뉴에이지 운동에 대한 기독교적 대응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국내에 나타난 뉴에이지 운동의 경향들을 살펴보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이번에는 종교, 서적, 음악, 영상매체 등에 나타난 뉴에이지 운동의 경향들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sup>60)</sup>

#### 가. 종교 단체

사실 국내에 있는 기존 종교단체들 중에 뉴에이지 운동의 영향으로 출발된 것은 없다. 이런 점에서 여기서에 다루고자 하는 것은 기존 종교단체가 뉴에이지 운동이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맥락을 같이 하는 사상적, 활동적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해하고자 한다.

##### (1) 무교

무교(巫敎)는 모든 종교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며 우리나라도 역시 민간 전승을 중심으로 형성된 가장 광범위하고 오랜 역사를 지닌 민간신앙이다. 무당, 성황신, 산신, 점술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무교의 기본 사상은 정령주의(精靈主義: Animism)

59) 엠마오 편집부, 뉴에이지, 173-175.

60) Ibid., 85-86.



로 만물에는 모두 신령한 기운이 서려 있다는 사상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인간이 어떤 것에든(주로 자신과 가까운) 신앙을 가지고 섬기면 그곳에 서린 신령이 자신들을 도운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사상은 물질 문명과는 달리 신비한 영의 실재를 인정하는 뉴에이지 운동의 사상과 일치한다. 또한 우리가 주위에서 볼 수 있는 강신무(降神巫: 신이 내려 된 무당)들의 초능력-작두 위에서 맨발로 춤을 추고, 죽은 자의 혼백을 부르는 것 등-은 무한한 영의 세계를 인정하는 뉴에이지 운동의 견해와 일치하고 있다. 특히 이런 무교의 신비한 현상에 익숙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뉴에이지 운동의 동양적 정신사상에 쉽게 동화되도록 만든다.<sup>61)</sup>

### (2) 도교

도교는 중국의 장자(莊子)에 의해 체계화된 것으로 우주를 음양오행에 의해 설명하고 있다. 즉 우주는 음과 양의 두 기운이 오행(火, 水, 木, 金, 土)의 원리에 의해 상생(相生)과 상극(相剋)의 방법으로 생성되고 소멸되는 순환 속에 놓여 있다고 설명한다. 도교사상을 나타내는 단적인 말은 만물의 본체와 그 현상이 순환하는 모습을 보는 가운데 “나는 만물이 연이어서 생겨났다가는 어느덧 다시금 만물의 모체로 돌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설명이다. 이것은 우주 만물이 일체의 사물과 인간 속에 있다는 원리로 뉴에이지 운동의 사상과 일치하고 있다. 또 음양의 원리는 힌두교의 남성원리(시바)와 여성원리(샤kti)를 통해 우주가 발전해 가는 원리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sup>62)</sup>

### (3) 단학(丹學)

단학이 우리나라에 선 보인지는 얼마 되지 않았다. 그러나 단학의 신비로운 정신 세계는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었다. 단학은 한마디로 세계를 기(氣)로 파악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일종의 도교적 전통에 뿌리를 둔 것으로 인간 또한 우주의 기(氣)로 이루어져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인간에게 일어나는 모든 질병들은 기를 통해 고칠 수 있고 기를 수련하면 인간의 정신세계가 발전하여 좀더 높은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고 한다. 단학은 뉴에이지 운동에서 이야기하는 새로운 치료법과 유사한 양상을 띠고 있

61) Ibid., 86-87.

62) Ibid., 87.

다. 즉 인간 물질 세계는 인간의 의식(정신세계)에 의해 조절할 수 있고 따라서 질병도 인간의 의식을 개조함으로 고칠 수 있다는 주장과 같은 것이다. 실제로 요즘 각종 단(丹) 수련은 건강요법과 질병 치료에 인도의 요가와 같은 것으로 현대인들에게 많이 활용되고 있다.<sup>63)</sup>

#### 나. 서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다른 생물들과 구별되는 점이 있다면 그것은 인식하고 사고하며 창조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인간의 특성이 만들어낸 부산물을 우리는 문화라 부르며 그 문화의 영역은 실로 다양하고 광범위하다. 그러나 인간에게 문자가 없었다면 오늘날과 같은 문화, 문명은 기대할 수 없다. 인간이 문화를 이룩하고 발전시키고 향유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해준 것은 바로 문자이다. 인류가 문자를 기록하기 시작하면서 책이 탄생되었고 인쇄술이 발달되었으며 오늘날과 같은 놀라운 출판 문화가 형성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책은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유원하며 그 영향력 또한 가히 절대적이다. 책은 인류의 역사에 지대한 업적을 남겼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긍정적인 측면의 뒷면에는 악서가 끼친 폐해가 만만찮다. 수많은 인생을 파멸시켰고 역사를 소용돌이 속에 몰아 넣었다.

기독교 역사에 국한시켜 보아도 책은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책은 많은 사람들을 회심시키기도 했지만 기독교에 대해 회의케 함으로써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문서를 통하여 복음을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반 기독교적인 서적으로 인하여 복음의 문이 막히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지난 80년대 초부터 기독교의 교리나 사상과는 정면대치되는 새로운 장르의 책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최근에 들어서는 상당한 독자를 확보하고 불황에 허덕이는 출판계에 이변을 낳으며 실로 독보적인 위상을 정립해가고 있다. 이들 서적은 크게 몇 개의 부류로 분류할 수 있다. 명상서적과 영지주의 서적, 성공철학, 능력개발, 반 기독교적 철학, 심리학, 교육학, 종교학, 뉴에이지 과학, 역학, 운명 풍수학 등 열거할 수 없는 다양한 영역에서 성경의 진리와 대치되는 무엇이든지 수용하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게 한다.<sup>64)</sup> 결국 이러한 책들은 뉴에이지 사상과 신조를 소개하고 전

63) Ibid., 86-88.

64) 김희성, "교육과 서적에 침투한 뉴에이지", 두란노 목회자료 큰 백과 24권, 922-923.

파하는데 가장 영향력 있는 매체로서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출판된 뉴에이지 운동 서적 중에서 가장 먼저 사람들의 관심을 끈 것은 바로 크리슈나무르티(Jiddu Krishnamurt)의 자기로부터의 혁명이란 책이었다. 1895년 인도에서 당시 신지학 협회 회원이었던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그는 14세때 그의 천재성을 발견하고 차세대 신지학의 지도자로 삼기 위해 세계의 교사 수업에 그를 참여시킨 당시 신지학협회 회장 애니 배산트에게서 신지학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그 후 세계의 사상계에 큰 영향을 미친 그는 인류 최후의 스승, 그리스도나 부처의 재림이라고 까지 일컬어졌다. 그의 대표적인 저서 자기로부터의 혁명은 한 마디로 파국의 위기를 맞은 인류가 변혁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내면으로부터의 근본적인 혁명을 일으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 책에서 그는 인간이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기존의 잘못된 가치, 종교, 구조 속에 갇혀 있고 자신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공포, 억압 때문이기에 우리는 눈을 열고 모든 곳에 있고 모든 것을 초월하는 진리를 통해 신으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대표적인 뉴에이지 운동의 인신사상(人神思想)을 대변하고 있으며, 기존 문화에 대한 부정을 모토로 한 반문화 운동적 사고를 잘 나타내고 있다. 크리슈나무르티 이후 또 다시 서점가에 화제가 된 명상가는 라즈니쉬였다. 그 또한 인도의 자이나교(Jains)의 가정에서 자라났으며 명상을 통해 진리를 깨달았다고 한다. 그의 저서 죽음의 예술에서 “삶은 살아가는 것이다. 삶은 고정된 사물이 아닐 하나의 과정이다. 도그마나 철학이나 신학체계 안에서 삶의 체계를 찾으려 한다면 너는 삶과 삶의 의미를 동시에 잃어버릴 것이다. 삶은 바로 너의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다. 죽음 역시 삶과 동일한 과정의 일부이다. 삶과 죽음은 에너지, 같은 현상의 양극인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라즈니쉬는 이 책을 통해 인간의 불멸성을 말하고자 한다. 즉 인간이 기존의 구조를 깨고 자신을 깨닫게 되면 삶과 죽음을 뛰어넘어 우주와 하나가 되는 영원불멸성을 지니게 된다- 즉 뉴에이지 운동에서 말하는 우주대영(Universal Spirit)과 하나됨으로 영원한 신이 되는 것-고 가르치고 있다. 또 다른 그의 저서 잠에서 깨어나라는 우리가 절에 가면 흔히 벽에 그려진 탕화에서 볼 수 있는 십우도(十牛圖: 한 동자가 진리를 상징하는 잃어버린 소를 찾는 그림)를 통해 진리에 대한 인간의 해탈을 설명한다. 이것은 뉴에이지 운동이 불교의 선(禪)과 같은 사상과 동일한 맥락에서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 크리슈나무르티나 라즈니쉬가 약간 깊은 명상을 요구하는 책들을 저술한 반면 명상 서적이 사람들에게 크게 어필한 것은 약간은 해학적인 내용을 담은 서적들을 통해서였다. 신문이나 광고를 통해 널리 알려지고 또 각종 출판사에서 이윤 때문에 앞다투어 출판하여 시비가 일어나고 마침내는 같은 제목의 전혀 엉뚱한 책까지 출판된 배꼽이란 책이 대표적이다.<sup>65)</sup>

이 외에도 국내에 출판된 많은 명상 서적 혹은 뉴에이지 운동의 서적들이 있다. 꼬마성자, 성자들의 마음, 마하무드라의 노래, 빠빠라기 등이 있고 뉴에이지 운동 계열의 책들 중에는 예수의 잃어버린 세월, 인도에서의 예수의 생애, 성서밖의 예수와 같이 기독교와 뉴에이지 운동과의 접근을 시도하는 책들이 있고, 잃어버린 무대륙과 같이 뉴에이지 운동에서 중요하게 취급하는 고대의 지혜를 간직하였던 고대문명의 역사성을 밝히는 서적, 아직 과학으로 풀 수 없는 신비한 유적이거나 초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 인간의 위대한 영적 능력과 현상계와는 다른 신비한 세계가 있음을 말하고자 하는 세상에서 가장 신비로운 이야기 등이 있다.<sup>66)</sup>

#### 다. 음악

음악은 뉴에이지 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물론 국내에도 뉴에이지 운동의 음악들이 점차 대두하기 시작한다. 국내에서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팝(Pop) 또는 락(Rock)계열의 음악이다. 흔히 기존 뉴에이지 운동 비판서적에서 다루는 비틀즈(Beatles)나 키스(Kiss), 오지 오스본(Ozzy Osborne), 블랙 사바스(Black Sabbath) 등의 음악은 우리나라에도 이미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이런 음악들도 뉴에이지 운동 음악으로 분류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다. 일단 국내에 알려진 대표적 음악을 살펴보자. 조지 윈스턴(George Winston)을 들 수 있다. 디셈버(December)란 피아노곡으로 유명한 조지 윈스턴은 그의 음악세계에 대한 변론이나 명상적인 음악적 특성을 볼 때 분명히 뉴에이지 운동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물론 이러한 음악은 인간의 잠재된 영적 세계를 일깨우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 외에도 뉴에이지 음악임을 자처하는 크리스천 릴홀드의 '허공의 자리', '레인런치' 등은 달콤하고 편안한 멜로디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

65) 엠마오 편집부, 뉴에이지, 89-91.

66) Ibid., 92.

들고 있다.

이러한 사탄주의 음악은 서구사회가 가지는 샤머니즘적(주술적) 전통이 반문화 운동과 결합된 독특한 형태로 봐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국내에 소개된 음악에서 사탄주의 음악과 뉴에이지의 음악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뉴에이지 음악은 일반 가요뿐 아니라 의료계에서도 새로운 심리 치료법의 하나로 채택하고 있는 상황이다.<sup>67)</sup> 특별히 음악에 관한 부분은 제 4장의 뉴에이지와 음악이란 제목으로 더 상세하게 다룰 것이다.

#### 라. 미술

뉴에이지 운동의 사상적 배경이 되는 힌두교 및 불교의 미술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인도의 미술은 한마디로 요가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 것은 그림을 통해서 수수께끼와 같은 침묵의 세계, 우주의 신비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그림의 세계는 추상예술의 형태를 띠게 되고 눈에 보이는 가까운 외관의 세계가 아니고 그것을 초월한 곳에 있는 세계를 표현하려고 한다. 물론 이러한 세계는 힌두교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브라만'과 '아트만'이 합일되는 해탈의 세계인 것이다. 이런 미술의 특징은 여러 가지 도형을 차례로 펼쳐서 색채나 색조에도 배색의 변화를 보이며, 그래픽 도안이나 힘에 넘치는 상징을 포함하고 있고, 그곳에 또 개개의 의미와 보편적인 의미가 깃들어 있다. 그것은 물리적인 힘의 집합체를 표현하는 것이고 전체가 조화로서 표현되어 있다. 화가는 참된 자연의 힘 속에서 영육의 일치를 구하고 삼차원의 제약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런 미술의 최고봉은 만다라 미술이며 그것은 우주의 신비를 하나의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다. 요즘 뉴에이지 운동에서 사용하는 기호들은 이런 영향을 받아 여러 가지 도형들을 사용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힌두교 미술은 현대의 미술과 일맥상통하고 있다. 현대 미술은 각종 도형이나 그래픽을 사용한 추상 예술을 형식으로 삼고 있으며 그것을 통해 인간의 정신세계와 우주의 원리를 표현하고자 하기 때문이다.<sup>68)</sup>

국내에서 현재 나타나는 경향들 중에 뉴에이지 운동적인 경향들은 현대 미술과

67) Ibid., 97-98.

68) 권옥경, "뉴에이지 운동과 그 영향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신학대학원, 1994), 64-65.

행위 예술의 두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첫째, 현대예술의 도형을 통해 인간의 내면 세계를 표현하려는 경향은 뉴에이지 운동의 사상적 기반이 된 힌두교의 만다라 미술과 맥을 같이하고 있고, 인간의 신적 압제로부터의 해방을 추구하는 행위 예술은 또 다른 면에서 뉴에이지 운동계열 사상을 전하고 있다.<sup>69)</sup>

## 2. 다른 세계관과의 관계

뉴에이지 세계관은 매우 다양한 이론들을 혼합하고 그 이론들을 절충한 것이다. 또한 주요한 세계관으로부터 차용한 것도 있다. 뉴에이지의 기묘한 분파와 다소 이상한 영역은 동양의 범신론과 고대물활론(animism)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뉴에이지가 자연주의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 오히려 순수한 동양신비주의에서 왔다고 하는 것보다는 뉴에이지 지지 세력을 얻을 수 있는 더 좋은 기회를 제공해 줄지도 모른다.

자연주의처럼 뉴에이지는 초월적인 신의 존재를 거부한다. 우리 개개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주의 주도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달혀진 세계만이 존재한다. 믿을 수 없는 “개인적인” 지능과 힘을 소유한 존재만이 이 우주에 “살고 있으며”, “인간 의식은 두뇌로 한정되지 않는다”는 사실만이 진실로 존재한다.<sup>70)</sup> 그러나 이러한 존재들과 심지어 우주에 대한 의식은 유신론이 요구하는 초월적인 것이 결코 아님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인간에 관한 몇몇 언급들은 자연주의의 영향력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 존 릴리(John Lilly)는 두뇌를 ‘살아 있는 컴퓨터’라 부르며 사람을 ‘아름다운 기계장치’라고 칭한다. 이것은 뉴에이지 광(狂)인 레잉(R. D. Laing)을 당황케 했다.<sup>71)</sup> 프리조프 카프라, 게리 주카브, 아더 패스틀러, 로렌스 르산, 윌리엄 얼윈 톰슨, 켈리 맥클레인 등은 정신 현상과 20세기 물리학과와의 관계에 중점을 두었다.<sup>72)</sup> 심지어 티모시 레리(Timothy Leary)의 마약에 의한 신비주의(mysticism)는 자연주의적 기초를 소유

69) 엠마오 편집부, 뉴에이지, 102.

70) Thompson, Passage about Earth, 124.

71) Lilly, The Center of the Cyclone, 4, 17, 29 대조해서 109도 보라, Jonathan Cott, "Knots, Tangles, Fangles, & Whirligigs," Rolling Stone, 30 August 1973, 66.

72) Fritjof Capra, "The Tao of Physics", The Turning Point의 3장도 함께 보라. Gary Zukav, The Dancing Wu Li Masters (1980), MacLaine, Dancing in the Light, 323-324, 351-353.

하고 있다. “하나님은 DNA 암호”라고 레리는 말한다.<sup>73)</sup>

또한 인간의 진화론적 진보에 대한 희망은 자연주의에서 온 것이다. 우리는 새로운 인간이 되려는 것을 깊이 생각한다. 진화는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유신론과 자연주의는 같이, 그러나 동양의 범신론적 일원론과는 달리 뉴에이지는 개개인에게 가치를 부여한다. 유신론은 각 개인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에 근거를 둔다. 유신론적 뿌리를 반영하는 자연주의는 모든 인간은 공통된 인간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똑같다는 개념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만약 한 사람이 가치가 있다면 모두가 가치 있는 인간이라는 것이다.

동양의 범신론적 일원론과 같이 뉴에이지 사상은 시간과 공간 및 도덕성을 초월한 신비적 경험에 중점을 둔다. 그런 의미에서 뉴에이지 사상을 동양 신비주의의 서구적 해석이라고 정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속에서 동양의 형이상학적 강조점, 즉 범아일여(梵我一如)라는 주장이 인식론에 대한 강조점, 다시 말해서 실체의 통일성을 보고 경험하며 인식하는 것이 곧 삶의 모든 것이라는 주장으로 대체된 것이다. 더욱이 동양에서처럼 뉴에이지 사상은 실체를 인도하는 이성(웨일은 이것을 ‘직관적 사고’(straight thinking)라 부른다)을 거부한다. 예를 들어서, ‘경직된 생각’(stoned thinking)처럼 이 세상은 정말로 비이성적이고 이성을 초월해 있어서 새로운 형태의 이해를 요구하는 것이다.<sup>74)</sup>

그러나 뉴에이지 사상은 물활론(物活論)과도 관련이 있다. 물활론이란 소위 원시 종교나 이방종교가 제시하는 생명에 대한 일반적 견해이다. 그런 물활론적 세계관이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하다. 이 이방 종교는 사상, 예배의식, 기도문, 상징체계, 숭배목적 등이 상호 작용하기 때문에 매우 복잡하다. 그러나 이방 종교들은 공통으로 확실한 개념을 갖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이방 종교들이 갖고 있는 개념들 중에서 다음과 같은 것은 새로운 의식(意識)에 반영된다. 첫째, 이 자연적 우주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영적 존재들이 살고 있다. 이들

73) Timothy Leary, *The Politics of Ecstasy*, 200.

74) Weil, *The Natural Mind*의 6-7장. 대부분의 뉴에이지 주창자들은 그들의 개념이 동양의 개념들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알고 있다. 그들은 이것 때문에 그들이 동서양 최고의 것들을 받아들이고 있으며 정도(正道)를 걷고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Weil, *The Natural Mind*, 175-177와 Cavander, *Voyage of the Psychonauts*, 92, 160, 171-177와 Grof, *Beyond the Bounds of Psychoanalysis*, 87-88를 보라.

은 가끔씩 계급체계를 형성하기도 하는데 가장 위에 있는 존재가 하늘의 하나님이다 (여기의 하나님은 유신론에서 말하는 것과는 달리 막연한 존재로 인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분임). 둘째, 고로 이 우주는 개인의 영역을 가지고 있으나 개인의 창조자인 무한한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셋째, 이러한 영적 존재들은 사악한 존재들로부터 추한 존재 또한 우스운 존재, 도움이 되는 존재 등 다양하다. 넷째, 사람들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악한 영들과 화해해야 하며, 선물, 예물, 숭배, 의식, 주문 등을 통해 선한 영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만 한다. 다섯째, 주술가와 마법사, 샤아먼교의 도사들은 길고 열정적인 훈련을 통해 영들의 세계를 어느 정도 조절하는 것을 배워 왔으며 보통 사람들은 질병과 가뭄 등의 악령들을 쫓아내는 그들의 힘을 많이 보아 왔다. 여섯째, 궁극적으로 모든 삶에는 통일성이 있다. 즉, 우주는 영과 물질의 연속체이다. “동물은 인간의 조상들이며 사람들은 동물로 바뀌질 수 있고 나무들과 돌들도 영혼을 지니고 있다.”<sup>75)</sup>

비록 새 의식이 종종 물활론에 자연주의적인 왜곡을 가져오기도 하고 심리학을 통해 물활론을 비신화화(非神話化)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 새 의식은 물활론의 모든 면을 반영하고 있다. 테오도르 로작은 ‘옛 영지주의’와 윌리엄 블레이크(William Blake)의 환상으로서의 복귀를 요구한 것과 카스타네다가 마법사가 되기 위해서 긴 도제 기간을 가지는 것은 새 시대(뉴에이지)에 이들이 뉴에이지가 갖는 물활론적 뿌리를 잘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것이다.<sup>76)</sup>

### 3. 성경과 예수의 권위에 대한 도전

뉴에이지들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성경과 예수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한다.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성경과 예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은 기독교라는 종교 전체에 대한 도전이라 할 수 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한 뉴에이지 운동가들의 논증을 보면 “예수는 단지 도구로 쓰인 인간을 지칭하는 이름일 뿐이고 여러 가지 정의를 가진 그리스도는 신”<sup>77)</sup>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힐라인 코린(Helene

75) Eugene Nida & William A. Smally, *Introducing Animism* (New York: Friendship Press, 1959), 50. 이 짧은 팜플렛에는 현대 이교도적인 물활론에 대한 것이 상당히 많이 기록되어 있다.

76) Rozak, *Where the Wasteland Ends*, xv.

77) 참조. Anni Besant, *Esoteric Christianity* (Wheaton, Ill.: Theosophical Publishing House,



Corinne)은 “이 지구가 산출할 수 있는 가장 흠이 없고 완전한 스승 예수의 몸은 이제 주 그리스도의 3년 간 지상 사역을 위한 거처가 되었”<sup>78)</sup>다고 이야기한다. 즉, 인간 예수는 세례 받을 때부터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 3년 동안 우주적 그리스도를 몸 안에 담고 있었던 것이다. 조오지 트리블리안(George Trevelyan)은 “비밀주의적 기독교는 예수를 그리스도의 우주적 존재를 위한 인간 매개체로 보고 있”<sup>79)</sup>다고 말한다.

뉴에이지 운동가들은 인간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었는지에 대해 모두가 일치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가 그리스도가 된 사실에는 의견을 일치하고 있다. 데이비드 스팅글러(David Spangler)는 인간 예수는 단지 우주적 그리스도에게 그 ‘파장’을 맞춘 것뿐이고 그리스도는 인간 예수가 세례를 받을 때에 그에게 내려온 것이라고 이야기한다.<sup>80)</sup> 에드거 케이시(Edgar Cayce)는 예수가 나쁜 업들을 다 벗어 버린 후에 그의 30번째 환생에서 그리스도가 되었다고 믿고 있고<sup>81)</sup> 레비 다울링은 예수가 이집트에서 7단계의 입문식(오컬트적 의식)을 거친 후에 7단계 째에 그리스도가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sup>82)</sup> 그리고 엘리자벳 클레어 프라펫(Elizabeth Clare Prophet)은 예수가 어릴 때 인도로 가서 그가 후에 그리스도가 될 수 있도록 영향을 준 배움의 과정을 힌두교 교도사로부터 사사했다고 주장한다.<sup>83)</sup> 다수의 뉴에이지 운동가들은 예수가 어릴 적(소위 알려지지 않은 세월들이라고 불리우는 때)에 힌두교도사로부터 배우기 위해 동쪽으로 갔다고 말하기도 한다. 예수가 어릴 적에 동쪽으로 갔었다는 의견은 쉘리 맥클레인의 Out of Limb를 통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언급되지 않은 그 18년 동안 예수가 인도를 여행했다고 생각한다. 그리스도와 같이 느껴지는 한 사나이에 대한 숭한 전설들과 일화들이 있다. 사람들은 그가 유명한 유가 수

1970), 90-91.

78) Heline Corinne, New Age Bible Interpretation (Santa Monica: New Age Bible & Philosophy Center, 1961), 251.

79) George Trevelyan, Operation Redemption, 37.

80) David Spangler, Reflections on the Christ, 8; Towards a Planetary Vision (Forres, Scotland: Findhorn, 1977), 30.

81) Philip J. Swihart, Reincarnation, Edgar Cayce, and the Bible (Downers Grove, Ill.: Inter Varsity Press, 1978), 18.

82) Dowling, 87.

83) Elizabeth Clare Prophet, The Lost Years of Jesus, (Livingston: Summit University Press, 1978), 218-46.

행가(Yogi)가 되었고 그의 육체와 그 주위의 물질적 세계에 대한 완전한 지배력을 통달했다고 했다.<sup>84)</sup>

그러나 그에 대한 논제들에 대항해서 반박할 수 있는 증거들은 얼마든지 있다. 예수와 그리스도는 별개의 인물들 혹은 실체들이 아니다. 예수와 그리스도는 단 하나의 동일 인물이다. 예수는 어른이 되어서 그리스도로 변화된 것이 아니라 맨 처음부터 오직 유일한 그리스도였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예수의 탄생을 알렸을 때 그 천사는 예수를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눅 2:11). 성령이 충만한 시므온은 하나님께서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고 그에게 하신 약속의 성취함으로 아기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아보았다(눅 2:26).<sup>85)</sup>

위에서 살핀 대로 뉴에이지들은 기독교와 관계된 어떤 부분들이 아니라 성경과 예수에 대해서 직접 거론하면서 직격탄을 쏘고 있는 것이다.

84) Shirley MacLaine, *Out on a Limb* (New York: Bantam Books, 1983), 233-234; 그녀의 Channeler인 Kevin Ryerson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85) Ron Rhodes, *뉴에이지 운동* (서울: 도서출판 은성, 1996), 90-91.

## 제 4 장

### 뉴에이지 운동이 사회 제반 분야에 미치는 악영향

그러면 이제 뉴에이지 운동이 사회 제반 분야에 미치는 악영향을 살펴보도록 하자. 여기서는 사회 제반 분야 가운데, 종교, 교육, 심리, 건강 및 사탄숭배와 관련한 비술적 분야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기술하고자 한다.

#### 제 1 절 종교와 교육분야에 미치는 영향

##### 1. 종교 분야

오늘날 세계의 종교상황을 두고 흔히 종교학적인 이해와 지식보다 상황 자체가 앞질러 가는 추세라고 정의한다. 이는 비단 거대 종교 영역에 대한 연구영역에서뿐 아니라 최근 들어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중인 종교민속학이라는 분야에도 역시 해당하는 말이다. 종교민속학의 연구대상은 주로 문자를 가지지 못한 민족과 종족들의 종교이며, 흔히 이들은 원시종교라고 불린다. 물론 이런 종교들 역시 단지 일개 종족에서만 비롯되었다고 간주하기에는 부적당할 정도로 높은 수준의 종교성을 가진다. 따라서 원시라는 표현이 종교간의 차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종교연구에 따른 기술적인 정의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종교사의 연구분야가 이처럼 광범위해지고 종교에 대한 이해의 폭도 그만큼 넓어졌다는 사실은 또한 종교사적인 의미를 찾아내기 위한 질문과 대답이 그만큼 어려워졌음을 뜻한다. 그와 더불어 종교현상학적인 이해들, 이를테면 믿음의 모양이라든가 신화, 주술, 윤리 그리고 제의에 이르기까지 더 깊은 성찰을 요구한다. 종교현상학이라고 일컬어지는 연구분야의 선구자는 아마 네덜란드의 종교학자인 게라르두스 반 델레에우(Gerardus van der Leeuw)일 것이다.<sup>86)</sup> 그는 이집트의 현존하는 자료들이 문

자가 없던 민족들의 종교권에서 나온 것임을 밝혀냈다.<sup>87)</sup>

종교다원주의라는 용어가 이미 학문적인 연구분야로 자리를 잡았다는 사실을 전제하더라도 현대의 종교상황을 올바르게 규정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현대적인 상황에서 겪는 학문적인 어려움은 특히 유럽에 유입된 낯선 종교들을 적절히 규정하기 까다롭다는 점이다. 이들 종교들은 주로 선교적인 활동을 통해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 활동력에 있어 유럽의 그리스도교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 또한 이들은 발생지 국가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그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특징도 가진다. 이런 일들은 유럽의 그리스도교적인 시각에서 보자면 아시아 종교들의 역도전이라 할 수 있겠다. 신대륙 발견이라는 시기로부터 시작된 그리스도의 세계전도는 이와 같은 역도전을 통해 낯설고 거대한 다른 종교들과 충돌하게 되었고 입장을 바꾸어 본다면 아시아 종교들이 이제는 그리스도교 세계로의 전도를 통해 세계화를 꾀한다고도 말할 수 있다.<sup>88)</sup>

그리스도교에 대한 가장 강력한 도전자는 단연 이슬람교이다. 이슬람은 일찍이 아프리카의 사하라 지역을 차지했고 끊임없이 서구세계를 넘보아 왔다. 예를 들어 북미에서는 이슬람 정통주의를 표방하는 검은 무슬림(Black Muslims)이 세력을 떨치고 있으며, 이슬람교 중에서도 이단이라 할 수 있는 파키스탄에서 시작한 아마디야(Ahmadiyya)파가 유럽으로 진출해 있다. 이들은 유럽(특히 독일)으로 건너온 이슬람 노동자들 사회에 모스크(Moschee, 이슬람교회)를 지어 코란을 가르치고, 유럽식 학교 교육을 받는 등 전혀 새로운 상황에 놓인 2세들에게도 이슬람식 종교교육을 시키려 노력한다.<sup>89)</sup>

영적 전통이 풍부하기로는 역시 인도가 으뜸이다. 이 나라 특유의 명상적인 종교 세계를 감안한다면 수없이 많은 종교들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현상이 그리 놀라운 일은 못할 것이다. 단시간에 위세를 떨치다가 곧 주춤해진 인도 신흥종교들의 대표적인 예는 1970년에 12세 된 구루 마하라즈 지(Guru Maharaji Ji)라는 소년이 일으킨 신성한 빛의 선교(Divine Light Mission)라는 종교이다. 또 다른 이런 유의 종교로 바그반교(Bhagwan)가 있는데 두 종교 모두 창설 당시에는 대단한 영향을 끼쳤지만 이제는

86) 그의 대표작으로 *Phänomenologie der Religion* (Tübingen, 1933)이 있다.

87) Quinter Lantzoofsky, *종교사 입문*, 박태식 역 (왜관: 분도출판사, 1997), 131.

88) Ibid., 132.

89) Ibid., 133.

사양길로 접어들었고 바그반교는 인도를 떠나 미국 어디에선가 겨우 명맥을 유지한다고 한다.

뱅갈의 바라문인 오로빈도(Aurobindo, 1872-1950)가 제창한 통합요가(Integral Yoga)는 유럽에서 오히려 널리 알려져 있는데 그의 가르침을 보면 인도의 고전 바가 바드 기타와 더불어 칸트, 괴테, 헤겔, 니체, 베토벤 그리고 바그너 등을 숭배할 인물로 내세운다. 통합요가에서는 인간이 우주와 연결되어 나가는 과정을 몇 단계로 나누었고, 이 단계들을 거치는 데는 고유한 기술이 필요하다고 한다. 따라서 통합요가의 수행과정만 착실히 따르면 인간성의 상승발전이 가능해진다고 한다.<sup>90)</sup>

1958년 1월 1일에 마드라스에서 힌두교 수도승인 마하리쉬 마해쉬(Maharishi Mahesh)요기가 창설한 초월적 명상이라는 신흥종교는 인도보다 유럽과 북미에서 많은 추종자를 얻었다. 이들은 나름대로의 독특한 명상수행 방법을 강조하는데 이는 한 생각을 의식의 표층으로부터 미세한 한계까지 추적해 가는 방법이다. 또한 이를 통해 다른 종교들과의 조화도 이루어 낼 수 있다고 한다.<sup>91)</sup>

미국에서 출발한 몰몬교가 그리스도교의 한 종파인지 아니면 독립적인 종교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답을 구하지 못한 형편이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종교의 교회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교회가 다른 그리스도 교파들과는 확연히 구별된다는 점이다. 몰몬교의 창시자인 제임스 스미스(James Smith, 1805-1844)는 1830년 4월 6일에 교회를 세워 스스로 새롭고 독특한 예언자로 자처했다. 그가 몰몬 신도들에게 신성한 책으로 제시한 몰몬경은 많은 양의 성서 전승들을 담고는 있지만 전체적인 개념은 완전히 다르다. 몰몬경에서는 종교적인 중심지를 몰몬교가 처음생긴 미국이라고 가르치고 장차 재림 예수가 나타나면 솔트레이크 시(Salt Lake City)에 있는 몰몬 신전에서 다가올 심판을 내릴 것이라는 신앙을 보여준다. 이런 식의 역사관이 몰몬교의 중요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sup>92)</sup>

현대세계에 나타난 신흥종교들을 두루 훑어보면 뚜렷한 특징을 보여주는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은 비유럽권의 신흥종교들일수록 그리스도교에 대한 도전과 도발을 담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현대신흥종교들은 부분적으로나 전체적으로 가히 젊

90) Ibid., 127-138.

91) Ibid., 138.

92) Quinter Lantzoofsky, 종교사 입문, 139-140.

은총의 종교라 규정지을 수 있다. 이처럼 젊은층에 파고 들어가 공동체를 구축해 나가는 현상은 사실 종교학적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부분이다. 그러나 구태여 설명을 붙이자면 종교가 시작될 때부터 노인층이 없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노인층에서 자신들이 세운 종교에 대한 주도권을 젊은층으로부터 더 이상 지킬 수 없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게다가 신흥종교에서는 노인들이 이미 인생의 모든 단계들을 통과하여 이를테면 관조에 들어간 상태에서 종교전승들을 파악하기 때문에 제외시키는 경향을 가지기도 한다.<sup>93)</sup>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부분의 종교가 가지는 공통점은 바로 뉴에이지 사상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쉽게 설명하자면 종교가 말하는 것은 그들의 의지로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하겠다는 것이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데 있어서 누구의 도움도 필요치 않는 것이다.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하겠다는 의지가 종교 안에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종교가 영적, 사회적, 정치적인 것과 사회학, 신학, 과학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과 같이 뉴에이지 사상도 실제로는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인간과 동물, 그리고 식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은 하나(All is one)라는 것이며, 또한 모든 것은 신(All is God)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상보다 더 위험한 것은 모든 인간은 신(Everyone is God)이라는 사상이다. 그들은 사람을 신과 같은 존재로 가르친다는 것이 문제이다.

## 2. 교육 분야

뉴에이지 운동가들은 깨우침과 화합의 새 시대를 성공적으로 시작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교육 기관들을 뚫고 들어가야 한다고 깨달았다. 폴 비트츠(Paul Vitz)는 그의 저서 Censorship: Evidence of Bias in Our Children's Textbook을 통해 어린이들의 교과서에서 어떻게 기독교와 그 가치관이 없어지게 되었나를 기록하고 있다.<sup>94)</sup> 어린이들의 교과서에 기독교적 사상이 결여되어 있는 동안 많은 책들은 불교, 힌두교, 동양명상, 마술, 인디언의 영성과 요가에 대해 가르치고 있다. 뉴에이지는 이제 우리의

93) Ibid., 140-141.

94) Paul Vitz, Censorship: Evidence of Bias in Our Children's Textbook (Ann Arbor, Mich: Servant, 1986), 18-19, 33-36, 84.

교육에도 깊이 침투해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는 대목이다.

#### 가. 지구촌 교육

아브라함 링컨은 “한 세대의 교육철학은 다음세대의 통치철학이 될 것”<sup>95)</sup>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최고의 가치는 교육이라고 말하기에 이론(異論)을 제기할 만한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오늘날 대학교육에 침투되어 있는 뉴에이지 사조에 있어서 가장 널리 퍼져 있고 우려되는 현상들 중 하나는 지구촌 교육(Global Education)이다. 지구촌 교육은 국제적인 문제를 다루는 연구에 쓰이는 프로그램보다 인문학과 사회학을 가르치는데 훨씬 더 많이 사용되는 하나의 방법이다. 이것은 상대주의라는 뉴에이지 이데올로기라든가 종교적인 혼합주의 그리고 단일 세계주의(one-worldism)를 옹호하거나 아니면 상정한다. 지구촌 교육에서 사용된 일부 자료들은 다른 자료들이 은밀하게 강조하는 것과는 달리 드러내놓고 뉴에이지 운동을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워싱턴 대학은 교육자들은 위해 필립 반더 빌트(Phillip Vander Velde)가 조성한 교육재단(Foundations of Education)을 통해서 강좌를 열었다. 이 교육재단은 교재로 뉴에이지 운동의 지도자 프리조프 카프라(Fritjof Capra)의 전환점(The Turning Point)과 대학 교수인 반더 빌트가 쓴 지구촌 명령(The Global Mandate)을 사용하며 그 강좌는 세계적이고 기본적인 학설들을 진전시킨다.

프리조프 카프라는 비인격적인 일원론적 관점 및 진화론적 관점을 지지함으로 기독교 신론을 배제했다. 그는 말하기를 일신론(monotheism)은 우리를 파멸 시킬테지만 일원론(monoism)은 우리를 구할 것이라고 한다. 반더 빌트도 마찬가지로 만물에 새겨진 우주적 혹은 보편적인 정신을 환호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입장들은 국가주권에 대한 희생을 무릎쓴 지구촌의 정치적 통일성에 대한 전망들을 일으켰다. 국제연합이나 그 밖의 유사한 단체는 각 국가로 집중된 지혜에 의해 실재하는 부와 권력을 재분배함으로써 심리되어진 지구촌 국가의 사안들을 다루는 데 있어 합법적인 승계자

95) Douglas Groothuis, Confronting the New Age (Downers Grove, Ill.: Inter Varsity Press, 1988), 129.

로 비쳐졌다.

반더 빌트는 학생들에게 세계적인 교육이 목적에 대한 수단들처럼 미래의 교사들로 하여금 새로운 세계질서를 고취하도록 자신의 강의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반더 빌트 교수의 세계적인 시각에 속한 일부 특수한 경우들을 얼핏 보았다면 일반적으로 세계적인 교육의 일부 두드러진 모습들을 고찰하여야 할 것이다.<sup>96)</sup>

#### (1) 아동을 정치화하려는 욕망

지구촌 교육을 가리키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하나의 특수한 가치가 실린 세계관을 가르치려는 의도로 말해왔다. 그들의 목적은 초연하게 지리학적, 역사적, 정치적, 철학적 연구를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입장으로의 전환에 있다. 지구촌 교육자들로 명성을 받고 있는 존슨(Jacquelyn Johnson)과 베네가르(John Benegar)는 사회교육(Social Education)적 측면에서 대부분의 교육자들은 아동들이 가능한 한 빨리 세계적인 시각들을 접할 수 있어야 하며 민족 중심주의와 판에 박힌 사고가 놀랄 만큼 증가하는 경향이 있을 때에는 사춘기로 접어들기 전에 확실히 세계적인 시각으로 이끌어져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미국 국립교육협회(NEA)와 사회책임을 위한 교육자들의 지원을 받고 있는 평화교육(peace education)이라 불리는 한 교과과정이 미국의 몇몇 주에서는 시행되어 왔다. 그 교육은 세계적인 교육과 더불어 많은 기본적 학설들을 공유하여서 세계적인 교육의 한 형태로 불릴 수 있다. 한 교육과정은 심지어 학생들에게 정치적인 행동주의를 향하게끔 고취하기 위하여 하와이 대학의 론 아먼드슨(Ron Amundson)가 쓴 백 번 째 원숭이 현상이란 뉴에이지 운동의 신화를 사용한다. 그것은 사람들의 집단적인 의식을 허물어뜨림으로써 의식을 과학으로 설명될 수 없도록 변경시킬 수 있으며 핵전쟁을 중단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sup>97)</sup>

#### (2) 평화적 국제주의

지구촌 교육은 갈등에 대한 유일한 접근으로서 군비축소를 강조하는 자유주의적 국제주의나 평화주의적 국제주의를 가르친다. 힘을 통해 이루어지는 평화로의 시각은

96) 박영호, 뉴에이지 운동연구 (재판;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4), 117-119.

97) Ibid., 119-120.



납세자들의 많은 지지를 받긴 하지만 그럴듯한 것으로서 거의 설명되지는 않는다. 더욱 대표적인 시각은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평화를 취하는 시각인데 일방적인 군축을 포함하고 있다. 뉴에이지 운동측 사람들은 이러한 견해를 취할 뿐 아니라 뉴에이지 운동 문학에 있어서 상당할 정도의 공통 주제가 되고 있다.<sup>98)</sup>

### (3) 윤리적 상대주의

많은 세계적인 교육자들은 가치 명료화를 지지하고 다른 문화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판단하지 않는(nonjudgemental)접근을 곧잘 옹호하는데 이 접근은 절대적이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이런 세계주의자들은 판별하는 일보다는 상대주의를 강조한다. 따라서 이 관점에 따르면, 기독교의 윤리라든가, 서구신화만이 나쁜 녀석으로 비취지고 있다. 교재 또한 서구 신비주의자인 알란 왓츠(Alan Watts)가 쓴 이것이 그것이다(This is it)란 책을 지지하는 식으로 인용하고 있다. 왓츠는 히브리-기독교문화의 만성적으로 거북한 의식이 선과 악을 결합시키기보다 갈등관계에 놓고 있다고 하는 반면에 동양의 정신에 있어서 선과 악의 상대주의에 대해서는 격찬을 한다.<sup>99)</sup>

### (4) 도덕적인 등가

‘모든 나라들은 도덕적으로 평등하다’라는 생각은 윤리적 상대주의로부터 나오고 있다. 지구촌 교육자들은 리인홀드 니이버(Reinhold Niebuhr)가 한 말을 귀담아 들으려 한다.

현대문명의 모순들을 현대의 독재적 국가가 행하는 야만성과 동등하게 놓는 일은 순전히 도덕적인 왜곡일 따름이다. 우리가 이 왜곡에서 뭔가를 구별지을 수 없다면 어떠한 가치를 지니는 역사적 특성은 없는 것이다. 인류사에서 문명의 운명이 결정된 모든 특성들은 바로 그러한 상대적인 특징을 지녀왔던 것이다. 그러한 윤리적인 특성들은 상대주의라는 의미와는 다른 의미에서 상대적이다. 왜냐하면 어떤 나라도 완전무결하거나 완전히 악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외국문화에 대한 정당한 평가는 실재하는 악들을 눈감아주

98) Ibid., 120.

99) Ibid., 120-121.

는 일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100)

‘도덕적인 등가’란 개념은 종교적인 등가를 암시하기도 한다. 그레그 커닝햄(Greg Cunningham)이 인용한 어떤 본문은 학생들에게 중국인의 행복한 이야기가 담긴 책 아이 칭(I Ching)을 읽도록 하였다. 이미 언급하였듯이 필립 빈더 빌트는 합성된 종교를 옹호한다. 또 미국의 유대-기독교적 전통은 심령론 보다 열등하다고 암시한다.101)

지구촌 교육에 해당하는 다른 걱정되는 모습들은 가족에 관계된 일들을 엿보는 교육방식들, 널리 퍼진 반 기독교적, 반 서구적 편견, 의미상의 겉보기를 통하여 교과과정 속에 주입된 포착하기 어려운 세계주의자들의 개념의 미묘함 등으로 언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시애틀 내 공립학교 제도에 있는 정관은 교사들에게 ‘지구촌 교육’에 대한 현재의 논쟁에 비추어 볼 때 현대의 구원용어’는 ‘다(多) 문화적인 교과과정 및 국제적인 교과과정의 개발’이라고 교사들에게 주의를 환기시켰다. 이런 것들은 지구촌 세계관의 씨앗들을 뿌리는 온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102)

#### 나. 뉴에이지의 교육내용과 방법

##### (1) 가치정화

뉴에이지 교육자들은 도덕적 절대들에 대한 자신들의 고의적 반항을 숨기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에서 완곡어법으로 ‘가치정화’(Values Clarification)라는 술어를 사용한다. ‘가치 정화’는 학교교육에 퍼져 온 교육평가의 한 방법이다. 다원론적 시대에서 옳고 그른 것을 가르쳐 주는 바는 한 시도로 생각되었던 것이 그 자체가 하나의 윤리적인 체계, 그것도 보잘 것 없는 체계로 되어 버렸다.

루이스 랫스(Louis E. Raths)와 시드니 사이몬(Sidney Simon)이 주도한 ‘가치 정화’의 목적은 학생들로 하여금 외부의 가르침으로부터 자유로이 자신들의 평가를 개발하도록 유도하는데 있다. 학생들은 어떠한 도덕적인 권위로부터 독립하여서도, 그리고 모든 합리적인 가치를 세우는데 적합하다고 여겨진다. 자아는 본래적으로 선한 것

100) Ibid., 121-123.

101) Ibid.

102) Ibid., 123-125.

으로 본다. 그 결과 상대주의를 주입시키게 되고 만다.

‘가치정화’란 용어 그 자체가 교육적이다. 윤리나 도덕보다 가치란 말은 우리가 어떤 옷을 입을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선택하는 어떤 것이 옳고 그르다는 가정을 수반하고 있다. 그러한 가정의 목적은 도덕적인 절대치라는 객관적인 체계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선택을 분명하게 하기 위한 가치의 주관적인 경향을 만드는 데 있다. 가치의 주관적 경향은, 다시 말해서 나의 경우는 옳고 그름이다. 우리의 ‘가치의식’을 명료화하는 일이 참된 미덕 대신에 탐구로, 옳음 대신에 감정으로, 덕 대신에 선호로 대체된 것이다. 가치정화, 즉 자치명료화란 방법으로 인해 금해진 유일한 것은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그리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도덕률을 인식하고 존경하는 신앙을 부정하는 것이다. 미성숙한 주관적인 충동들이 ‘정화’(clarified)될 수 있음으로 해서 객관적인 진리들을 모호하게 한다.

가치의 ‘정화’는 도덕적 가치들을 평가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절대적 표준이 있음을 부인함으로써 기독교의 도덕을 폐기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다. 만일 객관적 측정이 없다면 분명히 ‘가치’라는 말 그 자체가 무의미하게 된다. 인격적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나온 즉 성경에서 가르치는 기독교의 도덕적 절대들의 부정 중에 ‘가치정화’는 학생에게 ‘내적 안내’를 구하여 자신의 내부를 살펴보도록 격려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학생의 상황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가’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먼저 그는 ‘자신에 대해 진실해야’하며, 타인들의 견해에 대한 압박이나 사회의 금기들 또는 종교적 표준들에 굴복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바는 의심을 하지 않는 학생이 뉴에이지 가치들을 받아들이는 조건반사를 일으키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들에 있어 오늘날의 부모들은 학교 교육 과정에서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영국의 루이스(C. S. Lewis)는 그의 흥미진진한 책인 인간의 폐기(The Abolition of Man)에서 어린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도록 되어 있는 자기 시대의 국민학교 교과서에 대해 언급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이것은 개개인의 선택과 감정 외의 어떤 도덕가치들에 대한 믿음도 몰래 훼손시키려는 계획적인 시도였다. 또한 이것은 의심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교과서에 제시된 ‘가치들’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하도록 설계되었다.

## (2) 상상의 유도

뉴에이지 교육은 학생들을 '영적 안내자들'과 접촉하게 한다. 그러나 갈리안(Galyean)은 교사들에게 공립학교에서 그 영적 안내자들을 '상상의' 안내자 또는 '현명한 사람들'로 칭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주의를 준다. 갈리안과 다른 뉴에이지 관계자들이 가르치고 있고 오늘날 유치원에서부터 시작하여 공립학교들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전형적인 방법은 서서히 나타난다.

갈리안과 또 다른 뉴에이지 교육자들은 학생들이 자기 정신의 실체를 창조할 수 있다고 확신함으로써 상상의 남용은 큰 역할을 담당한다고 말한다. 갈리안은 우리가 각각 하나님이므로 우리 안에 모든 지식과 지혜를 갖고 있다고 진정으로 믿고 있다. 그리고 종교적인 함축들을 감추기 위해 '직관' 또는 '우주적 의식'이라는 완곡어법들을 사용한다. 상상의 인도는 '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녀의 힌두교 표현은 대개 종교로 인식되지 않는다.<sup>103)</sup>

## 다. 몬테소리 교육이론

세계적으로 유명한 몬테소리 학교들의 창립자인 마리아 몬테소리(Maria Montessori, 1870~1952)는 뉴에이지 교육자들의 선구자였다. 그녀는 이탈리아의 카라벨레에서 출생했다. 이탈리아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로마대학 정신과 임상진료소의 조의사로 임명되었다. 그녀는 특히 정신지체아들에 대한 특수 교육에 관심이 많았다. 그녀는 정신과 의사인 이타르(J. Itard)와 세강(Seguin)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 교육 이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잠재능력 개발

그녀는 외부로부터의 지혜의 주입을 거부하고 학생들이 '내부의 교사'(inward teacher)에 의해 자유롭게 인도되기를 원했다. 그녀는 이 방법이 '인류의 미래를 관리하고 형성할 수 있는 새 사람'을 낳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몬테소리는 유아를 끊임없이 자신을 창조해 가는 무한한 잠재능력을 지닌 자유로운 존재로서, 유아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잠재력을 전개해 나간다고 보았다. 즉 인간이 외부 환경의 자극에 의해

103) Ibid., 130-131.

스스로 탐색하고 발전해 가는 능동적인 존재이며, 특히 유아는 선천적으로 특유한 정신적 본성을 지니고 태어나며 성인에 의해 배우기보다는 유아 자신이 스스로 환경과 접하면서 경험을 통해 배운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유아는 성인의 축소형이 아니며 그렇게 취급되어서도 안되며 분리된 개별적인 생명을 지닌 존재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의 교육 철학은 독일 왈도르프 학교(Waldorf Schools)에서 구현시킨 비술자인 인간 존재 내부에 실제로 존재하는 바를 일깨우는 기술이다. 즉 어린이의 잠재력을 깨우면 훌륭한 인격형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루돌프 슈타이너는 불교, 힌두교와 기독교에서 혼합된 교육원리를 끌어 모아 뉴에이지 사상을 주입시키고 있다. 이러한 몬테소리 교육이념이 우리나라의 유치원교육뿐만 아니라 교회교육에서도 활용되고 있으니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뉴에이지 운동은 우리 사회 전체에 본거지를 갖고 있는데 특히 초·중·고등학교에서 가장 전략상 중요한 역사를 하고 있다. 뉴에이지 운동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들이 신들이며 그들이 따를 필요가 있는 유일한 권위는 그들의 고등자아의 내적인 빛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뉴에이지 교육자들은 의도적으로 세계 각처의 초, 중, 고등학교들에서 사고와 도덕과 세계관과 개인의 정체성의 변화를 일으키고자 시도하고 있다. 그들이 자신들의 신념인 종교적 본질을 감추는 것은 정직하지 못한 것이다.

## (2) 새로운 교육

몬테소리는 각 어린이는 독특한 존재로 보며 어린이는 고유한 소질을 따라 성장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누가 또는 무엇이 그 소질을 부여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녀는 자기 저서 몬테소리 교육방법(Montessori Method)에서 새로운 교육에 대해 말한다.

어른은 어린아이들을 간섭할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깊은 내적 요구에 따라 행동하도록 내버려두어야 한다. 어린이가 필요로 하는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인간성 즉 어린이의 정신적 욕구이다. 어린이 내면에 잠재해 있는 인간성은 성인들의 시선에서 벗어나 있다. 다만 성인들 눈에 보이는 것은 어린이가 성인들과의 투쟁 중 자기방어를 위해서 할 수 없이 나타내는 증상들뿐이다. 즉 울음, 고함, 짓궂음, 수줍음, 불순종, 거짓말, 이기적 행위 및 파괴적 행동들이다.

몬테소리의 새로운 교육은 교사들이 어린이의 성장방법, 각 성장단계 그리고 가장 좋은 성장방법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찰을 통한 과학적인 분석자료들을 이용할 것을 주장한다.

몬테소리의 아동관은 민감기(sensitive periods)에는 어린이가 창조적인 본능이 있고 주위환경을 통해서 정신세계를 구성해 가는 잠재력이 있다고 본다. 흡수정신(Absorbent mind)은 어린이가 내부에 잠재해 있는 흡수하는 정신능력을 통하여 환경을 받아들이며 스스로 경험하며 배운다는 것이다. 그리고 어린이의 미발달된 정신구조를 개발하기 위해 특별히 민감기와 흡수정신의 내적 도움을 바탕으로 자연적인 법칙에 따라 정신 내적 발달양상(Pattern of Psychic development)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몬테소리의 새로운 교육은 교육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어린이의 욕구와 선호도가 교육내용으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린이의 요구가 주제를 결정한다. 어린이에게 억지로 강요할 수 있을 만큼 가치 있거나 고상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이러한 교육의 목표는 어린이의 개인적 성장과 자아완성이며 교육 중심은 개인이며 교육과정은 타고난 자질과 개성의 개발이며 지식의 개념은 개인의 성장을 돕는 경험들과 활동들에 둔다.

몬테소리의 새로운 교육은 어린이가 자연스럽게 그들 자신을 위한 최상의 것을 선택할 수 있으며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압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따뜻한 세상을 강조한다. 교사는 학생들이 자신을 발견하며 사회적으로 그들 위에 부과된 자아실현의 장애물들을 제거하도록 돕는다. 그리고 학생들의 선택에 따라 자기 결정적인 세계관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개인주의적인 경향은 자신에게 좋게 느껴지고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해도 좋다는 윤리에 있어서 성경의 가르침과 정면으로 대치된다. 몬테소리의 교육원리는 훈련의 가치를 상실하고 있다. 그러한 교육원리는 무 목적적으로 흐르기 쉽다. 또 학생들의 욕구와 자아발견에 대한 강조는 학생들을 쾌락주의로 타락하게 하기 쉽다.

이러한 교육은 학습자 자신의 경험에 입각한 사고를 중시하며 성경과 전통적인 교리는 중요하지 않다. 또 인간지각의 조건부적 성격에 너무 착념한 나머지 절대적인 것들에 대해서 매우 회의적이다. 학생의 내면이 선하다고 보고 진실된 자아를 감추고

있는 겉표면을 벗겨내는 일을 추구하며 내부로부터의 잠재력의 변화를 추구한다.<sup>104)</sup>

### (3) 성경적 교육

몬테소리의 교육이론은 성경의 성화에 관한 근본적 성격 또는 그리스도인의 성숙에 관한 능동적이며 수동적인 면을 잘못 다루고 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롬 12:2). 성경은 인간을 위대하면서도 비참한 존재로 본다. 성경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으며 동시에 죄인이다.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위한 위대한 희생을 할 수 있으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기독교 교육은 인간의 존엄과 타락, 존엄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의 담지자로 본다. 기독교 아동교육의 과정은 영적 진화의 과정이 아니라 영적 출생을 통하여 학생을 인도하는 과정이다. 몬테소리가 주장하는 잠재력 개발을 통한 교육만으로는 한 국가나 교회를 갱신시킬 수 없다. 교육자체로 한계를 갖고 있다. 인간의 죄성은 아무리 좋은 교육프로그램도 학생을 쉽게 좌절시킬 수 있다.

성경적 기독교 교육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삶의 변화는 인간의 삶 속에 역사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자신을 개방할 때 일어난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기독교 교사들은 단지 학생들의 직접적인 필요 또는 이익을 충족시켜주는 것보다 훨씬 포괄적인 기독교 세계관과 인생관을 발전시키도록 가르쳐야 한다.

기독교 교육은 학생이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목적의식과 방향을 제공하며 학생의 영적 성장과 성숙을 촉진하는 일을 하나님과 인간의 공통의 일로 보며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중생 하게 하시는 은혜가 영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는 단지 훈련과 의로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자신을 내어 맡긴 자들에게 유용함을 믿는다.<sup>105)</sup>

104) Ibid., 136-138.

105) 박영호, 뉴에이지 운동 연구, 138-140.

## 제 2 절 심리학과 건강 분야에 미치는 영향

최근 타임지(Time)와 CNN의 공동조사에 따르면 ‘일반의학을 통해 차도가 없을 경우 대체 의학의 도움을 구하겠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62퍼센트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반대는 29퍼센트에 불과한 것으로 보도되었다.<sup>106)</sup> 한해 270억 달러의 대규모 판매시장으로 변모한 뉴에이지 의학 분야는 서구 의학의 상업주의와 비인간화라는 허점을 이용하여 동양의 신비주의가 혼합된 다른 영적 근원과의 접촉을 유도하고 있다. 물론 대체의학이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랜 역사적 뿌리를 가지고 있고, 그 가운데 어떤 것은 현대의학 분야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지만 상당수는 그 치료요법의 배경에 도교의 음양사상, 점성술, 요가의 카크라스(chakras: 인간의 신체 가운데 영적인 에너지를 보관하는 7개의 기관) 등이 관련되어 있어서 실행자로 하여금 동양의 신비주의에 빠질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뉴에이지 의학의 또 다른 뿌리로는 안톤 메스메르, 피니 애스 퀴비, 메리 베이커 에디로 연결되는 금세기 초의 신사고(New Thought) 운동과 크리스천 사이언스를 들 수 있는데, 이들로 말미암아 강조된 ‘육체는 언제나 그 자체의 치료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과 ‘정신의 힘으로 육체의 질병을 치료한다’는 원리는 오늘날 전인적 치료(holistic healing)의 영역을 통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sup>107)</sup> 여기서는 뉴에이지가 심리학과 건강 분야에 미치는 영향 가운데 인간 잠재력 운동, 적극적 사고 방식 및 명상과 관련한 분야를 살펴보고자 한다.

### 1. 뉴에이지와 인간 잠재력 운동

데이비드 걸손(David Gershon)과 게일 스트라우(Gail Straub)은 “힘을 부여받는 일은 사람들에게 정신의 위력을 통해 그들 자신의 실재를 창조할 수 있도록 하는 요소”이라고 말한다.<sup>108)</sup> 이들은 또한 자기 긍정과 사상(자기가 창조하려는 것을 마음속으로 그리는 일)을 효과적으로 사용해서, 이 힘을 부여받는 일을 성취할 수 있다고 말

106) Time, 4 November 1991, 75.

107) 손종태, 두란노 목회 자료 큰 백과 24권, 950.

108) David Gershona and Gail Straub, Empowerment: The Art of Creating Your Life as You Want It (New York: Dell, 1989).



한다. 인본주의 심리학의 사상적 짝들에서 오늘날 뉴에이지의 기본 구성요소인 인간 잠재력 운동이라고 칭해지는 것을 형성하는 보다 발전된 시각들이 자라났다. 근심과 불안의 시대에 나타난 인간 잠재력 운동은 1970년대에 이르러 앨빈토플러(Alvin Toffler)가 “정신분석의 잡동사니, 동양종교, 성적실험, 연극놀이 그리고 옛 신앙부흥 운동”<sup>109)</sup>으로 묘사한 수많은 치유법들을 만들어냈다.

인간 잠재 능력 개발 운동은 1970년대에 그 절정을 맞이했다.<sup>110)</sup> 그 후부터 뉴에이지 인간 잠재능력 세미나의 도움을 받는 회사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1989년 Wall Street Journal는 “점점 더 많은 숫자의 회사들이 그 지배인급의 직원들을 ‘뉴에이지 세미나’에 참석시키고 있다. 그 세미나들은 모두 ‘의식증가’와 ‘변화된 사람’으로 (비종교적인) 개조를 약속하고 있다”고 쓴 기사를 실고 있다.<sup>111)</sup>

의사교류분석 [Transactional analysis, ‘나도 좋고 너도 좋다’(I’m OK, You’re OK)]라는 낮은 강도의 통속적 심리학으로부터 칼 로저스에 의해 시작된 가지각색의 조우단체들에까지 이르는 이 운동은 인간의 우수성과 잠재력을 강조한다. 캘리포니아 빅서(Big Sur)에 있는 에살린 연구소(The Esalen Institute)는 삼십년 이상 동안 인간 잠재력의 온상으로 존재했다. 미국 뉴에이지 운동의 개척자들인 마이클 머피와 조지 레오나드(Michael Murphy and George Leonard)는 모두 에살린에서 유명해졌다. 에살린은 스와미 묵타난타와 그밖에 성자, 스와미(인도에서의 종교가나 학자에 대한 존칭), 요기(요가 수도자), 구루(힌두교의 도사)들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구색을 갖춘 자들을 후원해 왔다. 제프리 클라인(Jeffrey Klein)은 에살린을 인간잠재력 운동의 하바드 대학이라고 칭하며 에살린이 사실상 1960년대의 모든 선구자적 심리학 방법들을 수출하는데 공로를 세웠다고 말한다.<sup>112)</sup> 최근에 에살린의 사업요람은 ‘당신의 발견들이 외적인 정당성을 인정받을 필요 없이 당신의 진리가 되는’ 경험을 약속한다.

이 자율과 인간 잠재력이라는 동일한 풍조가 집단감수성 훈련(EST) 운동과 그

109) Alvin Toffler, *The Third Wave* (New York: Bantam, 1981), 366.

110) 인간 잠재 능력 개발 운동에 대한 자료로는 Werner Erhard and Associates, *The Forum* (1986), George Leonard, *The Transformation-A Guide to the Inevitable Changes in Humankind* (New York: Delacorte Press, 1972) 그리고 Michael Ray Rochelle Myers, *Creativity in Business* (Garden City, New York: Doubleday, 1986) 등이 있다.

111) Peter Drucker, *Wall Street Journal*, 9 February 1989; *SCP Journal*, 9:1, 8에 인용되었음.

112) Jeffrey Klein, “Esalen Slides off the Cliff,” *Mother Jones*, December 1979, 26.

운동에서 파생된 단체들을 탄생시켰다. 집단 감수성 훈련, 생명의 원천(life spring), 공개 토론회(Forum)와 그밖의 단기연구집회들은 만유일체(The one for all)를 과거의 신념들이 부서지고 자아의 탁월성이 선포되는 집약적 집회들 속으로 주입시킨다. 프로이드 이론, 행동수정 기법들, 동양철학 그리고 인본주의 심리학의 요소들을 대량판매, 대량 복제 규모로 함께 혼합하여 집단감수성 훈련은 수련생들을 핵심적 범신론으로 철저하게 훈련한다. 그들은 우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완전히 지배하는 우리자신의 우주의 신들이라고 말한다.<sup>113)</sup>

## 2. 뉴에이지와 적극적 사고방식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운동의 시작은 기독교회로부터 출발하였다. 1952년 10월 뉴욕의 목회자 노만 빈센트 필(Norman Vincent Peale)은 적극적 사고의 능력(The Power of Positive Thinking)을 출판하였는데 이 책은 이듬해 뉴욕 타임지가 집계한 최장기 베스트 셀러의 기록을 세우면서 30여 개국의 언어로 번역되는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곧 필은 집필과 신문의 칼럼과 라디오 방송과 공개강연 등을 통해 수백만 성도의 목회자로 명성을 떨치게 되었다. 필의 뒤를 이어 세계 최초의 드라이브 인(Drive in)교회를 세운 로버트 슈러(Robert Schuller)는 필의 실제적인 서술에서 더 발전하여 자기 존중의 신학에 대해 썼으며 가능성 사고의 신학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사역이 하나의 신 개혁 시대를 도래시킬 것이라고 대담하게 선포했으며 이것은 루터와 칼빈의 종교개혁만큼이나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될 것이라고 암시했다.<sup>114)</sup>

물론 노만 필과 로버트 슈러에 의해 주장된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자기 연민과 패배의식에 사로잡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사고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의미를 왜곡시켰으며, 인간의 근원적인 타락과 죄 문제에 대해 그 심각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오늘날 뉴에이지 운동의 한 분야로 확산되고 있는 인간 잠재력 개발운동(Human Potential Movement)은 적극적인 사고방식과 상당한 공감대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경영분야에서는 뉴에이지 비즈니스 테크닉의 기본 토대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sup>115)</sup>

113) Douglas R. Groothuis, 뉴에이지 운동 정체, 86-87.

114) Gary Colins, 마음탐구, 허영자 역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1988), 48-50.

뉴에이지 사상은 적극적인 사고라는 정신에 대해 공격한다. 어떤 운동선수들은 이런 요법들을 채택하여 그들의 성공을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다. 기도응답을 보고자 하는 갈망과 그릇된 모조품들이 사회 속에 널리 침투한 것으로 인해 교회도 그 위험에 대해 안전한 것이 아니다. 명상을 이용한 방법들-이런 방법들을 통해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을 비우라고 설득 받는다-은 악마적인 힘들의 통로가 되어 해를 끼칠 수 있다. 영상화에 관련된 그런 정신요법뿐만 아니라 꿈 해석을 뉴에이지 운동이 강조하는 것으로 주님 자신이 꿈과 환상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바에 대한 기대가 왜곡되고 혼동될 수 있다. 교회는 특히 치유의 영역에서, 또한 성경이 개인에게 보다 의미있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 성경을 영상화시키는 영역에서 이런 강제된 영상화 기법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했다.<sup>115)</sup>

긍정적인 자세가 인생의 어려운 시기에 스스로를 위로하고 세워 나가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다. 그래서 긍정적인 정신상태의 중심에 자신을 올려놓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뉴에이지식의 자기최면에 도취하게 만들고 생각과 감정과 판단을 흥미하게 만드는 식의 적극적인 사고방식은 여러 가지 위험도 많이 도사리고 있다. 교회 안에서 적극적 사고방식은 사실상 생각보다 심각하다. 이는 교회 안에서 이미 자리를 잡은 지 오래된 것 중에 하나이다.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은 이러한 사고에 기초를 두고 가르치고 있고 결코 희생을 가르치지 않는다. 그리고 실패를 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더더욱 말하지 않는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오직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만 가르치게 된다. 오늘날 적극적 사고방식은 그들을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교회를 변질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적극적 사고방식의 위험성과 문제는 바로 이와 같은 자기최면에 취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 개개인의 자유의지를 망각하게끔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115) 손종태, 두란노 목회 자료 큰 백과 24권, 946.

116) 권옥경, "뉴에이지 운동과 그 경향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신학대 대학원, 1994), 82-83.

### 3. 뉴에이지와 명상, 기, 참선

#### 가. 명상

명상이란 말은 오래 전부터 있어 왔지만 대중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건 뉴에이지들이 아닌가 싶다. 라즈니쉬와 크리슈나무르티, 바바하리다스, 앨런와츠 등의 뉴에이지 지도자들은 특히 명상을 강조했다.

미국에서 찍은 'Gods of the New Age'라는 필름을 보면 뉴에이지들의 흥분된 예배장면 속에서도 '스톱'하며 명상으로 유도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그들은 삶에서 중요한 것은 흔히 말하는 역사나 이데올로기, 종교나 제도 등 외부세계가 아니라 개개인의 마음이라고 역설한다. 외부세계는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못하므로 명상을 통해 내적 혁명을 이룩하고 나아가 세계까지 변화시킬 수 있다는 초월적 세계관을 그들은 가지고 있다.

라에리안 운동의 명상과 함께 시중에 유포되기 시작한 것이 바로 라즈니쉬 명상 음악이다. 국내에 라즈니쉬 제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 늘어가는데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안에 무슨 엄청난 진리가 있는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과학이나 물질문명에 염증을 느낀 서구인들은 일, 이차 대전을 겪는 동안 자기들의 정신적 허무감을 메꾸어 줄 그 무엇이 필요했는데 이때부터 자연스럽게 라즈니쉬를 중심한 힌두교 지도자들의 영향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sup>117)</sup> 데보라 로즈만(Deborah Rozeman)의 Meditating with Children은 캘리포니아의 한 학군에서 이미 교재로 사용하고 있다. 그녀는 권장하기를 “명상을 하면서 내면의 근원으로 들어가라. 그 근원 안에서 우리는 다른 모든 사람들의 빛, 지식, 사랑, 그리고 힘과 하나가 된다. 그 일치의 경험과 함께 ‘옴’이라는 주문을 교실 전체에 차도록 조용히 읊으라”고 한다.<sup>118)</sup> 그리고 명상에는 집중법이 있는데 이 집중법은 지도하면서 행해지는 상상과 심호흡 등의 완화 운동을 포함하고 있다. 집중법은 전혀 해가 되지 않는 방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동양 명상법 중의 하나이다.<sup>119)</sup> 갤리언은 명상의 중점은 “때때로 더 높은 자아, 신, 만유적 지혜 또는 영혼, 양심이라고 불리는 우리 내면의 지혜, 사랑, 지식의 근

117) 신상연, 대중문화 최후의 유혹 (서울: 낮은올타리, 1999), 156.

118) Deborah Roseman, Meditating with Children, (Boulder Creek: University of the Trees Press, 1975), 42.

119) Jack Canfield and Paula Klimek, "Education in the New Age", New Age (February 1978), 36.

원을 찾을 수 있는 능력과, 그 근원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높여 준다”고 말한다.<sup>120)</sup>

잠재의식 테크닉을 사용하고 있는 뉴에이지 명상음악, 얼핏 듣기에 마음의 안정을 주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아야 한다. 크리스천은 막연한 명상이 아니라 성서의 말씀을 중심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성령충만을 기도하는 것이다.<sup>121)</sup>

#### 나. 기

우리 사회에서 이미 입증되었듯이 기라는 개념은 아주 매력적인 것으로서 그 적용의 폭이 넓은 것이 사실이며 나름대로 많은 문제에 해답을 주고 있다. 단순히 이론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사람들의 높은 관심을 끌고 있다. 동양적 수련법인 기 운동이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이유는 현재 국내에서만도 약 2백만이 넘는 사람들에게 현대인의 건강을 해치는 주 원인인 스트레스를 제거하며 심리안정과 건강증진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 운동에 대한 과학적인 이 유도 운동의 확산에 한 몫을 하고 있다.

우주에너지(Universal Life Energy)라는 의미도 뉴에이지들에게는 언제나 신(神)과 동일한 개념을 갖는다. 이 개념은 힌두교의 ‘요가’ 사상인 “인간은 숨쉴 때 공기로부터 흐르는 우주에너지(프라나-Prana)를 얻는다”와 일치하는데 이 요가는 힌두교의 신(神) 브라만과의 결합을 목적으로 한다. 요가와 병행하는 ‘명상(Meditation)’은 사람의 몸의 중심에 위치한 곳에 우주에너지 ‘프라나’를 모으게 하는 일종의 귀신과의 접신술(接神術)이다.

‘우주에너지’는 고대 중국의 신비적 종교인 ‘도교(道敎)’의 ‘기’ 사상과도 일치한다. 도교에서의 ‘기’는 우주의 궁극적 실재이며, 우주의 모든 것이 기로 되어 있으며, 기를 떠나서는 어떤 존재도 실재할 수 없다는 힌두교의 범신론적 사상과 유사하다. 기의 핵심인 ‘단전(丹田)호흡’은 우주의 기를 사람의 안으로 끌어당겨 사람의 노화나 생명을 연장시킴으로 신(神)이 되는 것이라며 불로불사(不老不死)를 위하여 천문(天文)이

120) Beverly Galyean, "Meditating with Children: Some Things We Learned," AHP Newsletter (August/September 1980), 16.

121) 신상연, 대중문화 최후의 유혹, 157.

라는 귀신을 부르는 주문을 외운다.

최근 '기'의 단전호흡을 이용하여 건강, 미용관리를 한다고 신문이나 길가의 포스터 광고를 쉽게 볼 수 있다. 심지어 정부(총무처)에서는 '97년도 공무원 교육지침'의 프로그램 중, 단전호흡 시간을 포함시켰다. 명상의 시간은 이미 거의 모든 회사들이 (중, 고등학교 포함) 신입사원교육이나 수련회, 업무(수업)시작 전에 필수과목으로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현상들은 얼핏보면,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간단한 체조라고 좋게 생각할지 모르나 요가, 명상, 단전호흡 등을 종교적으로 추구하는 근본목적은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들 배후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 다. 참선(參禪)

참선의 의미는 '선을 참구함'이라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선이라고 하는 것은 또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하는데, 이것은 글자로만 봐서는 해석이 어렵다. '터를 닦을 선'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의미로 생각을 해봐야 하겠는데, 그 의미는 인도에서 발음을 유사하게 따왔다는 말도 있다. 선나(禪那) 라고 해서 일종의 명상을 하는 행위를 그렇게 부르는 것으로 보이고, 이것을 중국이나 한국에서는 참선이라고 하는 형태에 대한 명칭으로 쓰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본다. 그리고 또한 참선은 자신을 찾는 방법이다. 이것은 어떤 특별한 행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을 찾기 위해서 궁구하는 방법이라면 무엇을 하든지 모두 참선이라고 할 수가 있다고 보면 상당히 넓은 의미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된다. 원래가 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넓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모든 불교도의 목적이기도 한 이 참선의 목적은 그 목적이 속박으로부터의 자유가 되는 것이고, 이것을 한마디로 해탈이라고 하게 된다.

참선은 특별히 동양인, 나아가 한국인들에게 많은 설득력을 얻고 있고 정신수양에 꼭 필요한 도구로 보급되어 가는 추세이다. 그래서 더 많은 위험이 있고 사탄의 표적물이 되어서 우리의 현실에 침투해 들어오고 있다. 참선도 앞에서 밝힌 명상이나 기처럼 뉴에이지의 도구로 쓰이기에 가장 합당한 매개체이므로 참선의 확산도 경계해야 할 부분이다.

### 제 3 절 사단숭배와 비술적 분야에 미치는 영향

#### 1. 사단숭배

사단문화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영적 상태가 인간의 정신세계에 뿌리내려 인간의 풍속과 전통 또는 현대판 유행으로 나타난 것을 의미한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엡 2:2-3)는 말씀처럼 지금은 사탄의 문화 속에서 전쟁상황 속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각 나라와 민족의 전통과 유전과 풍속이 모두 사단의 문화라고 속단할 수는 없겠지만, 그 전통문화의 의미나 유래를 살펴보면 대부분 하나님의 나라의 전통문화와는 상반된 사단적이고 마귀적인 전통문화임을 발견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매년 10월 31일을 할로윈 데이(Halloween Day)로서 공개적인 귀신들의 축제를 가지는 날이다. 이 날의 유래는 AD 1세기 경 영국의 아리안 종족의 한 분파인 켈트족의 승려 드루이드에 의하여 전래되었는데, 마법에 걸린 인간의 영혼이 놓임 받기 위하여 동물이나 사람을 죽여 희생 제물로 바치는 의식으로 그들의 새해의 첫 날인 11월 1일이 되기 전 즉, 10월 31일에 이 마법의식을 행하였다. 이 사단숭배 문화가 전통풍습이라는 이름으로 미국으로 건너가 많은 청소년들의 호기심 조장과 돈벌이에 눈 먼 상인들의 장사 속에 오늘날 약 25억 달러(약 2조원)의 대규모 사업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몇 년 전부터 매년 핼러윈 데이가 되면 미국인 영어강사와 유학생들이 주동이 되어 서울 각 지역에서 호박귀신, 마녀, 드라큐라, 마법사 등 귀신분장을 하고 귀신들의 장난감 노릇을 하고 있다.

이러한 사단숭배자들은 대부분 10대에서 20대 초반의 청소년들이다. 이들은 처음에 사단찬양 음악을 트는 레코드 가게나 디스코텍 같은 곳에서 은밀히 모이고 사단을 상징하는 액세서리나 소도구를 몸에 지니거나 몸에 문신을 하기도 한다. 특히 검은 복장에 창백한 화장을 하고 숲 속에 들어가 음란한 행위와 짐승을 잡아 피를 마시기도 하며 무덤을 파헤쳐 시체를 훼손하는 등 끔찍한 일을 사단숭배 의식으로 행하고 있다.

뉴에이지 운동은 단순히 타락한 문화예술의 유행 정도로 얽보면 안 된다. 뉴에이

지성의 모든 문화의 배후에는 사단숭배라는 의식이 뿌리깊이 각인되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2. 영매술

### 가. 영매술이란 무엇인가?

본질상 고대로부터 전해 내려오던 종교의식과 동일시되던 강신술<sup>122)</sup>은 성서에서도 그 기원을 고대 이집트까지 소급하고 있다. 출애굽기는 이집트인들이 마술, 마법, 죽은 자에게 말하기 등을 포함한 많은 비술행위를 기록하고 있다. 고대로부터 강신술은 신비철학의 본질을 구현하는 재료로 되어 왔으며 그 배경을 보면 죽음은 실재하지 않는다는 사상이 있다. 강신술의 새로운 흐름은 19세기 중엽부터 그 현상이 미국에서 다양하게 발생한 이래 현재 가장 큰 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뉴에이지 운동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대의 강신술의 출현은 '영매술'(channeling) 운동으로 부른다. 즉 영매술은 '뉴에이지 형태의 강신술'이라고 할 수 있다. 영매술은 형이상학적 실재들과 직접 경험할 의도로 인간을 매개자로 하여 통상 비 육체적인 인간의 지성 또는 세상을 떠난 사람과 의사소통을 꾀하는 실행과 관련된다.<sup>123)</sup>

이것은 미국에서 가장 잘 알려진 경우로 워싱턴 옐름(Yelm)에 살고 있는 유선 텔레비전 방송 가입신청 여성 담당원이었던 나이트(J.Z. Knight)에게 영매된 '람다'(Ramtha)이다. 람다는 전설의 섬 아틀란티스(Atlantis)를 정복하고 인도에까지 진출하였다는 35,000살 먹은 '레무리안'(Lemurian) 전사왕이 그 이후에 깨달음에 이르러 높은 영적 차원에 도달하여 나중에는 힌두교의 신인 라마(Rama)의 경지에 오르게 되었다는 영적 실체이다. 나이트가 호텔 연회장에서 개최되는 대담에 초대되어 이곳 저곳을 다니며 람다는 유명하게 되었으며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도 수만 명에 이르고 있다.<sup>124)</sup> 우리 나라 에서는 이 영매의 역할을 무당이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무당이 신의 능력을 받아 그를 찾아오는 사람들의 근심, 걱정 등을 풀어준다고 믿고 있는

122) 점신술, 교령술, 신령술, 심령술과 같은 뜻으로 사용되며 인간이 알고 있는 신비술 중에서 가장 오래된 형태의 것이다. 박영호, 뉴에이지 운동과 영매술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2), 11.

123) Ibid.

124) Rev. James J. Lebar, Cults, Sects, and the New Age (Huntington: Our Sunday Visitor, Inc., 1989), 159.



것이다.<sup>125)</sup>

접신술의 새로운 흐름은 19세기 중엽부터 그 현상이 미국에서 다양하게 발생한 이래에 가장 큰 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뉴에이지 운동에서 나타나고 있다. 접신술이란 과학으로 설명되지 않는 전달을 받은 의향으로, 혹은 형이상학적 실재들과 직접 경험할 의향으로 인간을 매개자로 하여 통상 비육체적인 인간의 지성이라든가 세상을 떠난 사람과 의사소통을 꾀하는 실행과 관련된다.

혼령들을 접촉하는 데 따른 현대인의 마음의 수용도를 나타내주는 것이 앤드류 그릴리(Andrew Greeley)와 시카고 대학교 국립 여론조사협회가 주관한 1980년대 중반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에 반영되어 있다. 그 보고서는 미국인 성인들의 42퍼센트가 죽은 사람과 몇몇 형태로 접촉을 하였던 것을 믿고 있음을 보여준다.

영매술이란 이승에 있는 사람과 저승에 있는 사람이 서로 대화하거나 교통할 수 있다고 믿는 일종의 과학, 철학 또는 종교이다. 영매사상은 죽은 자들의 영들이 물질 세계와 영혼세계를 연결하는 중매자의 역할을 하는 영매들을 통하여 이 땅 위의 사람들과 교통할 수 있다는 것이다. 흔히 영매들을 최초로 영혼의 세계와 접촉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영혼의 안내자(spirit-guide)를 알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혼의 안내자는 영매를 죽은 자들의 영들과 접촉할 수 있도록 해준다.

과거에 영매였던 라파엘 가손(Raphael Gasson)은 도전하는 사이비 종교(The Challenging Counterfeit)에서 접신술의 교묘한 술책과 그것이 지니는 심각한 위험성에 대해 경고한다. 가손은 그가 불러내었던 영(靈)들이 사실은 죽은 자들의 영들이 아니라 마귀의 속임수에 의한 것이라고 말한다. 가손은 접신술사란 다음과 같은 사람이라고 주장한다. 첫째, 사후(死後)의 생명을 믿는 자, 둘째, 죽은 자들의 영과 접촉할 수 있다고 믿는 자, 셋째, 이러한 '기쁜 소식', 곧 죽은 자들의 영과 접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온 세계에 전하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하는 자'라고 정의한다.

접신술은 때로는 대중에게 호응을 얻지 못한 적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옛날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져 내려왔다. 그런데 접신술은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새롭게 발흥하여 급격하게 성장하다가 지금은 현대의 접신술 운동을 주도하고 있다.

125) 심진송, 신이 선택한 여자 (서울: 백송, 1996), 175.

우리는 영매술과 미국의 이전 신탁론의 다양한 형태들과의 차이점들을 보게 될 것이다. 모든 점에서 영매술은 앞서 있는 신탁론에 대한 정의와 부합한다. 일부(전체는 아닌) 뉴에이지 운동권측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점을 논쟁하려 하겠지만 영매의 사례들 대부분은 '자원하여 혼령에 사로잡힘'이라는 말로 묘사될 수 있다. 클리모는 다음과 같이 본다.

당사자가 이양한 인격 내지 자신의 본체감이나 통제를 바꿔버린 인격에 대한 지각능력, 원동력, 인지작용력 혹은 자아 반영력의 통제를 행사하는 영매의 정체성은 분명히 외부적인 것으로서 신원(identity)이라는 용어로 우선 특징 지워질 수 있다.<sup>126)</sup>

#### 나. 영매술과 성경예언

비그리스도인 관찰자들이 영매술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데에 있어 영매술이 성경적인 예언 및 영감의 현상과 근본적으로 동일하다는 가정이 전형적으로 나타나 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많은 수가 영매술에 관하여 비기독교적인 어떤 것이 있음을 보지 못하고 있다. 태평양 연안 북서쪽 지방회에서, 여성으로는 최초의 성공회 사제인 로라 카메론 프레저(Laura Cameron Fraser)는 '조나' (Jonah)라고 불리는 영매의 실체에 대해 자신의 신앙을 버리기보다는 워싱턴주 이사쿠아에 있는 올 메인젤스 교구 사제직과 성 미가엘 학장직을 사임하는 쪽을 택하였다. 우선 다음과 같은 성경 구절을 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복술자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주에 용납하지 말라 무릇 이런 일을 행하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일로 인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중 네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들 들을지니라"(신 18:9-12, 15). "혹이 너희에게 고하기를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히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126) 박영호, 뉴에이지 운동 연구, 211-214.

(사 8:19-20).

이 구절들을 보더라도 성경은 점신술을 정죄하고 있음이 분명한데 그 이유는 사람들이 초자연적 지식과 지침을 추구하는 것(우리가 정당한 욕구를 가지고 있을 경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잘 못된 출처로부터 그것을 구하기 때문이다. '영매술'은 자신의 영역과 지상과의 의사전달을 위해서 의도하시고 승인하신 하나님의 수단이 아닌 것이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바를 뛰어넘는 초자연적 지식을 추구하는 일은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금해진 열매를 따먹었을 때의 최초의 죄에 비유된다(창 3:1-7). 그러한 행위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무시하기 때문이고 게다가 하나님의 성품을 훼손시키기 때문에 악으로 간주된다. 즉 하나님이 특정한 것을 계시할 때는 그것이 우리를 가장 유익하게 하는 이유를 갖고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그 계시가 우리 피조물에게 유익한 것들을 제시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이 선한 영들 즉,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 그리고 '완전하게 된 의로운 이들의 영들'의 실재를 긍정하지만 그 영들을 접촉하려고 애쓰는 일은 장려되지는커녕 오히려 금하고 있다. 사울은 충고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왕권을 상실하였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죽은 선지자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고 신접한 여인에게 요구하였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그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삼상 28:6-7).

우선 모든 성경학자들이 엔돌(Endor)의 영매가 불러낸 영을 진정한 사무엘의 영이라고 믿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어떤 학자들은 그것이 귀신이었다고 믿으며 또 어떤 학자들은 그것이 영매의 속임수에 의한 현상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그것이 진짜 사무엘의 영이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입장은 사무엘상 28장의 전후 문맥에 의하여 입증되고 설명될 수 있다. 첫째, 영매가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사무엘의 영이 나타난 것을 보고 그녀가 누구 못지 않게 놀랐다는 것을 뜻한다(12절). 둘째, 성경은 사무엘의 영이 나타난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다(12절). 만일 사무엘의 영이 나타난 것이 영매의 속임수나 또는 귀신에

의한 것이라면, 성경은 반드시 그런 사실을 지적하고 있을 텐데 성경은 그런 것들에 관하여는 일체 언급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이제까지 추론은 성경의 증거와 일치하는 것임에 틀림없다. 성경은 사람에게서는 죽은 영들을 불러 올릴 능력이 없지만 아무튼 사무엘의 영이 실제로 나타났다고 가르친다. 어떤 사람은 이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을 위하여 사무엘을 불러 올리시기로 결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영매 앞에 나타난 자가 사무엘의 영이라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결론짓는다. 어두움의 세력(즉 영매)과 빛의 나라의 보잘것없는 대표자(즉 사울)는 모두 자기들 앞에 나타난 자가 사무엘의 영이라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서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전 모세와 엘리야를 변화산에서 나타내셨듯이 사무엘상 28장에서도 당신의 주권대로 사무엘을 나타내 보이셨던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면할 수 없는 운명을 지니고 있지만 예녹과 엘리야는 예외적으로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다. 여기 이 엔돌의 경우에도 하나님께서는 예외적으로 역사하셨던 것이다.

성경은 비상한 지식을 누설할 수 있는 영의 실체들이 접신술과 관계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지만(행 16:16-19) 그 영들을 앞서 언급된 선한 영들과는 다른 범주에 있는 사기성이 있고 악의적인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그 영들이 주는 지식은 추종자들이 구분할 수 없도록 진리와 허위가 초자연적으로 교묘하게 혼재된 것이어서 거짓 술책에 걸리게 되며, 그러한 악한 영들과 연루된 까닭에 도덕적 문란까지 겪게 된다.

성경적인 예언과 영감은 영매술과는 다른 것이어서 예언과 영감이 있게 될 때에는 오직 무한한 인격적 하나님께서 인간을 매개로 해서 말씀하셨다. 영매술이 전형적으로 '영의 실체들'과 접촉하려고 행하는 것처럼 성경 예언자들 및 저자들은 하나님 말씀이 영매하도록 자신들을 최면상태로 몰아넣지 않았다는 점이 영매술과 다른 또 하나의 점이다. 인간에게 자신의 말씀을 주시면서 예언자가 환상을 보았을 때처럼 어떤 몰아의 상태가 있었던 경우들에서조차 주도권을 가지신 분은 언제나 하나님이셨다.

일반적인 오해들, 말하자면 그릇된 '구술론'(dictation theory)에도 불구하고 영감에 대한 기독교적 개념은 특히 영매술과는 다르다. 이 개념은 성경의 말씀에는 하나

님의 구원계획이 담긴 그 분의 특별 계시의 부분으로서 독특한 기적이 일어났음을 지지한다. 저자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환경에 따라 기록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동하시고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셔서 그들의 쓴 글들은 하나님께서 쓰여지기를 바라셨던 내용과 똑같았다. 이 성경적인 예언과 영감은 다른 인격체가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영매의 인격이 제쳐지는 영매술과는 대립되는 것이다.<sup>127)</sup>

#### 다. 중매(Mediums)에서 영매(Channels)까지

신명기 18장 9-14절은 접신술이 성경예언과 아무런 관계가 없을 뿐 아니라 접신술이 당시의 우상숭배와 많은 관련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실 접신술을 역사적으로 볼 때 참으로 모든 우상숭배의 형태들 속에서 일정한 역할을 해왔다. 영이 자신의 몸을 그런 식으로 사용하도록 했던 자들은 수많은 명칭으로 불리우는데 '복술자', '길흉을 말하는 자', '요술하는 자', '무당', '진언자', '신접자', '박수', '초혼자' 등이 그 예들이다. 우리가 속한 문화에서 '중매'를 통상 써왔으나 근래에 들어서는 '영매', '영매자'(channeler)란 말이 대체로 선호되고 있는데 이는 중매와 결부된 지난 기간의 부정적인 통념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욕구를 부분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중매와 영매란 말들을 서로 바꿔 쓸 수 있지만 많은 점들에 있어 양 용어는 각기 다른 시대를 뒤로하고 있다. 중매가 19세기 말엽과 20세기 초반의 접신술 운동을 그 시기로 삼고 있다면, 영매는 현행 뉴에이지 운동을 그것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구분은 신령학자인 스코트 로고(D. Scott Rogo)의 정의에서 분명해진다.

중매술(Mediumship)은 특별히 죽은 자의 친인척들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망자(亡者)의 영을 불러들이는 기교이다. 우리가 규정하기로 영매술은 일종의 정보와 같은 유, 막연한 이치를 끌어들이는 것으로 영적 교훈과 철학적 논의를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sup>128)</sup>

#### (1) 폭스 자매

접신술은 전통적인 중매술로부터 현대의 영매로 점차 발전되어 왔다. 원래적인

127) 박영호, 뉴에이지 운동과 영매술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2), 11-21.

128) Ibid., 21-22.

접신술은 1848년 뉴욕 하이드빌(Hydeville)에 위치한 존 폭스(John Fox)라는 농부의 가정에서 시작되었다. 그 농부 집에서 어느 보부상이 살해되었다가 집 밑에 묻혔는데 그 보부상의 영혼으로 추정되는 '똑똑거리는 소리들'이 많은 사람들의 흥미를 끌었다. 그 결과 미 대륙의 사람들이 '죽은 저 편의 사람'과 접촉하는 데 있어 강박관념에 사로잡히게 하였다. 그 이야기는 이렇다. 존 폭스와 두 딸 마가렛 폭스(Margaret Fox)와 케이트 폭스(Kate Fox)가 뉴욕 주의 하이드빌로 이사했을 때, 먼저 제일 어린 두 자매인 마가렛과 케이트가 집안의 이곳저곳에서 무엇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들은 처음에는 그 소리가 쥐들이 법석거리는 소리라고 생각하였지만 가구가 저절로 움직이는 등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자 더 이상 심상치 않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어린 케이트는 이상한 현상들을 일으키고 있는 영과 접촉하려고 애썼다. 그녀가 손가락으로 똑똑 소리를 내면 어디선가 그 소리에 응답하는 똑똑 소리가 들리곤 했다.

그때부터 케이트와 마가렛은 소위 영(靈)과 교통하는 방법을 고안하여 서로 접촉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그 영은 자기가 이전에 그 집에 세들어 살던 사람에 의해 피살된 찰스 로스마(Chales Rosma)라는 보부상이라고 주장하였다. 그 후 그 집의 지하실에서 사람의 해골이 실제로 발견되자 폭스 자매는 수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1886년에 폭스 자매는 자신들은 속임수를 썼다고 고백하였다. 그들은 그 똑똑치는 소리가 자신들의 발가락 관절들을 꺾어서 낸 소리들이었다고 고백했다. 마가렛은 자신이 지금껏 속임수를 써왔던 일련의 과정을 사람들에게 해보이기도 했다. 즉 그녀는 뉴욕 음악학교 무대 위에 있는 소나무로 만든 테이블 위에 신발을 벗고 올라가서 똑똑 소리를 크고 분명하게 내었는데 그 소리는 그 건물의 어디에서나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큰 소리였다.

그후에 마가렛과 케이트 두 자매가 그들의 고백을 다시 부인하긴 했지만 그들이 죽은 자의 영혼과 접촉했다는 주장은 사실상 인위적인 조작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이미 밝혀진 셈이다. 그러나 이런 폭로에도 불구하고 접신술은 사라지지 않았다. 이점에 대해 조셉 더닝거(Joseph Dunninger)는 마법과 신비(Magic and Mystery)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케이트는 1892년, 마가렛은 1893년에 죽었는데, 그들은 모두 죽을 때에 알코올 중독자로 죽었다. 폭스 자매가 자신들의 속임수를 폭로했음에도 불구하고 접신술사들은 그녀들이 미국 접신술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고 계속 주장하며 그녀들의 고백을 무시했다. 이처럼 접신술 신봉자들은 죽은 자의 영과 접촉한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그것을 아주 철저하게 믿어버리기 때문에 접신술이 실재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접신술을 밝히는데 실패한다.<sup>129)</sup>

### (2) 파이크 주교

성공회 주교인 제임스 파이크(James Pike)가 죽은 그의 아들의 영과 접촉하려고 시도했을 때인 1960년대에 접신술은 다시 성행하기 시작했다. 파이크 주교의 아들은 자살했는데, 그는 죽은 아들과 접촉하기 위하여 몇몇 영매들을 초대했다. 캐나다 토론토(Toronto)의 TV 방송은 파이크 주교가 유명한 영매인 아더 포드를 만나는 장면은 방송으로 내보냈다. 아더 포드는 그의 '영의 인도자'를 통하여 파이크 주교의 아들의 메시지를 그에게 전했다.

이 일 후에 파이크 주교는 삼위일체의 교리와 동정녀 탄생과 성육신에 대한 교리를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결국 그는 죽은 영들의 세계를 믿게 되었다. 파이크는 신앙을 버린 지 2년 후에 죽었다. 그가 실종되자 그가 생전에 믿었던 영매는 그가 사라진 때로부터 그의 시체가 발견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 그의 아내에게 "당신의 남편은 살아 있으며, 동굴 속에서 병을 앓고 있다"고 말함으로써 거짓된 위안을 주었다. 이 사건은 유명한 이야기가 되었으며,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접신술에 흥미를 갖도록 했다.<sup>130)</sup>

### (3) 세이안스(Seance)

세이안스는 접신술에서 영매가 죽은 자의 영혼과 접촉하는 한 번의 기간을 말한다. 접신술사들은 여섯 가지의 세이안스가 있다고 말한다. 수동적인 상태, 진짜 음성, 트럼펫 계시, 빛들, 병용 및 공중으로 들림, 한번 접신술을 행할 때에 이 여섯 가지 중에서 몇 가지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한다.

129) Ibid., 22-24.

130) Ibid., 24-26.

세이안스는 언제나 일정한 시간에 시작된다. 왜냐하면 만일 어떤 사람이 늦을 경우엔 죽은 자들의 영을 화나게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일정 시간 동안의 목상이 끝나면 어떤 물체가 움직일 수도 있다. 때때로 그것은 탁자 위에 놓인 유리잔일 경우도 있으며, 죽은 영의 메시지가 자동적으로 기록되는 작은 판일 수도 있다. 그의 몸은 마치 영에 의해 사로잡힌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가 입을 열어 말할 때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평소 그의 음성이 변해버린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세이안스 중에는 여러 현상이 일어나는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영혼이 나타나는 것, 트럼펫을 통하여 죽은 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 영(靈)이 글씨 쓰는 것, 환영(幻影) 및 영기(靈氣)가 나타나는 것 등이 있다.

영혼체현(materialization)이란 죽은 사람의 영혼이 어떤 물질적인 형태로 세이안스 중에 나타나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마술사 조셉 더닝거는 모든 접신술의 현상이 속임수에 불과하다고 했다. 해리 후디니(Harry Houdini)처럼 그는 접신술에 의해 나타난 현상들은 사실상 속임수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월터 깁슨(Walter B. Gibson)은 마술의 비밀(Secrets of Magic)에서 오늘날의 영매들은 '영혼체현'을 자주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접신술의 세이안스 중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것은 영혼 체현이다. 왜냐하면 만일 영혼체현이 진실로 존재한다면, 그것은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심령현상들 중에서 가장 신빙성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형태의 세이안스는 오랜 전통을 지니고 있다. 영매들에게 있어서 영혼체현이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중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속임수를 쓰는 영매들은 그것을 설불리 행하다가는 금방 탄로날 위험을 안고 있다. 속임수를 써서 접신술에서 나타나는 영들이 실제로는 살아있는 사람이 속임수를 쓴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지기도 하였다. 경찰은 거짓영매들이 잠자는 집을 수색하여 그들이 세이안스 중에 사용하는 속임수 도구들을 압수하기도 하였다. 오늘날 대부분의 영매들은 접신술을 시행할 때 물리적인 현상들 특히 영혼체현과 같은 것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sup>131)</sup>

#### (4) 자동 기록(automatic writing)

자동 기록이란 영매가 무의식 상태에서 어떤 글을 쓰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

131) Ibid., 26-29.



때 기록된 내용은 영매의 지식이나 체험 또는 교육 수준을 초월하는 것이라고 한다. 또한 영매들은 그들이 거의 무의식의 상태에서 자동적으로 그림을 그리거나 또는 그림에 색칠까지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어떤 이들은 영매가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교묘하게 의식 분열(意識分列)을 일으킴으로써 이런 현상을 만들어 낸다고 주장한다.

심리학자인 루이스 비쉬(Louis E. Bisch)는 자동기록이 대개 의식분열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우리가 얼핏 보기에 영매들은 무의식 상태에서 글을 쓰는 것 같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어떤 영이 영매들의 손을 움직이고 있다는 식의 헛된 가설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그는 주장한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다른 일을 생각하거나 또는 그와 비슷한 일을 하면서도 즐거웠던 어젯밤의 일을 생각할 수 있으며, 피아노로 익숙한 노래를 연주하면서 마음은 수마일 밖에 가 있을 수 있듯이, 우리들은 글을 쓰면서 자신의 의식을 분열시킬 수 있다. 물론 어떤 이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의식을 분열시킬 수 있는데 이것은 천성적인 성향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의식분열은 보통 사람들에게도 많이 나타난다. 그런데 자동 기록은 특히 신경이 예민한 사람에게 잘 나타난다. 왜냐하면 신경이 다른 사람들보다 정신분열의 경향이 더 심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에게 연필을 주고 그에게 어떤 질문을 던져 보라. 그러면 그는 당신의 질문에 대답은 할 것이며, 어떤 다른 내용을 글로 쓸 것이며 또한 전혀 다른 내용들에 대해 말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신기한 것은 그는 자신이 글로 기록한 것을 나중에는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말하자면 그는 자신의 의식의 일부로 대화를 하면서, 또 다른 의식의 일부로는 글을 썼던 것이다. 영매는 이런 심리학적 사실을 그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치면서까지 이런 기술을 사용한다.

자동기록을 위하여 영매는 마음을 완전히 평온한 상태로 유지시켜야 하며, 어떤 다른 것에 정신을 집중해서는 안 된다. 그러다가 영매가 갑자기 글을 쓰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힌다는 것이다. 오늘날 가장 뛰어나고 교활한 영매들 중의 한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매튜 맨닝(Matthew Manning)으로서 많은 초심리학자들이 맨닝을 대상으로 연구했다.

현대접신술 교회들은 접신술 운동의 전통을 이어받고 있는데 보편주의에 대해

강하게 강조하고 특히 지옥은 없으며 만인이 구원받게 되리라는 신학적인 핵심에 있어서도 범신론적 경향, 즉 만물은 하나님의 일부이다를 견지하면서도 의무적으로는 많은 기독교적 장치들 예컨대 교회당에서 설교, 복음송 등과 같은 것을 행하는 것을 종종 사용한다.<sup>132)</sup>

#### (5) 신지학과 그 지류들

러시아 출생의 접신술자인 영매 헤레나 페트로브나 블라바츠키(Helena Petrovna Blavatsky, 1831-1891)가 코로넬 헨리 스틸러 올콧(Colonel Henry Steeler Olcott)의 도움으로 1875년 신지학(Theosophy)을 세웠을 즈음에는 현대의 영매술로의 느릿한 이행이 시작되었다. 신지학을 문자적으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지식을 말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는 어느 종교에서든지 발견된다고 주장한다. 직관적으로 신을 인지하거나 신과의 합일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종교적 신비술이다. 블라바츠키 부인은 해리 숙부(Uncle Harry)라든지 ‘조지 워싱턴 대통령’ 등에게서 온 전갈을 전해주기보다는 히말라야 산맥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된 마하트마(mahatmas)나 초인적인 도사들(masters)로부터 영적 교훈들을 받거나 글로 옮기기 시작하였다. 마하트마는 신지학의 달인(Adept)으로서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을 통하여 계시를 전달해 주는 존재이다. 그는 영의 세계로부터 왔다고 한다. 우주의 진화적이고 위계적인 관점으로 동서양의 다양한 종교적 출처들을 혼합하였는데 그 결과물이 그녀의 주요 저서인 두 권의 책 밝혀진 아이시스(Isis Unveiled)와 비밀 교의(The Secret Doctrine)로서 현대 뉴에이지 운동의 신념체계에 있어서 기초를 놓았다. 접신술이 쇠퇴의 길을 걸을 즈음에 신지학의 주가는 급등하였는데 많은 신지학 모방자들이 영상매체를 탔다.

블라바츠키 이후로 지구의 영적인 진보를 맡은 ‘고차적인데 이른’ 책임자들 ‘예언자들’, ‘서기관들’이라는 자원적인 영매들이 되는데 있어 결핍을 찾아볼 수 없었던 까닭에 다가오는 뉴에이지운동에 관한 자신들의 가르침으로 목소리를 높이기 위하여 그 제자들이 준비를 해야 했다. 티베트의 도사 쯔왈 쿨(Djwhal Khul)은 앨리스 베일리(Alice Bailey)를 통하여 1919년부터 1949년 사이에 스물 다섯 권을 집필하였는데 이것이 그 제자들의 준비에 대한 가장 두드러진 예다. 이러한 영매자들 각각 특정한

<sup>132)</sup> Ibid., 33-36.

운동의 설립자가 되었는데 경쟁적인 운동의 설립자들을 모욕이 아니라면 통상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게 될 것이다. 신지학 추종자들은 윤회설을 주장한다. 쿠퍼(Irving S. Cooper)는 “우리의 출생목적, 우리의 성격, 우리의 계획, 우리의 능력에 대하여 우리 자신들 외에는 아무도 비난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우리들의 생애에서 혹은 전생에서 진척시킨 힘에 의해 되어진 것이기 때문이다.”<sup>133)</sup>라고 말했다.

#### (6) 접신술의 최고 법술

지난 세기에 걸쳐 현대에 적합한 특별히 새로운 사실을 제시한다고 주장된 영감술로 이루어진 몇 권의 책들이 선보였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서적은 우란티아서 (The Urantia Book)와 기적 강좌(A Course in Miracles)이다.

우란티아서는 1930년대에 살았던 무명인들이 무의식적으로 쓴 집필, 즉 자동 기록(automatic writing)을 거쳐서 수록된 것이다. 2천 백 페이지에 달하는 책에는 이전 우주들의 거대한 군집 및 진화의 단계를 거치는 존재들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는데 그 목적을 지구(우란티아)의 역사와 이전에 알려지지 않은 예수에 관한 지식을 밝히려는데 두고 있다. 기적강좌란 책이 든 본문서, 학생들을 위한 학습서 그리고 교사용 지침서 등 세 권으로 출간된 이래 뉴에이지 운동측 사람들 사이에 매우 인기가 있는 책이 되었다. 이 책은 지금은 고인이 된 콜롬비아 심리학 교수였던 헬렌 슈크만(Helen Schucman)이 1965년부터 1972년 사이에 초인적인 청력을 가지고 쓴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그는 자신이 처음 마음속의 소리를 들을 당시 무신론자임을 자인한 바 있다. 기적강좌는 다음과 같은 간단한 문장으로 그 전달하는 의미가 요약된다. “실재하는 어떤 것도 위협되어서는 안되며 비실재적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평화가 깃든다.”<sup>134)</sup> 그 책에 기독교 용어가 자유롭게 쓰여지고 있긴 하나 그 용어들은 전적으로 재 규정된 것이므로 실상 그 책은 뉴에이지의 접신술서가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기독교적인 책도 아니다.

### 3. 점성술

최근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체 미국인의 23퍼센트가 윤회설(Reincarnation)을

133) Ibid., 36-38.

134) Ibid., 38-39.

신봉하고 있으며 25퍼센트는 뉴에이지들 사이에서 신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비인격적인 힘'(nonpersonal energy)의 존재를 믿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up>135)</sup> 또한 갤럽조사에 따르면 최소 10퍼센트 이상의 크리스천을 포함하여 전체 미국인의 30-40퍼센트가 점성술을 믿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신비적인 현상에 대한 미국인들의 관심은 죽은 자와의 영적인 접촉에 대한 가능성이 11년 전의 조사에서는 27퍼센트에 불과하던 것이 최근 들어서는 42퍼센트로 급상승한 것에서도 단적으로 엿볼 수 있다.<sup>136)</sup>

점성술은 어떤 사람이 미래에 어떤 일을 만날 것이며 그가 어떤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는지를 정확히 예언하는 것을 말한다. 점성술을 하는 사람들은 별들과 혹성들의 위치가 사람들과 사건들에 직접 영향을 미치며 한 개인의 운명은 그가 태어났을 때의 별들과 혹성들의 위치에 따라 결정된다고 믿는다. 사람이 태어난 날짜와 시간을 열 두 개로 나누어서 태양, 달, 혹성의 위치 관계를 적용하여 해석한다. 현대 서양 점성술의 가장 오래된 고전은 천문학자 프톨레미우스의 점성술 저서인 테트라 디블로스 로 그에 의하면 천문학은 제1 과학이고 천상의 현상이 지상에 미치는 영향을 따지는 점성술을 제2과학이라고 하였다. 뉴에이지 역시 물병자리라는 용어로 점성술을 중요한 교리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 점성술은 과학적으로나 성경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첫째, 점성술은 지구를 중심으로 하여 회전한다는 이른바 지구 중심설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구가 아닌 태양을 중심으로 회전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점성술의 기본전제는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쌍둥이의 출생문제이다. 동일한 장소, 동일한 시간에 태어났다면 그들의 별자리가 같기 때문에 동일한 운명을 가져야 하나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셋째, 과학적으로 별자리에 변화가 있다는 것이 검증되었다. 따라서 별자리가 동일한 형태로 반복되는 법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제 성경에 나타난 점성술을 살펴보고자 한다. 구약에는 별의 세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신화적 비유들이 나타난다.

루시퍼에 대하여 뉴에이지 경전 창세기137)에서는 화성이 루시퍼의 도피 장소였

135) Karen Hoyt, *The New age Rage* (New Jersey: Fleming H. Revell Company, 1978), 11.

136) Russel Chandler, *Understanding the New Age* (Dallas: World Publishing, 1991), 8.

137) Heline Corinne, *The New Age Bible*, Vol 1 (Santa Monica: New Age Center, 1990).

고 루시퍼의 정신은 독립과 반항의 정신으로 현대에까지 명백한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문자 그대로 루시퍼는 빛을 가져온다고 주장한다. 또 루시퍼의 정신은 진화의 전진을 가져오는 정신이라고 높이 추켜세우고 4개의 천사별을 황소좌-전갈좌, 사자좌-물병좌로 연관시키며 그것이 영혼의 파괴를 일으키는 것이라고 루시퍼 숭배이론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성경에는 루시퍼가 3대 천사의 하나로 창조되었으나 타락하여 그의 추종자들과 함께 마귀, 사탄, 귀신, 악마로 변신한 타락한 영물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은 점성술이나 미신적인 과학을 행치 못하도록 절대 금지하고 있다. 점성술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을 알려하고,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이 아닌 신비적 수단에 의해서 미래를 알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죄를 받는다고 성경은 말한다(사 47: 13-14; 렘 10:2; 신 4:19). 점성술이 숙명론적인 것으로서 별자리에 의해서 인간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것이며 인간이 자신의 삶에서 자유와 책임이 있다는 성경의 가르침과 상반된다. 성경은 미래에 대하여 알 수 있는 좋은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운명과 이 지구의 운명이 어떠한 것인가를 이미 말씀하셨다.<sup>138)</sup>

뉴에이지의 사고의 이런 점성술적인 뿌리는 점성술과 더불어 많은 사상들을 내포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사상은 새로운 영적인 시대가 인류에게 밝아오고 있다는 기대이다. 이것은 뉴에이지 사고의 특징을 드러내고 있는데 그 특징은 강력한 점성술적인 견해로부터 출발하지 않은 사람들에게조차도 많은 실험의 근거가 되었다. 심지어 이 시대의 과학자들과 철학자들 중에서도 인간에게 영적인 차원이 존재한다는 일반적인 의견일치가 있다.

#### 4. 최면술과 심령치료

##### 가. 최면술

1970년대 중반까지 타임지나 기타 주요 대중 잡지들은 신비한 것과 경이로운 것에 대한 관심이 점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주 보도하였다.<sup>139)</sup> 그리고 1980년 중반에

11.

138) 민경선, "뉴에이지 운동의 영성 고찰" (석사학위논문, 침신대학교 신학대학원, 1995), 40-43

139) "Boom Times on the Psychic Erontier", Time, 4 March 1974. 심령현상-ESP, 열력 (psychokinesis, 물리적인 물체에 영향을 미치는 정신의 능력), Kirlian 사진(생물체의 aura를

이르러서는 정신현상에 대한 관심이 아주 일반적인 것이 되었다. 뉴에이지는 이제 인간의 정신과 생각을 혼란하게 방법으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최면술이라 할 수 있다. 최면치료란 대단히 복잡한 여러 가지 요소의 상호작용의 영향을 받는 고도로 예민한 작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면감수성'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 경험 많은 최면치료자들이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이다. 최면감수성이 낮은 환자라도 치료횟수가 거듭되면서 치료자와의 신뢰와 유대가 강해지면 환자내면의 심리적 저항과 편견, 선입견과 두려움 등의 다른 요소들이 감소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불가능했던 최면작업들이 얼마든지 가능해진다.

#### 나. 심령치료

소수 몇몇의 치료자들은 뉴에이지 운동을 하고 있으며 대체로 이들의 치료방법은 '기의 균형'을 잡는 다른 형태의 방법들과 함께 몸의 여러 군데 아픈 곳을 치료한다라고 주장한다.<sup>140)</sup> 서양에서는 기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약이나 침, 또는 안마나 두드리는 행위 등 물리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도 병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신비로움을 갖게 되면서 심령치유와 같은 맥락으로 보아 왔다. 그러나 심령치유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으로써 인간이 잠재적으로 갖고 있는 능력을 개발하여 사용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심령치유라는 것은 내가 주체가 아닌 다른 영이 주체가 되는 것으로 치유자의 몸 안에 어떤 영이(심령과학에서는 고급령이라 하며 이 영은 죽기 전에 의사인 경우가 많았다고 함) 들어와 그 사람의 몸을 빌려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것을 말한다.

대체적으로 이러한 능력을 갖게 되는 사람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신앙심이 깊은 신자가 기도 중 우연히 얻어 지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어떠한

---

보여준다고 하는), 심령치료술, 침술, 투시력, 육체를 벗어나는 경험, 예견에 대한 당시의 관심을 수록하고 있다. 1년 뒤 *Saturday Review*(22 February 1975)는 새로운 의식의 인기는 사신(死神)신학과 같은 단순한 문화적 유행보다 더 심각한 일이라고 주장한다. 조화로운 수렴(Harmonic Convergence) 때에 뉴에이지의 기념행사에 대한 소식은 여러 미국 신문, 시사 잡지에 실렸는데 어떤 기사들은 반놀림조로 쓰였다. 뉴에이지는 대중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지만 항상 대중의 존경을 받는 것은 아니다.

140) John Thie, *Touch for Health* (Marina del Rey: DeVorss, 1973).

목적(대개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한 수단으로써)을 갖고 기도나 수련을 함으로써 능력이 생기는 것이 있다.

심령치료를 하는 이들에게서 볼 수 있는 특이할 만한 사항은 전혀 의학적인 지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문가들도 놀랄 정도로 병이 있는 부위를 정확히 찾아내고 고쳐낸다는 것이다. 또한 이 능력은 간혹 일반적으로 수련을 통해 얻어진 기 치유 능력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놀라운 효과를 보일 때도 있다. 그러나 이들에게서 볼 수 있는 공통된 문제점이 있다면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능력이 상실되거나 시간이 지나면서 약화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영의 도움을 받는 심령치료라는 것은 갑자기 놀라운 치유 능력을 얻게 되어 좋을 수도 있겠지만 언젠가는 그 능력은 없어지게 되며 자칫 영의 노예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이다.

## 5. 초능력과 마술

### 가. 초능력

초능력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와 식견들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보기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초능력이란 과연 무엇이며 초능력이라는 것은 존재하는 것인가? 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 문제에 관하여 우리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사람들은 누구나 남들보다 좀 더 뛰어난 재능을 갖기를 소원한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으며 행할 수도 없는 어떤 능력을 초능력이라고 하여 사람들은 그것을 동경해 왔다. 특히 어린이들은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이런 능력에 관하여 더욱 관심이 많은 편이다.

오늘날 매스컴과 만화와 수많은 어린이 잡지들이 이런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교묘히 이용하여 진상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무분별하게 이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그 때문에 어린이들이 초능력에 관하여 엉뚱한 오해나 건전치 못한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초능력이라고 불리는 그들의 능력 가운데는 거짓과 실수가 빈번하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거짓말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며 악령이 조종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여러 곳(행 5장, 고후 2장 등)에서 기록하고 있다.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

나님 앞에서 단 한번의 거짓말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런데 바로 이들 초능력을 가졌다는 사람들이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은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밝히려고 한다. 이런 관점에서 여기서는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힘이나 예언이나 어떤 능력을 가진 잘 알려진 사람들을 모두 초능력자라고 표현하여 연구할 것이다.

#### 나. 마술

불교의 뿌리라고도 할 수 있는 힌두교는 브라만 신이 궁극적 본질이라고 여긴다. 이 신은 비인격적인 존재로서 '모든 것' 가운데 깃들여 있는 어떤 하나의 본질이다. 신을 범신론적인 시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범신론에서는 창조자와 피조물을 혼동한다. 그래서 모든 것이 신이요, 신과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들은 모두가 '마야'(maya), 즉 환영(幻影)일 뿐이다.

만약 인간을 신과 분리되어 있는 존재로 본다면 인간 역시 '마야'에 지나지 않는 허무한 존재다. 이것은 서구인들의 사고방식으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생각이다. 인간을 우주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는 우주의 실존적 주인공으로 보는 서구의 휴머니즘에서 인간이 '마야'에 불과한 존재일 수도 있다고 말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은 힌두교의 범신론적 시각을 받아들이면서도 인간을 허상이 아니라 신적 요소가 내재되어 있는 실체로 간주한다. 그리고 그러한 인간을 진짜 신으로 '진화'시키려 한다.

동양사상에서 '도를 닦는다'든가, '깨달는다'는 것은 뉴에이지적 이념 용어로 표현하면 이처럼 신이 되기 위한 '인식적 진화과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뉴에이지 휴머니즘의 환상적인 마술세계는 바로 인간을 신으로 진화시키는 연금술 같은 신비로 가득 차 있다. 그들은 이러한 신비로운 마술을 때로는 샤머니즘의 색깔로 물들이기도 하고, 때로는 첨단 과학 용어로 옷 입히기도 한다. 신비롭게 느껴지는 샤머니즘적 요소는 과학으로 포장하고, 과학은 반대로 신비주의로 포장하면서 저들은 대단한 요술을 부린다.

#### 6. UFO(Unidentified Flying Object) 숭배

UFO란 1947년 6월24일 미국의 실업가 케네스 아놀드가 워싱턴주 레니어 국립공



원 상공에서 접시처럼 생긴 9대의 이상한 비행물체를 처음 발견함으로써 그 논란이 시작되었는데, 당시에는 '비행접시'라고 부르기도 하였으나 미군의 군사적 용어인 '미확인 비행물체'로 공식화되었다. 연구가들에 의하면 UFO의 속도는 광속의 20배이며, 상하좌우의 비행이 자유롭고 중력의 법칙이나 관성의 법칙을 적용 받지 않으며, 소음이 전혀 없는 비행물체라고 한다.

그렇다면 UFO는 성경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갖는 것인가? 이점에 대하여 성경은 이미 인간보다 먼저 창조된 천사의 존재를 계시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언급해야 할 것이다.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천사들은 인간과 구별되는 고유한 속성과 능력을 갖고 있는 피조물임을 말해준다. 천사들은 완전히 분리된 두 부류의 광대한 집단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들은 처음 창조되었을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지위와 위치를 지키는 거룩한 천사들과 사탄과 함께 반역에 가담하여 타락한 천사들로 구별된다. 하늘나라와 사탄의 제국이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인류의 역사적 경험 속에서 어느 정도 직감적으로 알려져 왔다. 비록 통속적인 의미에서라도 '선과 악', '악마와 천사', '빛과 어둠' 등의 근본적인 관념들은 이와 같은 실상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 성경은 이 엄명한 사실을 가장 진실하고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sup>141)</sup>

이 운동의 목표는 외계인의 메시지를 지구에 널리 알리자는 것으로 클로드 보리롱은 73년 12월 13일 프랑스 클레르 몽페랑의 한 사화산에서 엘로힘이라고 불리는 우주인을 만났다고 한다. 그러나 엘로힘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이라는 뜻이다.<sup>142)</sup> 그리고 보리롱은 이 운동의 보급을 위해 스위스 제네바에 국제본부를 두고 한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미국, 캐나다, 일본, 대만 등 각국에 협회를 조직해 놓고 있다. 참으로 희한한 것은 이 운동이 주장하는 각종 주제들이 거의 뉴에이지들이 추구하는 바와 일치한다는 점이다. 세계정부 추진, 세계공용어와 화폐, 국제군대, 종교간 갈등 해소, 감각명상, 인류 전체의 행복추구 등이 그렇다. 특히 라에리안 운동은 인류가 원시적 신앙에서 벗어나 인도주의와 과학적 합리주의에 기반한 범 세계적인 무신론적 종교운동임을 공공연히 밝힌다. 보리롱은 그의 저서를 통해 엘로힘이 인간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 모세, 예수, 석가, 마호멧 등의 예언자를 보내 인류를 교육 개화시키고 엘로힘의

141) Ibid., 50.

142) 김웅광, 뉴에이지 운동의 정체 (서울: 국민일보사, 1996), 17.

창조 작업에 대한 기록을 남겼다고 주장한다. 또 인간이 하나님과 동등하게 될 것이며 엘로힘이 유전자 조작기술을 통해 생명을 창조했고 결국 모든 생물은 초자연적이며 형체 없는 신에 의해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 강조한다. 그는 엘로힘이 세계 정치 지도자들과 과학자들을 만날 수 있게 대사관을 설치해 주기를 요청했다면서 이런 사실을 책으로 펴내 전인류에게 전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한다. 완벽하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내용들이다.<sup>143)</sup>

오늘날 UFO 현상의 특징은 그것을 신봉하고 있는 사람들이 집단화되고 또한 종교화 되어간다는 점이다.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초능력과 신비주의조차도 어떻게든 과학이라는 안경을 통하여 해석해 보려고 한다. 어느새 인류는 과학만이 사물을 판단하는 가장 합리적인 잣대라는 잠재의식을 가지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런 상황에서 인류는 UFO를 타고 오는 외계인에 의하여 창조되었으며 그들은 우리의 신이므로 그들에게 복종하고 그들을 맞아들일 준비를 해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다양한 종교운동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다. 라엘리안 운동이 바로 그런 종교화되고 있는 여러 모임들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서구 사회에서 많이 번져가고 있는 여러 새로운 종교집단 가운데 비교적 우리나라에서 신속하게 전파되고 있는 라엘리안 운동을 통하여 이와 같은 UFO와 관련된 신비주의 집단의 종교화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라엘리안 운동은 무신론적 종교운동으로서 과학만능의 세상이 불러들인 대표적인 과학적 운동이며, 뿐만 아니라 UFO를 신봉하는 “신흥 반기독교 이단운동”이라 할 수 있다. 1970년대 프랑스의 클로드 보리롱이라는 사람에 의하여 시작된 이 운동은 노골적으로 무신론적이며 반 기독교적인 것이 특징이다. 열 다섯 살 때 가출해서 샹송가수, 기자, 카레이서 등을 하던 그는 1973년에 프랑스의 클레르 콩페랑이라는 곳에 있는 사화산(死火山)에서 우연히 UFO를 발견하고 우주인을 만났다고 한다. 보리롱은 이 첫 번째 접촉에서 외계인들로부터 인류에게 빛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뜻의 “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고, 이것은 바로 이 운동의 이름이 되었다. 그는 2년 뒤인 1975년에 UFO를 타고 왔던 ET와 함께 그들이 살고 있는 혹성에도 다녀왔다고 주장하면서, 인간은 외계인에 의하여 창조된 존재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즉, 자기가 외

143) Ibid., 19.

계에 가보니 예수, 마호멧, 석가, 모세, 요셉, 스미스(기독교 이단인 몰몬교의 창시자) 등 모두가 그들이 보낸 메신저였다고 주장하였다. 그에 의하면, 역사상 40명의 메신저들이 있었는데 자신도 그 중의 하나라는 것이었다. 그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엘로힘'의 복수 표현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주인 엘로힘을 가리킨다고 하였다.

예수님을 격하시키고 자신은 예수님과 동등한 선지자 가운데 하나라고 주장하는 다른 기독교 이단교파와 유사한 주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과학이라는 탈을 쓰고 등장할 뿐 그 내면의 입장은 이단과 동일한 궤대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무튼 기독교적으로 볼 때 참으로 황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단순히 무시해 버릴 수만은 없을 정도로, 반기독교적인 이 운동은 세속화되고 있는 한국의 기독교에 식상한 젊은이들에게 파고들고 있다.

현재 스위스에 본부를 두고 있는 이 운동은 우리나라에서는 1984년 YMCA강당에서 'UFO와 창조론'이라는 제목으로 자칭 우주 전문가라는 일본인 교사까 가스미라는 사람을 초청하여 강연회를 가지면서 본격적으로 태동하게 되었다. 이들은 전 세계적으로 엘로힘을 맞이할 대사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총본부는 예루살렘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부분 그들의 주장은 성경으로부터 나오고 있으며 그것을 교묘히 이용하여 반 기독교적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도 이 운동이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었다는 것만 색다를 뿐 다른 이단교파와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영적인 눈으로 주목해 보아야 할 일이다.

아무튼 이들의 주장 가운데는 성경 해석적인 견해뿐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모순이 많고, 인류의 기본적인 윤리와 도덕적인 면에서도 많은 오류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 첫째, 그들은 인류의 조상이 지구로부터 1광년이 떨어진 어느 혹성으로부터 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천문학상으로 발견된 행성 중 가장 가까운 별은 지구로부터 4.3광년 떨어진 켄타우루스 알파성으로 알려져 있다. 행성이 그 사이에 없다면 혹성은 더더구나 불가능한 것이다. 이런 허구가 대중들에게 어필 될 수 있다는 것은 지구처럼 다른 외계에도 진화가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라는 진화론적 사고도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둘째, 그들은 성경을 주로 인용하면서도 범신론적이면서도 무신론적 윤회사상을 따른다. 그들은 외계인이 주었다는 메달을 걸고 다니는

데 그 마크가 상징하는 것은 순환적 세계관, 즉 세계는 돌고 돈다는 것이다. 이것은 기독교의 직선적 시간관과 조화될 수 없는 비 성경적인 견해이다. 이러한 사고도 오늘날 일부 뉴에이지 운동가들이 표방하고 있는 영적 진화론으로부터 영향 받고 있음을 나타낸다. 셋째, 성적(性的)으로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이 운동의 주장은 인류의 기본적인 도덕관과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성경적으로는 더더욱 커다란 죄악을 범하고 있다. 동성애, 양성애, 혼음까지도 전혀 부자유스럽지 않은 행위라고 주장하지만, 성경은 이에 대하여 단호히 경고(레 20장)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현재 이 운동의 한국대표(그들은 '내셔널 가이드'라 함)는 과거 건전한 목회를 하던 전직 목회자이다. 이것은 이 운동의 유혹이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지 잘 드러내주는 좋은 예이다. 각 나라별로 수십 개의 지부가 있는 이 모임에는 성직자들도 상당수 있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sup>144)</sup> 앞으로 UFO는 세계 각처에서 빈번히 그 모습을 드러내 사람들의 호기심과 두려움을 불러 일으킬지도 모른다고 반 뉴에이지 운동을 펼치는 사람들은 전망한다.<sup>145)</sup> 이처럼 미혹 받기 쉬운 현대인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함이 시급한 과제이다.

144) 조덕영, UFO와 신비주의, 52-54.

145) 김웅광, 뉴에이지 운동의 정체, 20.

## 제 5 장

### 뉴에이지 운동이 대중문화에 미치는 악영향

그러면 이제 좀더 구체적으로 뉴에이지 운동이 대중문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이에 앞서 우선적으로 대중 문화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하고 그 문화에 뉴에이지 운동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 제 1 절 뉴에이지 운동과 대중문화

##### 1. 대중문화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대중 문화란 대량생산에 의해 대량으로 전달되고 대량으로 소비되는 삶의 방식이다. 하나님은 문화명령을 내리신 이후 날로 번창해 온 대중매체의 질적, 양적 우수성에 대해 오늘 아무도 그 위력을 의심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sup>146)</sup> 현대의 대중문화에 대한 기독교의 평가는 크게 두 가지 입장으로 나뉜다. 그러나 그것은 서로 상반된 입장이기보다는 대중문화의 두 측면에 대한 강조점의 차이라고 볼 수 있다. 하나는 대중문화에 대한 긍정적 견해이다. 맹용길은 기독교신앙과 대중문화라는 글에서 대중문화를 대중의, 대중에 의한, 대중을 위한 문화라고 정의한다. 그러면 대중이란 누구인가? 그는 대중을 대다수의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집합체로서 사회적 지위, 계급, 학력, 재산 등의 사회적 장벽을 초월해서 구성되는 사람들이라는 일반적 의미로 이해한다.

이러한 긍정적 평가의 근거로 드디어 문화적인 대중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제시한다. 과거에는 문화가 소수 귀족들의 전유물이었지만, 민주주의의 도래와 함께 대중이 평등하게 즐길 수 있는 형태로 변화되었다는 생각이다. 이러한 변화는 그리스도의

146) 신상언, 사탄은 마침내 대중문화를 (3판; 서울: 낮은울타리, 1999), 179.

구속이 문화에 적용되어 일어난 현상으로 과거에 부르주아와 엘리트만을 위한 불평등하고 자만한 소수문화를 극복한 보편적 은총이라고 해석한다. 인간의 타락과 죄악은 하나님께서 평등하게 창조한 인류의 지배자와 피지배자, 귀족과 천민 그리고 부자와 가난한 자 등으로 분리하고 사회적 신분을 세습하고 문화를 소수 지배계급의 전유물로 만들었으며 다수의 대중은 문화적 혜택에서 소외되었다.

더욱이 힘없는 대중은 문화를 모르는 미개인 취급을 당하고, 그들이 즐기는 문화는 저급문화로 분류되어 천시되었다. 또한 침략적인 식민통치에서 지배자의 문화는 우월한 것으로, 피지배자의 문화는 열등한 것으로 여겨졌다. 현대 인류학은 이것이 얼마나 제국주의적이고 잘못된 문화관인가를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식민주의 시대가 종식된 지금도 그 여파로 형성된 서구화의 물결은 현대화라는 이름으로 계속되어 서구문화의 우월성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노예의 음악으로 유입된 재즈가 오히려 미국 음악을 지배하고 랩송이 한국 청소년 음악을 지배하는 현상 등은 대중문화가 과거의 정치적 차별을 극복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치적 민주화와 독립은 대중이 주도하는 대중을 위한 문화의 민주화를 성취하는데 깊은 영향을 끼쳤으며 이 점은 분명히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과거에는 예술가들이 소수만을 위하여 봉사하였으나 이제는 모두를 위하여 그들의 예술적 재능을 사용하게 되었다. 그리고 신분적인 차이 때문에 문화적 혜택을 유린당하고 차별 당하는 일은 크게 줄어들었다.

대중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게 만들어준 또 하나의 원동력은 정치적 민주화와 함께 일어난 과학의 발달이다. 과거에는 아름다운 음악을 듣기 위해 먼 거리를 여행해서 비싼 입장료를 내고 음악회에 참석해야 했지만 지금은 과학 기술의 발달로 말미암아 거의 완벽한 음질을 가진 테이프나 CD를 값싸게 구입해서 어디서나 반복해서 들을 수 있게 되었다. 거의 모든 가정에 보급된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는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두가 즐길 수 있게 되었고 전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안방에서 편안히 볼 수 있다.<sup>147)</sup>

그런가 하면 대중문화를 정죄하는 부정적 견해도 적지 않다. 손봉호는 “대중문화에 대한 기독교인의 태도”라는 글에서 대중문화를 “대중이 만들어 내고 대중이 즐기

147) 강영안, 김연종, 신국원 외, 대중문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 (서울: 예영 커뮤니케이션, 2000), 29-30.

는 문화"라고 정의하지만 대중에 대한 이해는 매우 다르다. 그에게 대중이란 대부분의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성격을 가진 인간군'을 가리킨다. 이 거대한 인간집단은 현대 산업사회에서 대량생산과 대중매체에 의하여 생겨난 획일화되고 규격화된 '소외된 인간군'이며 따라서 대중문화는 '소외된 문화'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리고 '기독교인은 대중에 속할 수 없다'라는 논리로 기독교인은 대중문화를 수용하거나 향유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 뿐 아니라 많은 기독교 신학자들이나 문화이론가들은 대중문화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가하고 심지어 '문화전쟁'까지 선포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대중문화가 비 기독교적이며 그리스도인이 비판적으로 대해야 하는 형태의 문화인가?

첫째로, 문화의 대중화는 공동체와 자아의 상실을 유발시킨다. 문화를 모두가 함께 향유하게 되었다는 긍정적인 이면에는 부정적인 요소가 도사리고 있다. 문화는 공동체를 전제로 한다. 인간이 공동체를 형성하고 서로 교제하며 사는 삶의 방식이 그 공동체 특유의 문화를 산출한다. 독특한 언어를 사용하면서 독특한 노래를 부르고 독특한 그림을 그리며 독특한 옷을 입고 독특한 집에서 독특한 음식을 먹으며 독특한 예의와 의식을 거행하며 독특한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각 민족과 공동체가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게 했다.

고대로 갈수록 생활공동체의 규모는 작다. 산업혁명과 도시화 이전에는 인류가 서로 인격적 교제를 나누는 부락이나 성읍 공동체에서 그들 나름대로의 문화적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갔다. 그러나 문화의 현대적 대중화는 문화적 공동체를 무한히 확대시켜 세계전체에 이르게 하였다. 과거에는 문화적 공동체가 곧 삶의 공동체였으며, 문화는 공동체 생활의 수단이며 공감대를 이루는 표시였다. 그러나 현대의 무한 대중화는 문화의 공동체와 인격적 교제를 나누는 삶의 공동체를 분리시켰다. 그 결과 인격적 공동체를 파괴하여 공동체적 교제를 증진하는 방편으로 함께 놀이를 즐기고 함께 노래하며 함께 구경하기보다 혼자서 문화를 즐긴다. 심지어 많은 사람이 함께 영화를 관람할지라도 사실은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제각기 관람하는 것이다.

이러한 대중화는 군중 속의 고독을 느끼게 하고 문화가 공동생활의 수단이 아니라 목적 그 자체로 종속되게 만든다. 공동체의 상실은 인격적인 자아의 상실을 가져오고 인생을 무의미하고 고독하게 만든다. 너무 대형화된 공동체에서 개인의 요구나

필요는 무시되고 군중심리가 작용한 인기에 지배당해 그 속에 자신을 내던진다. 자기의 능동적인 결정에 의해서라기보다 사회에서 소외당하지 않기 위하여 무의식적으로 대중 안에 있으려 한다. 대중이 문화의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대중성의 매커니즘에 의해서 조작 당한다. 문화를 조작하는 사람들조차도 대중성의 논리에 지배당한다.148)

둘째로, 현대성은 대중문화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위험이다. 대중문화는 인류의 오랜 역사에 있어서 현대라는 특정한 시대에 일어난 새로운 문화현상으로 현대성이 그것을 가능하게 만든 본질적 요소인 것이다. 앤소니 기든스(Anthony Giddens)는 현대성과 자아 정체성에서 현대성은 산업주의와 자본주의라는 두 축으로 구성되었으며 그 특징은 시간과 공간의 분리, 탈피 그리고 성찰성에 있다고 분석하였다.

20세기는 산업혁명으로 인한 경제적 갈등이 야기되어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라는 양대 이데올로기가 대립하였으나, 80년대에 접어들면서 공산주의는 대부분 붕괴되고 자본주의의 승리로 결말을 맺고 있다. 그러나 공산주의든 자본주의든 둘 다 경제주의라는 시대정신이 낳은 쌍둥이였고 사상적으로는 공히 물질주의의 지배를 의미한다. 이와 같이 물질주의가 지배한 20세기를 거치면서 인류문화는 점차 상업적인 문화로 변질되었다.

이제 문화는 상품으로 전락하고, 상품가치가 문화의 가치를 결정한다. 과거에 문화는 경제와 무관한 분야였으며, 오히려 재정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였다. 그러나 현대의 대중문화는 산업의 한 분야로서 거대한 경제규모를 가진 고도의 부가가치산업으로 각광을 받기에 이르렀다. 비디오나 카세트, CD는 끝없는 복제를 통하여 손쉽게 이익을 취할 수 있고, 텔레비전이나 컴퓨터의 대량생산과 대량보급은 곧장 시청료나 광고료, 정보료나 판매수입금과 비례한다. 대중매체의 보급이 천문학적이기 때문에 대중문화의 경제규모도 가히 상상을 초월한다. 이러한 대중문화의 상업성은 자연히 대기업이나 정부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21세기를 '문화의 세기'라고 부르는 데는 경제적인 관심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대중문화는 오락이나 흥행 뿐 아니라 의식주와 같은 인간의 기본생활에서도 현대적 패턴으로 정착되고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공장에서 생산한 음료나 식품을 먹고 마시며, 한 디자이너가 제작한 한 패턴으로 같은

148) Ibid., 31-32.



공장에서 만들어낸 같은 옷을 입고 다니며, 같은 설계사와 같은 건축회사가 지은 같은 아파트에서 같은 기구와 색상 속에서 살아간다. 이러한 대중문화란 과거에는 불가능한 것이었다. 현대에는 과거의 오랜 신분적 질서가 파괴되고 산업을 통한 부의 축적과 자본주의적 힘의 질서로 재편됨에 따라 거대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었으며 급격한 신분상승을 위한 경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경쟁은 현대사회를 매우 역동적으로 만드는 한편 문화형태를 매우 위험하게 만들기도 했다. 문화는 산업화되어 거대한 시장으로 변모하였고 따라서 거기에 종사하는 문화인들은 부에 대한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인기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다. 텔레비전이나 영화, 음악 등 모든 현대문화는 시청률과 판매량에 관심을 집중시킨다. 이런 자본주의 논리와 기회주의적 인기조작은 대중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경제적 치부와 신분상승을 위해 대중의 기호를 조작하고 죄악성을 부추기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한다.<sup>149)</sup>

셋째로, 대중문화가 의존하고 있는 테크놀러지의 문제이다. 현대문화는 과거의 문화와 연속성을 가지지만, 지난 수 천년의 인류문화와 근본적인 차이를 가지는 급진적인 문화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는 산업혁명에 의한 사회구조의 변화와 테크놀러지의 급격한 발전에 의해 급속히 형성되었으므로 기술문화(technological culture)라고도 부른다. 고대나 중세에도 테크놀러지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현대의 기계문명과 기술문화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발전을 보이고 있다. 기계와 기술의 발전은 자연히 관련매체를 사용한 문화의 발생을 가져왔다. 현대문화의 대표적인 예는 아마도 텔레비전이나 오디오, 또는 컴퓨터를 통한 문화형태일 것이다. 근대문화가 인쇄혁명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면 현대문화는 고도의 테크놀러지를 사용하는 전자제품에 의해서 발생하였고 계속 발전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기술문화는 대량생산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대중매체를 소유한 모든 대중이 문화를 공유하는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현대문화를 '대중매체 문화'라고도 부른다.<sup>150)</sup>

넷째로, 대중문화의 세속성이 부정적인 평가를 유발한다. 산업화는 도시화를 유발시켜 핵가족화와 대가족의 붕괴 그리고 급기야는 가족의 약화와 이혼의 급증이라는 기본공동체의 파괴를 가져왔다. 산업화는 또한 기계화를 통하여 사람의 삶을 종속시키고 문화 적응력을 약화시켰으며, 이는 여유와 자유를 제한하여 자연과 친밀한 인간

149) Ibid., 33-34.

150) Ibid., 35-36.

적인 삶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자연은 파괴되고 인간의 정서는 고갈되며 마음은 조작 당한다. 진리와 지혜는 사라지고 지식과 정보만이 남는다. 현대인은 군중 속의 고독을 느끼며 문화의 홍수 속에서도 진정한 문화에 목말라 한다. 테크놀로지의 놀라운 발전은 모든 것을 상품화하고, 그것을 즐기면서도 진정한 기쁨이나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 인간은 테크놀러지와 기술문화로 만족하지 못하며 진정한 문화의 회복을 갈망한다. 미국의 사회학자 피터 버거(Peter Berger)는 기술문화가 필연적으로 '집을 잃어버린 느낌'(feeling of homelessness)을 불러일으키며 이것이 현대문화의 내재적 한계라고 주장한다. 즉 현대인은 삶의 의미를 상실하고 살아간다는 견해이다.

## 2. 뉴에이지 운동의 문화적 침투

그러면 이런 대중 문화에 뉴에이지 운동이 어떻게 침투되고 있는가? 문화란 “기술과 물질 문화인 문명을 제외하고 자연을 이용해 인류의 이상을 실현한 것이나 정신적인 분야인 과학, 예술, 정치, 법률, 사회, 경제, 풍속과 종교문화 등 인류의 정신적, 사회적 소산”<sup>151)</sup>이라고 김용욱은 말했다. 즉 뉴에이지 운동이 문화에 미친 현황을 보면 ‘세계평화’를 위한 지구촌의 세계정부 수립의 목표로서 지구의 사람들을 포섭하며 조정해 왔다. 문화란 이름으로 우리에게 깊숙이 침투해 있는 뉴에이지의 해악성을 살펴보고 그 대안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 가. 음란성문제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눈’에 자극을 보내는 것일 것이다. 그래서 ‘아이 쇼핑’(eye shopping)이라는 말도 생겨난 것이고 보면 인간은 성욕뿐만 아니라 소비욕구 또한 주로 눈을 통하여 자극 받는다. 소비사회에서 광고가 점점 자극적이 되고 섹시한 여자들을 모델로 등장시키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 대표적인 현상이 인간의 신체를 소재로 하여 에로티시즘을 표현한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여성의 속옷 선전이 아닌, 직접적으로 여성의 육체와 상관없는 상품광고까지 여성의 섹시한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다. 이명자는 “패락의 자극에 의해 또는 욕망과 생산

151) 김용욱, “문화 속에 침투한 뉴에이지 운동,” 목회와 신학, 1992년 9월호, 56.

의 조작에 의해 문화적 통제를 가하여 자본주의는 인간이 몸까지 생산력 발전에 이용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이 욕망체계에까지 그 문화적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sup>152)</sup>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런 소비문화에 의해 사람들, 특히 여성들이 소외되는 것은 미인대회나 모델 선발대회가 여성들에게 육체를 무기 삼아 인생을 승부하려는 신데렐라의 환상, 하루아침에 스타가 되고 싶은 욕망, 육체의 상품화를 미화하고 예찬하도록 몰아가기 때문이다.<sup>153)</sup>

#### 나. 텔레비전

내용상의 문제가 음란성이라면 그것을 대표적으로 드러내는 매체는 텔레비전이다. 텔레비전의 영향을 말할 때 그 내용보다 오히려 텔레비전이라는 매체 자체에 대해 결정론적인 입장을 취하는 시각들이 있다. 미디어 학자 마셜 맥루한(M. McLuhan)은 한 시대의 문화는 그 시대에 어떤 커뮤니케이션 매체가 중심을 이루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매체결정론을 제시했다. 그에 따르면 텔레비전을 비롯한 영상매체가 중심을 이루고 있는 사회의 인간들은 영상매체를 닮아 그 이전의 문자시대의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특징을 나타낸다고 한다.

문자가 중심이 되던 시대의 인간들은 문자적 특성을 닮아 논리와 질서를 선호했던 데 비해 영상 중심의 사회에서는 영상매체의 특성에 따라 비논리적, 사고기피, 감성 중심의 경향을 보이고 전체적으로 빠르고 화려하고 가볍고 흥미로운 것을 좋아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텔레비전과 함께 자란 요즘 청소년들에게 매우 극명하게 드러난다. 이른바 X세대들이 갖는 특징이 영상매체의 특성과 매우 흡사하다는 사실은 맥루한의 주장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sup>154)</sup>

그러면 텔레비전이 가져다 주는 문제가 무엇인지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첫째, 현실과 허구의 혼동이다. 텔레비전의 중요한 특징중의 하나는 우리에게 유사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것이다. 텔레비전에 장시간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은 간접체험은 확대되고 직접체험은 감소되어 현실과 허구의 세계를 구분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152) 이명자, “이상화된 몸, 아름다운 몸을 위한 사투”, 사회비평 (가을 1997).

153) 강영안, 김연종, 신국원 외, 대중문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 148-150.

154) Ibid., 196.

특히 텔레비전이 비추는 세계를 현실로 인식하기가 쉽지 않다. 그뿐만 아니라 책에 비해 실감나는 영상 이미지를 제공하기 때문에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텔레비전이라는 창문을 통해 보여지는 세상만을 보면서 마치 그것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된다. 또 그렇게 받아들인 정보로 세상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는 때로 경험해 보지 못한 세계에 대한 편견으로 이어지기 쉽다. 특히 세상에 대한 직접 경험이 지극히 적은 청소년들이 텔레비전 속에 비친 세계와 실제 세계를 구분하지 못하리라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두 번째는 대인관계의 변화이다. 텔레비전에 지나치게 몰입해 있는 시청자들은 타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이나 평범한 교제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조사결과가 있다. 또한 기계 친화성이 높으면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하여 고독감을 느끼기 쉽다는 주장도 있다. 비디오게임을 즐기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비디오게임을 자주 하는 아이들은 사회적 규칙에 무관심하고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다른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 감정과 의사를 서로 나누는 것을 골치 아파하며 그렇게 하려는 마음도 없다. 정면대결이나 승부를 하지 않으며 그 자체를 싫어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친구를 가려서 사귀고 싫어하는 친구는 절대 상대하지 않는다. 또 크게 싸우는 적도 별로 없고 자신의 생각을 말로 전달하는데도 그다지 관심이 없다고 한다. 비현실적인 영상 속의 등장 인물들과 자주 접촉하다 보니 현실에서 다른 사람들과 상호 작용하면서 획득해야 할 사회적 능력을 학습하지 못하고 사회적 발달이 저해되는 것이다.

세 번째는 현실인식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텔레비전이 제공하는 간접체험이 증대됨에 따라 현실인식이 약화될 가능성도 크다. 특히 타인의 아픔을 내 것처럼 공감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된다. 어떤 일에 대한 직접체험은 그 인상이 선명하게 각인되어 그 후에 발생하는 간접체험을 마치 직접체험인 것처럼 실체화하는 기초가 된다. 가령 실연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런 내용의 책이나 드라마를 볼 때 마치 자신의 일인 것처럼 느끼게 된다. 그러나 간접 체험의 경우에는 그러한 동일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몇 년 전 페르시아만 전쟁이 터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텔레비전에서 중계해 주

는 실전의 상황을 마치 비디오게임을 보듯이 즐겼다는 보고가 있다. 즉 아무리 비참한 전쟁이라도 그 광경을 편안한 소파에 앉아서 보는 것은 간접체험이기 때문에 실감이 전혀 나지 않는 것이다.

미디어를 통한 간접 체험이 증가하면 미디어가 자신의 환경을 둘러싸는 간접적인 커뮤니케이션에 둘러싸여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타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의도적으로 차단하거나 회피하는 인간을 말한다.

네 번째는 고정관념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것은 미디어의 스테레오 타입 기능을 지칭한다. 텔레비전이 무의식중에 사람들에게 세상과 인간에 대한 고정된 이미지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대부분 다른 사람들, 특히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며,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고 싶어한다. 그런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가장 손쉬운 수단이 바로 텔레비전이다. 그런데 여기에 비친 세상 자체가 제한적이고 편파적인 모습일 때 문제가 발생한다.

텔레비전에서 묘사하는 인간의 모습은 심하게 왜곡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상적인 남성상과 여성상은 모두 출중한 외모와 체격조건을 갖춘 것으로 그려지고 장애인들이나 노인들은 무가치하고 불필요한 인물로 묘사되는 기독교인의 이미지는 결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없다. 고리타분하고 융통성 없는 모습, 텔레비전에서 보여주는 대표적인 기독교인의 모습이다.<sup>155)</sup>

#### 다. 광고

뉴에이지가 대중 문화에 미치는 것은 단지 텔레비전이라는 매체뿐만 아니라 광고라는 또 하나의 수단을 활용한다. 광고는 상업적으로 궁극적인 목표 즉 상품의 궁극적인 판매라는 의도를 지닌다. 상품이 상품으로서 스스로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사용되어 그 사용가치를 실현시키는 것이며 이를 위해 소비자에게 선택되는 것이 자유경쟁 시장구조에서는 필수적이다. 포장과 광고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은 이 시점이다. 수많은 상품과 동종 품목들 중에서 구매를 결정하는 것은 사용가치가 아니라 사용가치의 약속으로 변화하고 있다.

상품의 가치를 보장받을 때 구매 행위가 이루어지며 사용가치의 약속은 구매자

155) Ibid., 198-200.

의 동기 유발을 끌어내야 한다. 동기 유발은 소비자 각각의 상이한 욕구, 개인의 정체성 형성 과정에 기초하여 수립된다. 상품미학의 효과는 수용자를 통해 이루어지지만 한편으로는 수용자에게서 효과적인 재료를 찾아내어 조형된다. 사회의 반영이 이루어지면 한편으로 사회의 이데올로기가 만들어지는 것도 여기에서 비롯된다.

광고는 일차적으로 상품판매의 촉진 과정에서 특수한 관념이나 가치관을 선택하여 문화적인 형식으로 제시하게 된다. 상품광고는 관념, 태도, 동기, 꿈, 욕망, 가치 등을 다루고 말과 이미지에 의해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 즉 의미화하는 실천을 통해 이들에 문화적 형식을 부여한다. 상품광고의 의미와 가치는 텍스트 자체로부터 연원되는 것이 아니라 생산과정과 텍스트, 텍스트와 수용과정의 상호작용을 통해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소비자가 특정한 상품을 사거나 서비스를 취득하는 것은 물건을 사는 것일 뿐만 아니라 어떤 이미지를 사는 것이기도 하다. 그 이미지는 더 나은 삶에 대한 신념과 희망으로 구성되어 있다.

광고는 지각을 조직하고 의미 구조를 창조하기 위해서 고안된 메시지 체계이다. 광고주들은 시청자의 실생활과 대중매체로부터 사회 문화적 의미를 추출하여 상품의 의미관계 속에 조합하여 시청자에게 제시하는 이미지 속에 끼워 넣는다. 이런 의미과정은 모든 광고의 기본적인 과정이며, 이러한 기초적인 의미과정이 상품과 아이디어를 연결하는 기본적 광고의 틀이다. 광고주는 광고에서 소비자가 잘 알지 못하는 상품이라는 기표를, 의미 있는 기호로 전환시킨다.

그러나 광고는 상품 이외의 것들에 대한 평가, 규범 및 명제도 직접 간접적으로 전달한다. 광고는 시청자에게서 광고주가 원하는 해독을 최대화하기 위해 어떤 틀을 발전시키는데 그 틀은 상품의 세계를 사회적 관계의 세계로 변환시키는 구실을 한다. 광고는 일종의 사회화의 역할을 수행하며 일정한 방향으로 현실을 구성하는 것이다.<sup>156)</sup>

광고는 그 영향력을 기존질서를 선호하는 방향으로 동원하는 특성이 있다. 그 까닭은 광고가 새로운 사회에 관한 주장이 아니라 단순히 현재 존재하는 사람들에게 상품을 파는 도구일 뿐이라는 상품광고의 특수한 지위와 구실 때문이다. 광고의 역할은 결코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다. 광고라는 신비체계는 개인적 차원에서 시작되

156) Ibid., 209-211.

지만 이것이 신비 유형으로 기능하면 사회전반에 확산된다. 현대사회의 소비 이데올로기에 경종을 울릴 이유는 여기에 있다. 또한 자본주의 체제가 갖는 개인주의 철학이 다양한 개인의 집합체가 아니라 획일화된 다양성이어서는 안될 것이다.<sup>157)</sup>

광고의 소재는 무한하다. 상품 그 자체뿐만 아니라 전통문화와 반항문화, 자연과 도시의 아름다움, 감성과 시각을 자극하는 이미지, 개혁과 전통의 목소리, 환경문제와 여성해방까지 각단의 논리와 이미지들이 모두 광고의 재료가 되어 가공되고 생명력을 갖고 태어난다. 언론이나 문화에 드러나는 선정주의는 주류문화의 코드, 관행, 이데올로기에 저항하는 저항 문화적 표현양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이런 형식들은 주류에서 잉태되고 이제 저항하거나 반하는 형식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대안문화 형태로 파급되기도 한다.<sup>158)</sup>

### 3. 현대문화에 요구되는 윤리적 반성

대중 문화에 스며든 뉴에이지 문제는 우리에게 윤리적 반성을 요구한다. 인간의 존엄한 인격적 가치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숙고적인 반성에 있다고 생각한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나의 욕망의 실현이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았는지 묻는 것이다. 인간이 자신만의 쾌락이 아닌 이웃의 안녕까지 생각할 줄 아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미덕이자 존엄한 인격인 것이다. 바로 이러한 책임 있는 삶을 위해 우리는 현대 문화에 대한 윤리적 반성을 해야 한다. 반 퍼슨은 인간의 과학을 셋으로 분류한다. 자연과학, 생명과학, 문화과학이 그것이다. 각각은 지식, 기술, 윤리를 근간으로 한다. 우리가 아는 대로 종래의 지식과 기술은 가치 중립적인 것으로 종교나 윤리로부터의 독립을 추구해 왔다. 지식을 통하여 비합리적인 주술로부터 해방을 경험하였고, 기술은 자연을 정복해 나갔다. 그러나 인류는 산업사회 이후로 수많은 윤리문제들을 야기 시켰다. 그러므로 이제 인류가 공존하기 위해서는 총체적인 의미에서 문화에 대한 윤리적 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학문분야인 문화과학은 인간과 더욱 가까운 위치에서 인간자체를 다룬다. 문화전락을 제대로 세우려면 비판적 평가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다른 과학과 마찬가지로 문화과학 안에서도 윤리적 반성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의사

157) Ibid., 211-212.

158) Ibid., 211-213.

이자 신학자이기도 했던 ‘아프리카의 성자’ 슈바이처는 이미 오래 전에 ‘윤리와 문화’의 긴밀성을 말했다. 그의 논문 “문화와 윤리”에서 삶의 의지 속에서 발생하는 삶에 대한 외경은 서로 내면적으로 연결된 세계 긍정과 삶의 긍정윤리를 내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나아가 인간의 정신적인 가치를 중요시하는 삶의 외경은 교회가 보호해야 할 가치이며 삶에 대한 외경은 종교사회의 이상을 향한 교회의 변혁을 도모할 수 있다고 말한다. 다음 인용은 현대국가의 ‘물신성’을 경계하는 슈바이처의 통찰력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진공 속에서, 혹은 기독교인들만의 공동체에서 살고 있지 않다. 오히려 다른 문화가 우리주위를 포위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대국가의 소비문화는 더 이상 이웃을 위한 절제와 배려를 생각하지 않고 ‘자유’의 극대화란 명목으로 개인의 쾌락을 모든 가치관의 중심으로 몰아간다. 이에 편승한 성의 상품화와 성 해방, 성 정치 운동들은 음란한 문화를 만들어가고, 한편에서는 상업성이란 명분으로 노골적 폭력을 담은 문화상품들을 쏟아내며 기독교인들의 윤리관을 공격하고 있다. 이에 대한 방어와 공격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sup>159)</sup>

## 제 2 절 뉴에이지 운동의 대중문화 침투에 대한 실태 분석

뉴에이지 운동이 대중 문화 가운데 특히 영화와 음악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구체적인 실태를 살펴보고 부정적인 해악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 1. 영화

#### 가. 스티븐 스피버그의 뉴에이지 영화

1987년 1월 14일자 미국의 영화 잡지 버라이어티(Variety)지에서 영화 ET의 흥행 수입이 228,379,346.00달러라고 발표했는데 이러한 대기록을 앞질렀던 감독이 전에도 없었고 후일에도 없을 것이라는 것이 영화계의 일반적인 견해였다. 입장료 수입으로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으뜸이고 다음 ‘ET’, ‘스타워즈’(Star Wars), ‘사운드 오브 뮤직’(Sound of music) 순이라고 전한다.

159) Ibid., 155-157.



오늘날 할리우드 오락 영화의 추세가 공상 영화에 기울고 소년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가 현저한 가운데 피터팬 신드롬이 영화계에 만연하는데 그 뿌리는 스피버그의 상업적성공과 맥락을 같이한다. 아무리 화제작이라도 극장 앞에 줄지어 서 있는 것은 연소자뿐이어서 어느새 영화는 연소자를 위한 오락이라는 관념이 정착했고 동시에 비디오의 보급으로 성인 영화나 이른바 예술 영화는 소극장으로 밀려가는 판국이다.

할리우드의 가장 현대적인 흐름과 감각을 대표하는 스피버그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면, 그의 영화는 뛰어난 연출로 영화를 영화 본래의 재미로 되돌렸고 어릴 적에 누렸던 꿈과 환상, 공포, 경이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모험의 흥분을 만끽하게 할뿐만 아니라 세계와 인간을 따스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있다고 한다. 이런 점이 술한 공상 영화와 구별되고, 그의 영화를 어린이 용이라 비난하더라도 질의 우수성을 부정하지 못하는 까닭이라는 것이다. 1987년도에 스피버그는 세금을 가장 많이 낸 예능인 중 5위로, 마돈나나 마이클 잭슨보다 앞서 있다. 또한 영화감독으로는 10위안에 든 유일한 사람이다.<sup>160)</sup>

스티븐 스피버그가 영화 속에 현대인의 감각에 맞추어 유에프오가 등장하도록 영화를 만들어 낸 것은 그의 선견지명을 말한다고 한다. 신비영화 전문가 대니 피어리의 공상영화 안내 가이드에서는 ET야말로 우주에 어울리는 놀랄만한 창조물을 등장시켜서 고통받는 동물에 대한 동정을 보내는 호소력이 있는 영화이며 성인들을 향한 호소력 있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이다. 심리학자 캐롤 와인버그에 의하면 인간은 완벽한 어떤 존재를 그리게 되고 결국 ET를 통해서 완전한 인간상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sup>161)</sup>

#### 나. 뉴에이지 영화의 문제점

##### (1) ET

지구 이외의 생명의 증거를 고의적으로 계속 추구하는 이유는 첫째, 그것이 진화론 철학을 지지한다는 점이다. 진화론자들의 주장대로 지상 생명체의 발생이 자연적인 화학 합성의 산물이라면 동일한 우연발생이 항성계에서도 일어났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지구만이 인간의 거주지라고 가르친다. “하늘은 여호와와 하늘이라

160) 김호, 뉴에이지 운동, 173-174.

161) USA Today, 17 February 1992, 4D.

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도다”(시 115:16).

태양과 달은 지구에 빛을 주기 위해서(창 1:15) 특별히 만들어졌다. 다른 유성들의 창조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창조주의 무한한 능력과 위엄을 반영하는 것이고 또 장차 올 시대에 지구와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구속계획이 완성된 후에 하나님에 의해서 더 구체적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 바른 견해이다. 다신론의 특징이 되고 있는 별 숭배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 속에서 사탄을 추종한 천사들에 대한 숭배이다. 열왕기하 17장 16절에서는 별과 그 천사들의 동일시가 가능하다. 인간보다 더욱 우수하고 진화된 ET가 있다는 이야기는 성경 어디에도 없다.

영화 ET는 악귀와 같은 얼굴을 한 우주 생물로 하여금 사람의 병을 고치고 마음을 읽고 언어 없이도 의사소통을 하며 공중에 떠오르기도 하는 등, 신만이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하며 심지어는 죽음과 부활의 장면까지도 삽입하는 반 기독교적인 뉴에이지 영화이다. 역시 스티븐 스피버그의 작품인 '제3의 종류와의 조우'(Close Encounters of the Third Kind)는 외계인들과 UFO를 등장시키는 것도 그렇지만 외계에서 온 초능력자에 의하여 지구에서 선택된 인간들이 총동적으로 이들과 평화협정을 맺고 합동 회의를 개최한다는 내용으로 불가사의한 세계에서 온 영혼의 지배자로부터 모임에 초청 받으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뉴에이지 신봉자들의 생각을 그대로 드러낸다. 특히 ET에서는 심장이 멈추고 죽어버린 ET가 플라스틱 가방에 넣어진 후에 ET에게서 황금빛 광선이 솟아나며 다시 살아나서 은하수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비행 접시를 타고 우주로 돌아간다. 이런 공상과학 영화는 뉴에이지 신봉자들이 사실로 받아들이고 이런 메시지를 널리 퍼뜨리는데서 문제가 된다.<sup>162)</sup>

## (2) 미녀와 야수

돈 한(Don Hohn)에 의해서 디즈니사에서 만화영화로 만들어진 미녀와 야수는 3개의 골든 글러브 상을 수상했고 1991년 오스카상의 후보 5편의 영화 중 하나로 추천되었다. 1991년 11월 5일 개봉된 이 영화는 역사상 처음으로 만화영화로서 아카데미 작품상 후보에 올라서 화제가 되었고 만화영화 흥행상 어려움의 통념을 깬 영화이다. 미국 시장의 극장 수입은 8,440만 달러로 기록되었고 1991년에만 개당 24달러 99센트

162) Ibid., 182-184.

의 비디오 테이프가 1,420만개가 팔렸고 1992년에는 1,700만개의 비디오가 거의 매진되었다는 것이다.<sup>163)</sup>

마법에 걸린 흉칙한 모습으로 변한 야수가 한 소녀와 사랑을 나눈다는 이야기인데 반인반수가 등장하여 신을 원망하며 사회에 예속되지 못하고 지하에 숨어 하나의 지하 조직을 형성해 나감으로써 하나님의 창조원리와 사회화에 정면 도전을 하고 있다. 남자나 여자가 아닌, 즉 인간이 아닌 짐승의 형상인 또 다른 인간인류를 하나님은 결코 창조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불량품을 만들지 않으신다. 이 영화에서처럼 반인반수의 존재가 인정되고 그러한 야수와 사랑도 아름답게 느껴질 동성의 여지가 있다면 남자와 여자의 중간인인 중성의 존재도 인정하게 될 수 있으며 동성연애자도 공공연하게 인정받게 될 것이다. 이 영화는 반인반수나 중성이란 있지도 않으며, 그리고 있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존재가 있다고 믿으며 자신의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고 자신들에 대한 타인의 비난을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려버림으로써 신을 저주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경에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니라”(신 22:5)고 기록되어 있다. 이 성경말씀은 인간의 본성을 거역하려는 인간의 외형적인 혼돈에 대하여 경고하시는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중성은 없으며 특히 반 짐승, 반 인간이란 있을 수가 없다. 남녀의 자연적인 구별은 예절과 의복에서 보존되어야 한다. 서로가 자기의 성을 잃어버릴 때 자연적 구별은 파괴된다. 파괴된 행동은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시키고 뻔뻔스러운 기만으로 통하는 길을 열어준다. 하나님께서 창조질서를 보존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였으므로 반인반수는 성경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사탄의 장난이다. 사탄은 ‘공중의 권세잡은 자’(엡 2:2)로서 세상 모든 것을 타락하게 하고 멸망으로 이끌기 위해서 영화라는 그럴듯한 것으로 위장하여 현대인의 건전한 정신을 불안정한 심성으로 바꾸어 나가고자 하는 것이다.<sup>164)</sup>

163) Syd Silverman, *Variety* (Los Angeles: Variety Press, Oct. 27, 1992), 94. *LA Times*, 28 October 1992.

164) 김호, *뉴에이지 운동*, 182-185.

## 2. 음악

1960년대 젊은이들의 우상이었던 비틀즈가 마하리쉬를 추종하면서부터 팝송은 전세계의 젊은이들에게 뉴에이지 사상을 전파하는 도구가 되어 버렸는데 힌두교, 불교 동양철학 등에 바탕을 둔 서정성 깊은 명상음악과 록, 헤비메탈 등의 음악에서는 '지옥으로 가는 고속도로'와 같은 노래도 있다.<sup>165)</sup> 사탄은 모든 음악을 통해서 자신이 찬양 받으면서 기뻐하고 있다.<sup>166)</sup>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역사에 대해 너무 무지한 상태에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어떤 사람들은 사탄은 상징적인 단어이지 살아 역사하는 인격체가 아니라고 주장한다.<sup>167)</sup>

### 가. 오지 오스본 음악

필그림 뉴에이지(Pilgrim's New Age)라는 안내 책자에서는 뉴에이지 가수로서 가장 먼저 오지를 들고 있다.<sup>168)</sup> 본명이 존 미첼 오스본인 오지는 1948년 12월 3일 영국 버밍검의 아스톤에서 태어났으며 네 명의 자매와 세 명의 형제가 있었다.

오지는 세계최대의 레코드 회사인 CBS에서 성경을 만들고 책표지에 갈고리 십자가를 표시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한다는 뜻이다. 오지가 못에 걸고 다니고 또 책상에 둔 커다란 십자가에는 236개의 조각들이, 벽에 걸어 둔 십자가에는 108가지의 조각들이 붙어 있다. 그 조각들은 예를 들면, 해, 달, 토성, 목성, 화성, 코끼리, 뱀, 공자, 간디, 부처, 마리아, 히틀러, 구루, 예수님, 말, 늑대, 전갈, 비너스, 눈, 나비, 닭, 물고기, 여우, 개, 소, 기러기, 십자가, 박쥐, 왕관, 반달, 사람 심장 등 뉴에이지를 상징하는 모든 것이다. 이것은 그가 뉴에이지 음악가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며 그의 음반표지 그림들은 사탄 해골 모습이 주류를 이루는데 여기에서 사탄 숭배자로서 그의 모습이 드러난다.

### 나. 블랙 사바스(검은 안식일)

이것은 그 이름이 보여주듯이 흑마술을 따르는 사람들과 관계된 것이다. 흑마술

165) 이종일, 마지막 시대의 미혹 (서울: 무림서원, 1992), 234.

166) 김웅광, 영혼을 오염시키는 음악들 (서울: 국민일보사, 1992), 11.

167) 손종태, 팝음악에 나타난 사탄의 활동들 (서울: 크리스찬 서적, 1988), 73.

168) Alice, Pilgrim's New Age, 79.

(Black mass)이란 어둠의 세력과 제휴하여 실제로 사탄숭배 의식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사탄, 마귀, 귀신같은 초인적인 영의 매개체에 호소함으로써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여 신비한 무엇을 얻고자 하는 마술의 일종이다.

블랙 사바스 앨범 중에 악마들의 피의 축제(Sabbath Bloody Sabbath)가 있는데 이것은 사탄 숭배의 입회식 장면을 그린 것이다. 표지에는 겁에 질린 한 사람이 벌거벗은 채 누워 있고 주위에는 666숫자와 해골들의 웃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오지는 이 피투성이의 안식일에 대한 자신의 평가를 오지 경전에서 내리고 있다. 1973년 11월에 발표된 이 노래는 주위에 큰 충격을 주었다. 초청 연주자로 톱 웨이맨을 맞이하고 키보드를 대폭 도입시켰다. 대폭적으로 정리한 강한 사운드가 터져 나왔다. 이 앨범은 라이브 앨범 대신 제작된 것이다. 시(詩)도 그때까지는 그런 조짐만 엿보였던 것으로 갑작스레 혼돈의 세계에 발을 내디뎠으며 이 앨범에 의해 한층 더 긴장감이 더해졌다. 고차원의 시의 세계는 유럽의 전통적인 음유 시인의 작품을 연상시켜 준다.169)

#### 다. 뉴에이지 음악의 평가

뉴에이지 음악은 인간의 귀와 눈을 열어 주어 비전을 준다. 숲 속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을 열어 준다. 깊은 산의 아름다움을 보게 한다. 바닷가에서 끝없이 밀려오는 파도를 통한 영원성을 보게 한다. 우주에서 들려오는 영원한 소리를 듣게 한다. 이 소리는 자연적인 모든 것을 회복하고 치료하는 영원의 소리이다. 마음의 평안함을 주고 명상을 일으키고 스트레스를 없애주고 인간 본래의 평화스러운 상태로 인도한다.

뉴에이지 음악은 여러 가지 악기를 사용하며 고전 음악과는 다른 면이 있다. 또한 뉴에이지 음악은 상업적으로 성공을 거두었다. 전세계 레코드 판매량의 2퍼센트에 해당되는 3,500만 달러의 매상을 올렸다. 월 페이퍼(Wall Paper) 음악, 오디오, 유티뮤직(Yuppi Muzak) 등으로부터 비판을 받지만 뉴에이지 음악은 다른 음악을 비판적으로 보지 않는다.170) 그야말로 뉴에이지 음악은 놀라우리 만치 인간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뛰어난 음악이라는 것이다.

169) Ibid., 17.

170) Ibid., 67-69. New Age 심볼 그림으로 동시에 설명되어 있다.

대중음악 가운데 일찍이 록음악을 통해서 사탄은 자기의 존재를 사람들에게 알려왔다. 사탄은 사악한 모습을 그들의 노래가사, 액서서리, 분장, 무대장치 등을 통해서 나타냈다. 이 음악 속에 들어 있는 음란, 성적 폭력, 신비주의 요소들이 음악을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그러나 이 음악보다 더 무서운 것이 1980년을 기점으로 대중음악 체계에 나타났는데 그것이 바로 뉴에이지 음악이다.

이 음악은 철저히 반 기독교적인 것에 뿌리를 둔 음악이다. 시끄럽거나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모양이 아니라 부드럽고 섬세한 표현의 음악이다. 쉽게 들을 수 있는 음악이나 클래식 풍이나 종교음악 스타일로 찬송가를 편곡하기도 하다. 고급 음악수준으로 보여서 많은 사람이 선호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이 뉴에이지 음악은 철저하게 반 기독교적인 음악이다. 부드럽게 보이는 가운데 사탄의 음모가 숨어 있다. 이 음악의 목적은 인간 자신의 내부에 숨어 있는 신을 발견하도록 하고 인간이 신이 되도록 돕는데 있다. 철저한 인본주의의 모습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을 멀어지게 하고자 하는 흉계가 숨겨져 있다.

마음이 편해지고 스트레스가 없어진다고 하는 것은 사탄의 영적 세계에 깊이 들어가게 하기 위한 미끼일 뿐이다.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간 구원의 길을 거부하게 되고 멸망에 이르고 만다. 결국 뉴에이지 음악은 인간 내부에 있는 신적인 본질을 발견하도록 돕는 음악이고 인간성을 회복시키는 음악이라고 그들은 말하지만, 영혼을 파괴시키려는 사탄의 음모가 들어 있다. 뉴에이지 음악은 음악 이상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말이다.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반대하는 움직임과 인간을 하나님이라는 신적인 위치까지 끌어올리려는 고의적인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그래서 영혼이 상처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 하나님은 인간이 진화한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도 인간이라는 거짓 진리와 인간은 모두 신이라는 거짓 사상을 담은 위험스러운 음악일 뿐이다.<sup>171)</sup>

### 3. 뉴에이지와 기호

십자가(†) 표시를 보면 누구든지 ‘아! 교회구나’ 혹은 기독교라는 생각을 떠올리

171) Gary Bonnel, *Ascension* (Edmonton: Richman Rose Publishing, 1990), 17. 여기서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지 않았다고 한다.

게 되고 ‘+’(만)을 보면 불교, ‘卍’(적십 십자가)를 보면 히틀러를 비롯한 나찌스를 떠올리게 된다. 이와 같이 기호(상징)를 여러 집단에서 자신들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삼고 있으며 이 기호에는 가장 중요한 기본 원리가 감추어져 있다. 이런 점에서 현대의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관심이 되는 것은 말세에 나타날 적 그리스도의 표시인 ‘666’이다. 요즘 ‘666’의 표적으로 가장 오해되는 것이 컴퓨터의 바코드이다. 우리가 상점에서 물건을 사다 3737725보면 상품 뒤에 굵기가 다른 여러 가지 선이 찍혀 있는 것으로, 이것은 ‘POS SYSTEM’(상품관리의 한 방식)이라는 현대의 유통구조 관리의 표시다. 마찬가지로 이 책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뉴에이지 운동에서도 여러 가지 기호를 사용하고 있다. 별표, 삼각형, 피라미드, 뱀 등의 여러 가지 기호는 특히 현대인들에게 고대의 주술적인 모습으로 느껴지기 안성마춤이다. 여기서 모든 기호를 다 다룰 수는 없겠지만 일단 뉴에이지 운동에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기호와 그 뜻을 살펴보도록 하자.

<그림 1> 뉴에이지 운동의 대표적인 기호 1



이것은 둥근 원에다 중앙에 한 점이 있는 표시다. 먼저 원은 영원한 코스모스(Cosmos)를 나타내는 것으로 아직 잠을 자고 있는 상태의 ‘에너지’가 눈을 뜨고 우주의 여러 체계가 만들어지기 이전의 상태를 말하며, 우주의 신성한 통일을 나타내고 있으며, 여기에서 모든 것이 시작하며 나타나고 이곳으로 돌아가는 ‘우주대영’을 나타낸다. 둘째로, 원 안에 있는 한 점은 ‘우주대영’ 휴식기인 프라파야(Prafaya) 속에서 분화(分化)를 시작한 상태를 나타낸다. 그것은 세계의 란(卵)이라는 알 속에 있는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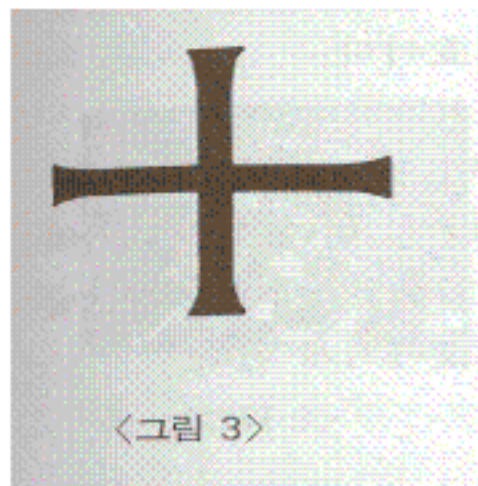
나의 점으로, 우주가 되며, 모든 것이 되는 것이고, 끊임없는 것으로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코스모스를 만들어가는 알 속의 눈인 것이다.

<그림 2> 뉴에이지 운동의 대표적인 기호 2



뉴에이지 운동에서 사용하는 기호 중에 기독교의 십자가와 비슷한(혹은 똑 같은) 모양이 있다. 이것은 뉴에이지 운동이 기독교를 수용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상의 의미에서 십자가와는 전혀 다른 의미를 나타낸다. 위 그림의 원안에 있는 십자가 모양은 <그림 1>의 상태에서 '세계의 란'(卵)이 진화하여 음(陰) 성질을 나타내는 - 와 양(陽)성질을 나타내는 +가 되며 이것이 곧 이 세상을 나타내고 이때 비로소 인류는 제3 근본 인종에 이르게 되었다. 이것은 인간생명의 기원을 나타내는 표시가 되는 것이다.

<그림 3> 뉴에이지 운동의 대표적인 기호 3





이 그림은 원주를 뺀 +만이 남은 것으로, 물질로서의 인간이 내려오는 것이 끝나고 제4 근본 인종이 시작함을 표시한다. 즉 무한한 '아트마'(영)를 지닌 새로운 인류의 시작을 의미한다.

〈그림 4〉 뉴에이지 운동의 대표적인 기호 4



뉴에이지 운동에 나타나는 각종 도형은 우주적 질서와 규칙적인 의미를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이 중에서 삼각형은 암흑을 쫓아내는 광명과 역동적인 창조력을 나타내며 상향의 삼각형( $\Delta$ )은 시바(남성원리)를 나타내고 하향의 삼각형( $\nabla$ )은 샵티(여성원리)를 상징한다. 이런 모든 삼각형은 결국 원으로 진화해 가게 된다. 그래서 흔히 삼각형 기호에는 삼각형 내, 혹은 주위나 중간에 원을 삽입한 모양이 많이 등장한다.

〈그림 5〉 뉴에이지 운동의 대표적인 기호 5



이 모양은 뉴에이지 운동의 가장 중요한 기호로 일명 '차크라' 라고 한다. 차크라란 인간속에 내재하는 정신적 에너지가 머무는 곳을 말하며 인간 영혼에는 6개의 차크라가 있다. 특히 차크라란 <그림 4>에서 말한 시바(△)와 삭티(▽)가 서로 결합한 형태로 이 속에서 우주와 영혼 에너지는 최후에 서로 융합하고 영혼의 힘으로 변하는 해탈의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 즉 차크라 기호는 인간영혼의 무한한 능력과 인간의 우주합일-인신(人神)이 됨-을 상징하는 기호이다.

<그림 6> 뉴에이지 운동의 대표적인 기호 6



각종 기호 중에서 보면 원은 우주를 상징하며 연꽃 모양은 차크라에 나타난 에너지의 소용돌이를 상징하는 것으로 에너지가 상승할수록 연꽃잎의 수도 많아지게 된다.

<그림 7> 뉴에이지 운동의 대표적인 기호 7



태극기호는 도교(道敎)의 상징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뉴에이지 운동에서도 태극기호를 사용하고 있다. 태극의 흑과 백은 각각 여성원리와 남성원리를 나타내며 이것의 융합을 통해 우주가 이루어짐을 상징한다. 그림의 태극 안에 있는 작은 원은 <그림 1>에서 말한 '세계의 란'을 나타낸다.

<그림 8> 뉴에이지 운동의 대표적인 기호 8



<그림 8>

뉴에이지 운동 기호 중에 자주 등장하는 세 개의 눈은 인간의 영적 본질을 나타내는 것이다. 즉 인간의 육체적 두 눈으로 파악할 수 없는 우주의 본질은 오직 영적인 눈으로만 발견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기호이다.

<그림 9> 뉴에이지 운동의 대표적인 기호 9



<그림 9>

이 그림은 뉴에이지 운동에서 말하는 두뇌혁명과 관계된 것으로 인간이 잃어버

린 우측 뇌, 즉 영적인 능력을 발휘함으로 인간은 자연의 신비한 법칙을 발견하게 되고, 우주 대영과 하나가 되어 신의 경지에 이를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림 10> 뉴에이지 운동의 대표적인 기호 10



<그림 10>

피라미드는 고대로부터 지혜와 신비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고, 피라미드 속에는 신비의 지혜가 숨겨져 있다고 한다. 따라서 뉴에이지 운동에서 사용하는 피라미드는 고대로부터 전해오는 비의(秘意)와 지혜를 중요시하는 그들의 사상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11> 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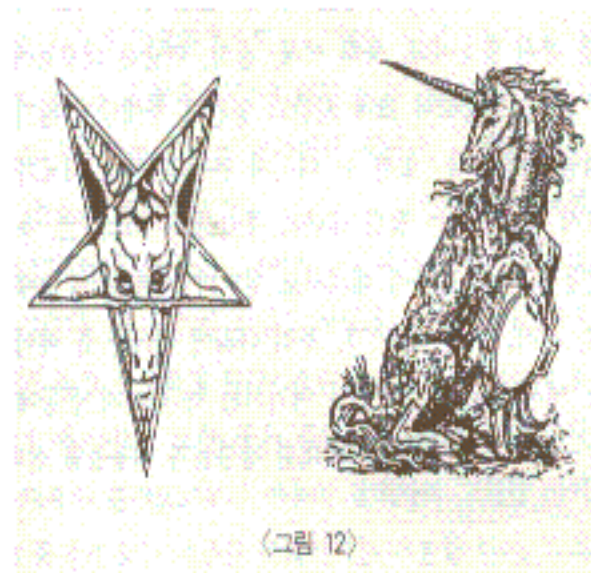


<그림 11>

이 뱀 모양은 뉴에이지 운동의 사탄주의에 대한 최대의 공격목표가 되고 있다. 성경에 사탄이 뱀으로 표현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뉴에이지 운동에서 사용하는

뱀 기호는 고대 인도에서 뱀신은 대지와 바다 보물의 파수꾼으로 제사나 의례 때에 행운과 길조의 표시로 마루방에 그려진 데서 유래하고 있다. 또한 뱀은 지혜의 상징이며 힌두교에서 말하는 우주 에너지인 '쿤달리니'(우주 에너지)를 상징하기도 한다. 특히 '쿤달리니'는 인간의 몸 속에 있는 6개의 차크라를 통과하여 인간의 영혼을 해탈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데 차크라를 통과하며 움직이는 모습이 마치 뱀과 같다고 하여 뱀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그림 12> 유니콘과 타루스



이 기호에 사용된 유니콘(뿔 달린 말)과 타루스(양머리)는 뉴에이지 운동의 비교적 특성을 나타낸다. 유니콘은 고대의 신비주의를 상징하는 기호이고 양머리는 연금술과 같은 비교의식에서 자주 등장하는 기호이다. 이런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뉴에이지 운동이 비교주의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우리는 뉴에이지 운동에서 사용하는 기호들을 살펴보았다. 물론 이것 외에도 많은 기호들이 사용되고 있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12가지 기호가 기본적인 의미들을 다 내포하고 있으므로 다른 기호들의 의미는 여기에서 유추해서 살펴보면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어쨌든 우리는 이상의 기호에서 뉴에이지 운동이 인간의 영적 능력을 강조하며 우주와의 합일을 추구하는 인신주의(人神主義)의 사상을 따르고 있으며 고대의 지혜를 비롯한 비교를 추구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sup>172)</sup>

172) 엠마오 편집부, 뉴에이지, 72-77.

## 제 6 장

### 뉴에이지 운동에 대한 교회의 대책 프로그램

#### 제 1 절 뉴에이지 운동에 대한 대책 프로그램의 필요성

##### 1. 뉴에이지 운동의 일반적 위협

###### 가. 단일 세계정부와 종교 추구

새 시대주의자들은 현재 국가 조직의 단순한 외형적인 변화만 가지고서는 새 세계가 성취될 수 없으며 근본적으로 정치체계를 정화할 수 있는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새 시대주의자들은 이 세계를 하나의 지구촌으로 보며 뉴에이지들의 주장처럼 '세계문화'라고 부르기도 한다. 대부분 새 시대주의자들은 그리스도가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고양된 상태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예수, 부처, 공자 누구든지 세계적인 위인이나 성인으로 추앙 받는 사람들은 모두 다 환생한 사람들이라고 주장한다. 첫 번째, 새 시대 세계종교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금세기 최대의 사건이 될 메시아의 강림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것이다.<sup>173)</sup> 사탄의 의도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분리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 사탄의 의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인류를 하나의 공동체로 통합시키자는 것이다. 세계 단일정부에 대한 음모가 바로 그것이다. 이 음모에 대한 역사는 꽤 오래 되었다. 뉴에이지들은 국제간의 분쟁과 자원고 갈의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발전을 효율적으로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로 통일된 경제체제 하에 인종, 종교, 성, 연령, 국가, 민족을 초월한 세계 단일 정부가 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단일 세계정부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먼저 인류가 하나가 되어야 하고 인류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종교가 가장 효율적이라 생각하여 단일 종교통합을 계획하고 있다.<sup>174)</sup> 새 시대 세계종교는 전 세계의 기존 종교체제를 거부하지 않

173) 신상연, 사탄은 마침내 대중문화를 선택했습니다 (서울: 낮은울타리, 1992), 76-77.

으며 사제들과 교회도 배척 당하지 않을 것이다. 단지 흡수되어 바벨론의 가증한 음녀의 종교가 되어 버리고 말 것이다(계 17:1).

뉴에이저들은 인류는 현재 새로운 질서로 재정립해야 할 시기의 문턱에 와 있으며 지금이야말로 새 시대를 여는 새벽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 중 한 사람인 베라 울더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모든 창조물 배후에는 실제로 어떤 계획과 목적이 있다. 이 세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하나의 세계조직, 하나의 세계경제, 하나의 세계종교이다. 즉, 그들은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하나의 권력을 이루기 위해 3가지 청사진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전 세계를 하나의 통일체제로 구축하려는 단일 세계정부의 실현, 둘째는 단일 세계정부를 실현하기 위한 단일 세계경제 체제의 건설, 셋째는 단일 세계를 하나로 결속하는 종교의 통합이다.<sup>175)</sup>

인류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방법은 인간의 잠재력을 개발함으로써만 가능할 것이며, 그 잠재력을 개발 할 수 있는 방법은 종교뿐이라고 뉴에이저들은 역설한다. 또한 사탄이 교회를 현혹시키는 최대의 전략 중 하나가 교회의 연합운동이다. 그들은 교회의 연합을 부르짖으면서 사실은 세계의 종교통합을 추구하고 있다. 그들은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편협되고 박애정신이 결여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4:6)라고 말씀하신다. 심지어 유대교, 이슬람교와 한국의 천도교, 불교까지 참여하는 교회 연합운동은 배도를 주도하는 운동인데 많은 새 시대주의자들이 세계교회협의회를 지지한다.<sup>176)</sup> 이처럼 세계정부와 종교통합은 뉴에이저 운동가들을 통해 비밀리에 서서히 현실화되어 가고 있다. 새 시대 신봉자들은 세계적인 대 스승이라고도 일컫는 메시아가 단일 세계정부와 단일 종교를 이끌어 갈 것이라고 믿는다. 그는 전 세계가 혼란과 파멸의 구렁텅이로 빠져드는 순간에 구세주로 나타나서 온 인류를 밝고 빛나며 영광스러운 새시대로 이끌어 갈 것이다. 사탄의 모조품인 거짓 메시아는 기적을 행하며 참 그리스도로 행세할 것이고 전

174) CANA-Club 연구회원, CANA 리포트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1992), 121-122.

175) Ibid., 122.

176) 이종일, 마지막 시대의 미혹 (서울: 무림서원, 1992), 230-231.

세계와 종교를 통치할 것이다.177)

#### 나. 적그리스도 위협

적그리스도는 지상에서 천하무적과도 같아서 과거의 어느 누구도 이룩하지 못했던 세계정복을 성취시키고 만다. 그는 세계최강의 지도자로 군림하며 어느 누구도 그의 힘을 저지할 수도, 맞서 싸울 수도 없게 된다. 대항하려는 모든 권세는 그에 의하여 파멸 당할 것이다. 적그리스도와 그의 부하들은 그들이 영원히 지속될 왕국을 건설했다고 생각하게 된다.178) 적그리스도는 군사적, 정치적, 독재자보다도 훨씬 더 사악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는 또한 전례 없는 공식적인 세계종교의 존경을 받고 숭배 받는 우두머리가 될 것이다. 그의 세계통합은 무엇보다도 사탄이 에덴동산 이래로 꾸며온 영적 사건이다. 이런 사실을 간과하는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의 진정한 의미를 놓치며 그를 숭배하도록 유혹하는 이 세상에 의한 미혹의 희생물이 될 것이다.179) 사도시대 이래로 역사의 다양한 시대 속에서 네로 황제, 로마 카톨릭, 나폴레옹, 히틀러 등을 실로 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성경에 묘사된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갖추지 못했다.180) 잘못 해석될 수 없는 표현으로 성경은 적그리스도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선언할 것이며 전세계, 곧 맑스주의자, 모택동주의자, 회교, 힌두교, 불교, 무신론자, 그리스도인 등 모든 사람이 이 놀라운 선언을 믿고 그를 경배할 것이라고 예언한다. 만일 적그리스도가 단순히 야심을 가진 세계 독재자라면 분명히 러시아인, 중국인, 아랍인, 서구 유럽인, 미국인 그리고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은 마지막까지 싸우지 않고는 적그리스도의 절대적 통치하에 복종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인류를 지배하는 적그리스도의 신비로운 권력에 대한 놀라운 비밀은 전 세계가 그를 하나님으로 경배할 것이라는 놀라운 사실에 있다. 경배하려면 경외심과 순종이 동반되어야 한다.181) 적그리스도의 새로운 세계종교는 과학적인

177) 신상언, 사탄은 마침내 대중문화를 선택했습니다, 77.

178) Chuch Smith & David Wimbish, 계시록의 숨은 비밀, 이요나 역 (서울: 도서출판 이레서원, 1995), 205.

179) Dave Hunt & T.A. McMahon, 기독교속의 미혹, (서울: 도서출판 포도원, 1991), 53.

180) Henry Morris, 마지막 때가 되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정동수, 서현정 역 (서울: 도서출판 말씀과 만남, 1993), 115.

181) David Hunt & T. A. McMahon, Ibid, 53-54.



것으로 생각될 것이다. 이 새로운 종교적 과학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라는 인류 자신의 신성의 경험으로 인류를 이끌겠다고 약속할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아직까지 베일 속에 가려 있지만 평화를 약속하며 다가올 것이다.

#### 다. 배교 위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주의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살후 2:1-3),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 날이 덧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눅 31:34-35). 다른 성경구절 뿐만 아니라 위의 성구들은 미래의 사건에 대하여 매우 냉혹하게 묘사하고 있다. 세계의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적그리스도의 통치에 장애물이 되고 미혹 당할 것이다. 다가오는 배교는 완전히 절정에 이를 것이다.<sup>182)</sup>

지상 최대의 배교집단인 로마 카톨릭은 지금까지 기독교 속에서 카멜레온처럼 기생해 왔다.<sup>183)</sup> 로마 카톨릭은 중세 암흑시대 동안만도 오 천 만 명이 넘는 성경신자들을 이단이란 명목으로 무참히 살해한 사실을 증거 한다.<sup>184)</sup> 그러나 말세의 배교는 로마 카톨릭보다 훨씬 더 지능적이고 교활함에 틀림없을 것이다. 새 시대 운동에 나타난 정신력이 보여준 무한한 인간의 잠재력이라는 거짓말은 새 시대에 대해 약속하는 놀라운 진리인 것처럼 보일 것이다. 이 거짓말은 정신의 기독교화된 과학(심리학)이 되고 있다. 정신과학은 몰몬교나 로마 카톨릭보다 더 큰 매력을 가지고 있다. 자아 발전을 위한 중립적이고 과학적이고 비종교적인 방법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이 사이비 과학과 동방종교의 혼합체는 의학, 기업, 심리학, 교육 그리고 교회와 기독교 사상계에서 신뢰를 얻고 있다.<sup>185)</sup> 세계의 수많은 석학들, 과학자, 심리학 박사과 심지어 교회 목사까지도 이 자아 숭배에 미혹되어 배교할 것이다.<sup>186)</sup>

182) Ibid., 67.

183) Martyn Lloyd Jones, 로마 카톨릭 사상 평가, 편집실 역 (서울: 도서 출판 안티오크, 1994), 41.

184) 박만수, 이강진, 이일배, 증거 I (서울: 도서출판 안티오크, 1993), 27.

185) Dave Hunt & T.A. McMahon, Ibid., 73.

186) 정상호, “뉴에이지 운동의 반기독교적 경향과 그 대처방안” (석사학위논문, 침례신학대학

## 2. 뉴에이지 운동의 교회 위협

뉴에이지 운동은 어떤 조직체를 구성하고 체계적으로 활동하는 운동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실체를 포괄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그래서 지금 사회 저변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사건들이 뉴에이지 운동인지 제대로 파악하기도 어려운 현실이다.

그러면 뉴에이지가 교회 안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뉴에이지자들은 교회의 머리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떠한 가르침을 하고 있는가는 교회 안에서의 뉴에이지 영향을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뉴에이지 주창자들은 인간 예수를 뉴에이지 사상을 가진 가장 훌륭한 선생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뉴에이지 사상가들은 예수님의 가르침, 특히 산상보훈에서 찾아볼 수 있는 복음을 예수님이 뉴에이지 교리를 가르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또 어떤 이들은 이 사실에 동의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뉴에이지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시 발견한 것으로 보고 있다.<sup>187)</sup>

뉴에이지 사상의 영향으로 인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범신론과 일원론 그리고 인간위주의, 복음서와 다른 진리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하여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중심주의인 '신본주의'에서 인간중심주의인 '인본주의'로 흐르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심리학적인 요소로서의 '자기암시' 또는 자기최면 그리고 비슷한 정신력과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믿음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시 말해서 신앙과 신념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뜻대로 바라보는 믿음으로서의 신앙이며 결코 인간의 지혜로서 생각하고 정신 통일하여 어떤 의지적 집합발산에의 힘을 믿는 신념이 아니다.

더욱이 뉴에이지 사상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적극적 고백이나 적극적 사고로 타락시킬 위험이 있다. 이 위험은 인간이 작은 신이며 따라서 창조적으로 말하는 능력, 즉 그의 말에 따라 선이나 악을 존재하게 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가르치는 형태로 나타난다. 적극적 고백은 선을 낳고 소극적 고백은 악을 창조한다는 것이다.

노만 빈센트 필(Norman Vincent Peale)은 뉴에이지 명상을 “한 걸음 더 나아간

교 신학대학원, 1996), 26-30.

187) 권옥경, “뉴에이지 운동과 그 영향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서울신학대학원, 1994), 36-37.

적극적 사고”라고 했으며<sup>188)</sup> 로버트 쉐러(Robert Schuller)는 훈련을 받고 있는 통일파 목사들(Unity Ministers)로 이루어진 청중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이 시대의 책임이 종교에 적극성을 부여하는 것(to positivize)이라고 믿는다. 현재 이 적극성은 여러분의 신도들에게 아마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은 통일파의 사람들이며 적극적이다. 나는 적극적이 아닌 집단들에서 많은 것을 이야기한다.”<sup>189)</sup> 뉴에이지의 교회 안에서의 영향은 적극적인 사상 즉 인본주의적인 사상뿐만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인간의 머릿속에 갖고자 하는 모든 것을 청사진으로 그려놓고 기도의 맨 끝에 결재만 해 주십시오 ‘믿습니다’로 끝나 버리는 것은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 요구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고 생각한다. 즉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 주님의 뜻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신의 계획된 생각 안에서 주님이 일하실 것을 명령하게 된다. 이럴 경우 어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대부분 자신의 신념과 의지에 따른 노력의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자신의 뜻하는 바에 따라 방언을 자유자재로 한다든가, 교회 밖의 기도원 아닌 기도원 형태로 가정제단이라는 것을 해놓고 문제를 갖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상담역할을 해주며 특별한 말씀을 주고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해 주는 일 등은 인본주의적인 사상의 발상이라 할 수 있다.<sup>190)</sup>

### 3. 뉴에이지 운동에 대한 교회의 인식 현황

뉴에이지는 생소한 용어가 아니다. 어제, 오늘 만들어진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정체를 모르고 있다. 뉴에이지의 위험성은 마치 살인수법 가운데 비소를 사용하듯이 밥이나 국에 타 넣으면 감쪽같이 오랜 세월 그를 말라죽게 하듯이 오늘날 새로운 문화에 목이 마른 젊은이들에게 접근하여 세계관을 변질시키는 독소를 지니고 있다. 세계관뿐만 아니다. 심령과학이나 유령의 존재 유무, UFO, 요가나 도, 명상이나 마인드 컨트롤, 점성술이나 이달의 운세, 초능력이나 신비주의 철학 등 실로 다양한 방법으로 현대인의 영적 진공상태를 파고 들어오는 계략이 숨어 있다.<sup>191)</sup>

188) Norman Vincent Peale, *Positive Imaging* (Revell, 1982), 1.

189) Dave Hunt, *The Seduction of Christianity* (Eugene: Harvest House), 153.

190) 권옥경, “뉴에이지 운동과 그 영향에 대한 연구”, 48-50.

표면상 뉴에이지 운동의 주체는 보이지 않는다. 이 운동을 이끌어 가는 사람이 눈에 띄지 않는데, 나타나는 현상이나 외치는 구호가 대부분 일치하는 기막힌 현상은 뉴에이지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당사자조차도 자신이 뉴에이지 운동의 한 일원임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 운동은 순수 기독교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의 집합체라고 보면 된다. 불교와 힌두교는 원래 서로 상반되는 입장이었다. 영매로 불리는 무당과 UFO연구자들도 상호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한 마리 갈매기의 이야기인 소설, 리처드 바크의 '갈매기의 꿈'과 공상과학영화 '스타워즈'가 무슨 연관을 가질 수 있겠는가? 그러나 뉴에이지의 물밀듯한 흐름 안에서 이들은 서로의 어깨를 부둥켜안고 하나가 되어 있다. 그리고 뉴에이지는 갑작스런 이들의 결탁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는 우리에게 영화로, 소설로, 음악으로, 미술로, 온갖 형태의 모습으로 조용히 다가오고 있다.<sup>192)</sup>

세계관으로서의 뉴에이지 사상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반 기독교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근본적으로 뉴에이지 사상은 인본주의에 그 바탕을 두고 있으며 고대 동양의 신비주의 종교들과 결합된 종교 다원주의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뉴에이지자들은 신을 우주적 에너지 또한 힘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받은 모든 생명체는 신의 단일체로 간주한다. 이러한 범신론 사상은 자연스럽게 인간의 신격화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인간과 우주가 합일되는 그 순간 바로 인간이 신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말한다. 그들은 인간과 우주의 모든 것을 선하다고 간주하기 때문에 뉴에이지 사상에는 죄 또는 악이라는 개념이 있을 수 없었다. 인간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구원 또한 있을 수 없었다. 그들은 현세와 내세를 단지 윤회의 틀 속에서 해석하기 때문에 구원을 통하여 이르게 되는 영원한 나라인 천국도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듯 뉴에이지 세계관은 많은 비성경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비기독교적인 세계관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뉴에이지의 사상의 유입을 완강하게 거부할 수 없는 것은 그 사상이 매력적인 문화의 옷을 입고 일상적 삶에 유입되기 때문이다. 때로는 사람들의 주된 관심 분야인 건강증진의 방법을 통하여, 또는 영화나 광고, 음악, 서적을 통하여 뉴에이지 사상은 유입되고 있다.<sup>193)</sup> 뉴에이지에 대한 교회의 인식도는

191) 신상언, 사탄은 마침내 대중문화를? (3판; 서울: 낮은올타리, 1999), 92-93.

192) Ibid., 94.

193) 신수정, "교회 청소년의 뉴에이지 영향에 관한 실태조사: 부산지역 교회를 중심으로" (신

많은 교회 내의 설문조사를 통하여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인식이 부족하고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지 못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어서 활발한 논의와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 4. 강력한 대책 프로그램과 교회의 자구적 노력의 필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이든 갖지 않은 사람이든, 생각 있는 사람이라면 현재 교회를 보고 이구동성으로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말을 한다. 분명히 오늘날의 교회는 소화불량이나 감기에 걸린 정도가 아니라 심각한 중병에 걸려 있다.<sup>194)</sup>

초대교회는 참으로 순수했다. 그들은 모든 재산을 공유하고 자기 필요에 따라 나누어 쓰며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다(행 2:45-46). 그러나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된 후 중세에 접어들면서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루터와 칼빈에 의해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교회는 다시 정화되었다. 종교개혁 이후부터 다시 교회는 자기의 본질을 상실하고 타락하게 되었다. 종교개혁의 핵심은 오직 성경과 만인제사장설에 있다.

만인제사장이란 글자 그대로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제사장이란 의미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을 통하여 구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sup>195)</sup>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중생했다면 지역사회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사회를 변혁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내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야합하고 세속적인 문화에 오염되고 변질되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끝끝내 자기 반성을 하지 않고 부패된 교회 속에서 자신의 정욕을 따라 산다면 잠잠히 휘몰아쳐 오는 뉴에이지 운동의 역풍을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고 말 것이다.<sup>196)</sup> 교회는 오늘날의 뉴에이지 운동의 역풍을 막기 위해서 초대교회의 공동체 삶을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 초대교회와 회중은 흩어지면 대중문화와 사탄의 노획물이 되기가 쉽다.

교제권 안에 있는 공동체 삶이야말로 신약교회의 독특성이다. 오늘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교회가 새로운 공동체로서의 자신의 존재를 인식

학석사 학위논문, 고신대학원, 1998), 82-83.

194) 박철수, 축복의 혁명 (서울: 도서출판 대장간, 1990), 11.

195) 엠마오 편집부, 뉴에이지, 182.

196) Ibid., 184.

하게 되며 예배를 통해 그 실재를 나타내 보일 것을 갈망하고 있다.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가 서로 유기적으로 작용하여 움직이고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이다. 뉴에이지의 물결이 더 강하게 일기 전에 교회는 자기비판을 통해 전열을 가다듬고 새로운 공동체의 모습으로 단장해야 한다.<sup>197)</sup> 공동체 생활은 모든 구성원들의 상호 신뢰를 통해 심화된다. 공동체란 모든 사람이, 아니 좀더 현실적으로 보아 대다수가 자기 중심이라는 그늘에서 빠져 나와 참된 사랑의 빛 속으로 들어가는 장소이다.<sup>198)</sup> 교회는 항상 함께 하는 삶이 교회의 본질 중 하나이다. 오늘날 대중 속에 점점 더 고독을 느끼는 교인들에게 초대교회의 공동체 삶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고 또한 제시하여야 한다. 공동체는 암흑의 세계에서 빛이 되고 교회와 온 인류에게 맑은 물을 제공하는 샘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크리스천 지도자들이 뉴에이지의 속임수의 본질을 이해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경계시키고 이런 속임수에 빠지지 않도록 교회 공동체를 강화하는 노력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우리에게서 공동체가 필요하다. 그것은 우리에게 놓인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이며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이다. 공동체란 사람들에게 힘을 공급해 주는 수단이다. 우리가 전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규범에 공동체적으로 순종하게 될 때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이다.<sup>199)</sup> 또한 그런 빛으로의 역할을 감당할 때 성령으로 충만해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게 된다. 성령의 주권적인 부흥의 역사가 개인의 신앙에서와 삶 속에서 일어나야 한다. 뉴에이지 운동의 영향은 교회의 세속화와 세상 사람들의 영적 타락을 부추기고 있다. 이러한 세속화된 세대에 교회와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권능 아래 영적으로 각성하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성령의 부흥운동이야말로 인류의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크리스천의 소망이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 때 타락한 이 세대는 치유될 수 있다.<sup>200)</sup>

197) Ibid., 189.

198) Jean Vanier, 공동체와 성장, 성찬성 역 (서울 :성바오로 출판사, 1985), 14.

199) 정상호, "뉴에이지 운동의 반 기독교적 경향과 그 대처방안" (석사학위 논문, 침례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1996), 34-36.

200) CANA-Club 연구회원, CANA 리포트, 143.

## 제 2 절 뉴에이지 운동에 대한 교회의 대책 프로그램

### 1. 대안 모색을 위한 제언

뉴에이지 운동은 분명히 현대인들에게 매력적인 운동이다. 그 이유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본주의적이라는 점이다. 인간은 본래 죄악된 존재이므로 하나님 없이 자율적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고자 한다. 뉴에이지 운동은 이러한 인간의 교만함과 자율적 경향을 예리하게 파고들어서 중독시키고 있다. 인간이 신이라는 것이상으로 인간이 좋아할 만한 것은 없다. 이제 인간은 자신이 신이라는 것이상으로 인간이 좋아할 만한 것은 없다. 이제 인간은 자신이 최고의 존재라는 망상 속으로 빠져들었다. 둘째, 한국은 정신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서구 문명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의 동양적 전통을 서서히 상실해 가고 있다. 이런 와중에 뉴에이지 운동이라는 사상이 유입되었다. 뉴에이지 운동은 서구에서 시작되었지만 그 사상적 뿌리는 동양의 신비주의이다. 그러므로 한국인들로서는 문화적 향수를 달래 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은 셈이다. 셋째, 뉴에이지 운동은 평화와 사랑의 정신으로 세계의 화합과 통일을 이루자고 주장한다. 평화, 사랑, 그리고 화합 등의 문구는 사람들을 매혹시키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평화와 화합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말하는 의미와 다르다. 우주 대영과의 합일을 이룬다는 의미에서의 평화와 화합인 것이다. 아뭏든 뉴에이지 운동의 평화와 사랑과 화합이란 구호는 사람들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는 데 성공한 것이다. 넷째, 뉴에이지 운동가들이 보여주는 신비한 능력이다.

이상에서 우리는 뉴에이지 운동이 현대인들에게 왜 그렇게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를 살펴 보았다. 한국에서의 활동은 아직 미약하지만, 그 운동이 갖는 매력적인 경향을 본다면 얼마 있지 않아서 서구의 경우처럼 큰 세력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들이 느낄 수 없을 뿐이지 이미 상당 부분 우리 문화 속에 침투해 왔다고도 볼 수 있다. 비교적 뉴에이지 운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부분은 서적과 음악과 만화인 것 같다.<sup>201)</sup> 그 외에도 각종 영상매체나 미술에서도 어느 정도 뉴에이지 운동이 갖는 경향성을 볼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뉴에이지적인 문화운동과 관련하여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지적하고자 한다. 첫

201) 도서출판 엠마오 편집부, 뉴에이지, 169-170.

째로, 기독교 계열의 뉴에이지 운동 비판가들이 뉴에이지 운동을 너무도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좀 과장되게 표현하면, 순수 기독교가 아닌 것은 모두 다 뉴에이지 운동이라는 것이다.<sup>202)</sup>

유령이 나타나는 곳에는 어디서나 뉴에이지의 물결이 넘실댄다는 식의 사고방식은 곤란하다. 우리는 뉴에이지 운동의 본질을 분명히 알고, 우리 주변에 나타나는 문화적 양상에 대하여 지혜롭게 대응해야 한다. 둘째, 기독교인들은 뉴에이지 계열의 서적이거나 영화를 보거나 음악을 듣도록 허락될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점이 문제시된다. 상당히 현실적이고 민감한 문제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반드시 금기시 해야만 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sup>203)</sup>

이제 뉴에이지 운동에 대하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하겠다. 무엇보다도 뉴에이지 운동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급선무이다. 뉴에이지 운동의 본질과 정체를 정확히 규명해 낼 때만이 성실하고 체계적인 비판을 수행할 수 있으며 바람직한 기독교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뉴에이지 운동에 국한된 기독교적 대응방안은 뉴에이지 운동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에 대한 체계적 비판을 수행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독교의 자기 정체성 확립이 모든 비 기독교적 운동에 대한 최선의 대응책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독교의 자기 정체성 확립이 기독교 세계관 정립과 교회개혁 운동의 두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자는 개인적 측면에서의 신앙관 정립을 말하고 후자는 사회적이고 구조적인 측면에서의 신앙관 정립을 말한다. 이렇게 전체적인 큰 틀을 간략 간략하게 제시하면서 뉴에이지 운동에 대한 기독교적 대응책을 함께 다루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뉴에이지 사상이 동양의 힌두교의 서구적 양태이기 때문에 기독교적 입장에서 동양사상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의 문제도 생각해 볼 것이다.<sup>204)</sup>

## 2. 교육적 대안

오늘날 현대인들은 많은 문제들에 직면해 있다. 인간이 본래적으로 가지는 존재

202) Ibid., 170-171.

203) Ibid., 171-172.

204) Ibid., 172-173.



에 대한 추상적인 문제에서부터 생활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작은 문제들, 세계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는 기아와 전쟁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현대인들은 미해결 숙제들을 안고 있다. 역사 속에서 거듭되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람들은 여러 가지 조약이나 과학문명의 발달에 의존해 왔다. 그러나 문제의 해결을 위해 사용되는 산업과 문명, 과학 등으로도 인간이 만족하고 안심할 만한 해답은 얻어지지 않고 있다. 뉴에이지들이 가진 공통적인 생각은 이러한 문제 해결의 열쇠는 신과 같은 외적인 초월적 존재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인간 자신에게 있다는 것이다. 뉴에이지 운동이 제시하고 있는 중심 메시지는 인간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이러한 인식을 기초로 인간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첫째, 전쟁으로 인한 세계적인 문제는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전 세계를 하나로 통일하여, 하나의 정부를 세우는 것이다. 둘째, 진정한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의 통합을 통해, 새로운 세계에 맞는 새 종교를 세워 인간이 가진 영성을 개발하고, 가장 진보된 지구촌 시민을 만들어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셋째, 세계의 빈부국에서 일어나는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의 모든 부를 재분배하는 새로운 경제적 시스템을 세우는 방법이 있다.

이러한 문제해결 과정에서, 교육은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한다. 특히, 진보된 인간과 그 인식의 개발에 있어 뉴에이지들은 공립학교에서의 교육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교육계에서도 현대 사회와 마찬가지로 소외, 만남의 부재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 이것에 대처하기 위하여, 인본주의 교육자들이 인간화 교육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이때까지 지식의 습득만을 강조하여 지정의가 고루 갖춘 전인에 대한 교육은 도외시하게 되었다. 뉴에이지 교육가인 루돌프 스타이너(Rudolf Steiner)는 지식만을 위주로 하는 교육에서 탈피하여, 살아 생동하는 예술로서의 교육을 주장하게 되었다. 특히 미국 공립학교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뉴에이지 교육의 교과과정은 지구촌교육, 가치명료화, 진화론 교육 등이 있는데, 뉴에이지 교사들에 의해, 학습자가 배우는 가치는 상대주의로 물들어 가고, 절대적인 가치는 무시되어 가고 있다. 현대의 사회가 가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로서의 인간에 대한 교육은 학습자의 잠재력 개발에 초점을 맞추게 한다. 당연히 교사의 역할과 권한은 크게 강화되고, 무엇보다도, 교사와 학생의 진정한 만남이 뉴에이지 교육의 교수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뉴에이지 교육가들은 현대의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잘 파악하여, 그런 교육 목적 하에서는 현대 사회가 가진 문제들을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알았다. 그래서, 새로운 인간, 새로운 국가, 새로운 세계에 살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교육이 요구된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의 현대교육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과 지적이 바른 해답을 갖고 있지는 않았다. 교사와 학습자간의 진정한 만남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칙을 계시해 보여 주는 하나님이 창조세계의 구조 속에 있지 않으면, 그것은 지정한 교육이 되기 힘들다. 뉴에이지 교육이 교육의 힘으로 뉴에이지 신조의 확산을 꾀하고 있는 것은 교육이라 정의할 수 없다. 교육의 힘으로 새로운 세계의 도래를 꿈꾸며, 뉴에이지 신조를 우상시 하게 만드는 것은 교화(indoctrination)라고 볼 수 있다.

기독교 교육의 과제는 학습자의 삶을 형성하는 일을 도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하나님의 창조세계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봉사하는 과업을 보다 더 잘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제를 잘 수행하기 위하여, 기독교 교육자들 자신속의 가장 깊은 확신들을 성경에 비추어 보아야 한다. 또한, 뉴에이지 신조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명확한 연구를 기초로 하여 뉴에이지 교육자와 교육사상에 대한 보다 깊은 연구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기독교 교육이 현대 교육의 허구성을 적극적으로 밝히고 그에 대한 대책으로 이 세대에 기독교 교육의 목적을 완성시켜 가는 노력을 더하는 것이다.<sup>205)</sup>

### 3. 문화적 대안

이미 우리는 뉴에이지 계열의 교육, 영화, 서적, 음악 등의 여러 형태의 문화적 양상들을 살펴보았다. 이런 문화적 흐름에 대처하기 위해서 몇 가지 자세가 필요하다.

첫째, 올바른 기독교 세계관을 정립해야 한다. 바른 구원관을 가져야 한다. 또한 교회와 세상, 육과 영혼을 분리하는 이원론도 극복해야 하며 역사적 정황에 따라 기독교신앙의 형태를 변형시켜 감으로서 시대적으로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 둘째, 바른 교회관이 정립되어야 한다. 교회가 거대화 되어가고 성직이 세습되는 것 같고 교회건축이 유행처럼 되어가며, 이웃사랑을 잃어가고 오히려 철저한 배타성을 고집하는

205) 이민경, “뉴에이지 운동과 교육” (석사학위 논문, 교신대학교 대학원, 1993), 63-65.

교회가 그 본질로, 종교개혁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교회가 먼저 자기 정체성을 찾고 복음의 본래적 의미로 돌아가지 않으면 이런 시대에 적응하기가 어렵다. 더 나아가 영성훈련과 시대에 맞는 교회교육은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집과 같이 흔들림이 없는 교회를 이루어 나가게 할 것이다. 셋째, 문화를 창조적으로 변형해 나가야 한다. 일반적으로 복음과 문화의 긴장관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다음의 세 가지, 즉 배타주의(exclusivism), 혼합주의(syncretism), 변혁주의(transformationism)가 있다.<sup>206)</sup> 타 문화 혹은 세속문화를 적대시해도 안되며 그렇다고 혼합해도 안 된다. 기독교적으로 창조적인 변형을 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서적을 통해서도 꼭 신앙서적이 아니더라도 신앙의 주제를 넣어 대중소설을 쓸 수 있겠으며, 찬송가나 복음성가가 아닌 대중 가요를 통해서도 기독교의 메시지를 전하면 되고, 영화도 목사나 순교자, 혹은 교회만을 영화의 제목으로 선택할 것이 아니라 대중영화 속에 잔잔히 흐르는 기독교의 요소가 더 설득력 있는 대중적인 선교가 되기도 할 것이다.

기독교와 복음내용이 아닌 모든 것은 다 뉴에이지로 보는 것은 잘못이다. 뉴에이지 운동은 비 기독교적이지만 비 기독교적인 것이 모두 뉴에이지 운동은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바람직한 기독교문화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현재의 사회, 문화를 창조적으로 소화하고 변형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하겠다. 더 나아가 바람직한 놀이문화 가정의례는 물론, 대중문화, 청소년 문화를 위해 기독교적 노력이 절실히 요청된다.

끝으로 기독교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으로 맹용길 교수의 말을 제시하고자 한다.<sup>207)</sup> 첫째, 기독교는 생명문화를 창출해야 한다. 현세와 내세를 하나님의 나라로 연결하며 생명의 의미에서 종교문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

둘째, 기독교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를 창출하여 창조질서와 보존의 질서를 통합할 수 있어야 한다. 뉴에이지 운동이 인간 잠재력을 개발하고 자유를 극도로 신장시키려 할 때 자기 중심적 개인주의 뿐만 아니고 표현주의와 감각문화에 휩싸여 방향을 상실하게 된다. 기독교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주창함으로써 생명문화와 연결하여 두 세계를 연결하는 일관성 있는 문화를 창출하여야 한다.

206) 김창근, "기독교 문화 형성을 위한 제언", 예수 그리스도와 문화 (서울: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 출판국, 1991), 153.

207) 맹용길, 기독교 윤리와 생활문화, 331-333.

셋째, 기독교는 믿음이 있고 생명으로 연결하여 정신을 세우고 하나의 방향으로 가게 하여야 한다. 뉴에이지 운동은 믿음을 요구하지도 않으며 인간의 잠재력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정신을 세우지도 않는다. 따라서 하나의 방향으로 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한다. 뉴에이지 운동은 균형을 상실한 자유를 찾고 있으며 정신이 필요 없는 경험을 중시하고 있다고 하겠다. 우리는 새로운 의식을 찾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신 삶의 약속과 규약들을 찾아 지키자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의식을 전환하자는 것은 새로운 의식을 만들어 내자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 돌아 그가 원하시는 것을 찾자는 것이다.<sup>208)</sup>

#### 4. 영성적 대안

“여호와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창 2:7)는 말씀에 나타나는 것과 같이 기독교의 영성 이해는 처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시작되어졌고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동떨어진 것이 아닌 삶 속에서 진행되어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존재이며 사건이다. 따라서 인간의 영혼은 결코 자연과학적인 관찰 대상물이나 인간의 제반 요소를 분석함으로써 파악되어질 수 있는 독립적인 존재 자체는 아니다. 그것은 철저히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로소 이해되어질 수 있고 접근 가능한 인격적인 실체인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개별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해되는 실체일 뿐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인격적인 사회성과 통전성을 가진 것이다. 또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제정하신 삶의 모든 제도에 대하여 응답하고 응답하여야만 하는 의미를 지닌 실체이다. 즉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것은 공동체적인 영성이라는 것이다.

기독교 영성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의 삶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체화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필생의 삶의 과정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기독교 영성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즉 기독교 영성은 첫째는, 성육신 하여 세상에 오셔서 사신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따르는 성도의 삶이요 둘째는,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정신을 따르는 삶이요 셋째는, 세

208) 최윤철, “뉴에이지에 대한 기독교윤리학적 이해” (석사학위 논문, 장로회 신학대학원, 1995), 58-60.

상 끝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그리스도와 지속적으로 교제하며 사는 삶이요 넷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하고자 원하시는 세상 속에 들어가 고난 당하는 사람들의 삶에 함께 참여하여 그들을 고난가운데서 구원하는 삶의 과정이다. 그러므로 기독교 영성은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요,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살게 하는 삶이요, 주 예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을 고난 가운데서 구원해 나가시는 지속적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다”(209)라고 요약할 수 있다. 복음주의적 영성의 특징은 이러한 면에서 다른 운동이나 사상, 종교의 영성과 확연히 구분된다. 그것은 마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 부처나 마호메트의 인격이나 행적과 확연히 구분되듯이 종교적인 비슷한 주장이 있을지라도 그 인격성에 있어서 확연히 구별된다.(210)

209) 오성춘, 영성훈련의 실제 (서울: 성지출판사, 1992), 46-47.

210) 최윤철, “뉴에이지에 대한 기독교 윤리학적 이해”, 46-47.

## 제 7 장

### 결 론

오늘날 그리스도의 교회는 2,000년의 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막강한 규모의 적과 직면하고 있다. 그리고 그 적군의 세력은 날이 갈수록 점점 확장되고 있다. 벤자민 크렘이 이끄는 뉴에이지 단체인 타라 센터는 1982년 4월 25일에 뉴욕, 워싱턴 DC, 런던, 파리의 일간지를 포함한 전세계 20여 개 주요 신문에 한 장 분량의 전문광고를 실었다. 그 광고는 대담하게도 마이트레야(불교의 미륵을 가르킴)라고 불리우는 뉴에이지 메시야는 현재 살아있으며 세계의 권좌에서 그의 정당한 권리를 누리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이였다. 그 광고는 “뉴에이지 운동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마이트레야를 수반으로 하는 세계 정부와 세계 종교를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타라 센터의 이 광고는 오늘날의 뉴에이지 운동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며 장차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어 갈지를 제시하는 대단히 심각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원래 뉴에이지 운동의 뿌리는 불교, 힌두교를 비롯한 동양종교이지만 이제는 이 물결이 서구 사회를 장악하고 다시 동양사회로 역류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일본에서는 스스로 뉴에이지 운동의 기수라고 자처하는 몇몇 서구인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미혹의 길로 빠져 들어가고 있다.<sup>211)</sup>

영화평론가 정재형은 “뉴에이지라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신비주의의 정신문명을 통해서 개화하려고 하는 운동이며 신비주의적인 가르침에 근거하고 있는 운동”이라고 볼 수 있으며 “지상의 삶을 훨씬 초월하는 새로운 영적인 능력의 개화가 현실화되는 시기임을 의미”<sup>212)</sup>한다고 월간 정신세계 창간 준비 특집호에서 말하고 있다. 이처럼 뉴에이지라는 용어는 신문, 잡지, 텔레비전 등에서 쉽게 접할 수 있고 매

211) 손종태, 두란노 목회 자료 큰 백과 24권, 952.

212) 정재형, “미지의 세계를 찾는 빛의 예술: 새 천년의 물결, 뉴에이지”, 정신세계, 1999년 11월호, 63.

우 매력적인 용어이다. 그러나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정체를 아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다. 이미 뉴에이지는 단순히 정치, 경제적, 종교적인 목표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이미 운동의 차원을 넘어 종교로서 존재하고 있다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뉴에이지 종교의 역사는 동방종교를 비롯한 다양한 종교의 혼합과 여러 문화적 배경과 사상적 배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 교회가 선교 2세기에 접어들면서 영적 위기를 느끼게 되는데 그 직접적 요인을 들라 하면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교묘하게 침투해 오고 있는 '뉴에이지 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는 서구 문명사회에서 진화론을 토대로 발전한 세속적 인본주의와 동양의 종교를 토대로 발전한 세속적 인본주의가 접목되면서 새로운 형태로 출현한 사탄의 전략이다.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류를 분리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배후에 깔고 있는 사탄의 교묘하고 사악한 전략이다. 이들의 의도는 주로 영화, 음악, 서적, 만화 등과 같은 대중매체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신이 아니고 인간 자신이 신이 될 수 있다는 원리를 제공한다. 또한 이들에 있어서 구원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회복이 아니고 인간 속에 잠재해 있는 신의 힘을 개발하여 신이 되는 것이 구원이라는 식으로 구원의 개념을 바꾸어 주고 있다. 이러한 생각은 우주는 본래부터 하나이며 각 인간은 모두 다 개체로서의 우주임과 동시에 개체적 인간의 모임이 바로 우주라는 범신론적 사고에서 시작된 것이다.

뉴에이지 운동의 유형은 요가, 명상, 마인드 컨트롤, 강신술, 최면술 등 동양 신비주의 종교에서 도입된 심령술로서 이러한 심령술을 직접 체험할 때 인간 속에 잠재해 있는 신의 힘을 느끼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며 그러한 신의 힘을 개발함으로써 신이 될 수 있다는 잘못된 자신감을 터득하게 되며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된다. 오늘날 세계는 심각한 공해로 인해 환경보존의 문제와 인구증가와 식량의 문제 그리고 핵무기 철폐의 문제, 경제협력의 문제, 국제간의 대립과 갈등의 문제 등 너무나 많은 공통적인 위기를 지니고 있다. 뉴에이지들은 이 공통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계 단일 정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세계 단일 정부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인류에게 가장 설득력이 있는 방법인 새로운 종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것이 곧 뉴에이지 운동이라는 것이다.

뉴에이지 운동은 현대인들의 생활 저변에 깊숙이 파고들고 있고 우리가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일반화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제 뉴에이지는 우리 생활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우리는 뉴에이지에 관련된 음악, 미술, 문학사상 등을 무의식중에 접하고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아무런 거부감 없이 뉴에이지의 치료요법을 경험하고, 그 종교의식에 참가하기도 하며 그 사상을 수용하기도 한다. 뉴에이지의 지배 사상은 그것에 일단 빠져들면 벗어날 수 없는 불가피하고 모호한 것이 된다. 그것은 르네상스 종교개혁만큼이나 막대한 영향을 문화 전반에 걸쳐 미치고 있는 것이다.<sup>213)</sup>

사탄은 이제 총이나 칼을 들고 정면으로 도전해 오는 것이 아니라 대중매체를 통해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뉴에이지의 심리요법을 투사하고 있다. 뉴에이지는 바벨론 문화가 부활한 구시대 종교이지 새 시대의 종교는 아니다. 문화의 모든 영역이 뉴에이지에 의하여 잠식되고 있다. 급격히 확산되는 뉴에이지의 문화적 영향력에 대해 기독교는 처음에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나 이제는 그것을 숙고하고 분석하여 폭로함으로써 그 실체를 밝히는데 진력하고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러한 일련의 대응책들은 극히 피상적인 것에 불과하다. 뉴에이지에 관한 연구는 수박 겉핥기 식에 그치고 있는 실정인데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연구의 목적이 성도들로 하여금 뉴에이지에 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추어진 사실들을 들추어냄으로써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데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제 뉴에이지 운동에 대한 단호하고도 강경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는가에 대해 성경적인 이해를 분명히 해야 하는데 성경은 대략 3가지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분리(Separation), 변형(Transformation), 보존(Conservation), 이것들은 뉴에이지에 대항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들이며 이들 3자간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우리는 결국 뉴에이지의 세력 앞에 굴복하고 말 것이다.<sup>214)</sup>

이상과 같이 뉴에이지에 대한 총체적인 결론에 기반을 두고 교회는 이제 위의 사실들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위에서 열거한 이런 사실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독교 교리에 대한 깊은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드러내며 교회 속에 범람하는 이런 속임수들과 거짓 가르침에 대항하기 위해 믿음에 대한 건전한 성경적

213) 김대진, "인본주의의 절정, 뉴에이지 운동", 기도생활, 2000년 4월호, 24.

214) Douglas R. Groothuis, "뉴에이지 운동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왜 뉴에이지에 사람들이 매혹되는가 (서울: 예영 커뮤니케이션, 1994), 132, 134.



기초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우리는 또한 원수의 역사를 분별하고 이런 미혹의 그물에 걸려들지 않도록 하나님께 성령의 은사들을 구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주목해야 하며 그리스도의 선재, 성육신, 우리를 위한 메시아와 중보자로서의 그의 독특한 지위 그리고 이 세대의 마지막에 심판을 위해 다시 오심과 같은 중요한 교리들을 이해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sup>215)</sup> 그리고 뉴에이지 시대에 그릇된 사상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뉴에이지들을 향한 복음의 전달자로서 준비해야 할 우선적인 덕목은 기독교 세계관을 갖추는 일일 것이다.<sup>216)</sup>

---

215) 권옥경, “뉴에이지 운동과 그 영향에 대한 연구”, 79-81.

216) 이경희, “초능력, 점성술, 마술 등으로 접근하는 뉴에이지, 어떻게 할 것인가”, 37.

## 참 고 문 헌

## 1. 국내서적

- 강건일. 신 과학은 없다(상): 뉴에이지 사이언스에 관한 최초 비평서. 서울: 지성사, 1998.
- \_\_\_\_\_. 신 과학은 없다(하): 뉴에이지 사이언스에 관한 최초 비평서. 서울: 지성사, 1998.
- 강영안, 김연중, 신국원 외. 대중문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 서울: 예영 커뮤니케이션, 2000.
- 경문선, “뉴에이지 운동의 영성 고찰.” 신학석사학위논문, 총신대 신학대학원, 1996.
- 곽용화. 당신은 뉴에이지와 그 음악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서울: 낮은울타리, 1995.
- 국진호, “뉴에이지 운동에 대한 기독교적 비판.” 신학석사학위논문, 침례신학대 신학대학원, 1993.
- 권옥경, “뉴에이지 운동과 그 영향에 대한 연구.” 신학석사학위논문, 서울신학대 신학대학원, 1994.
- 김웅광. 뉴에이지 운동의 정체. 서울: 국민일보사, 1992.
- 김원중, “뉴에이지 운동에 대한 그리스도교적 고찰.” 신학석사학위논문, 광주 카톨릭대 대학원, 1995.
- 김창건. “기독교 문화형성을 위한 제언”, 예수 그리스도와 문화. 서울: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출판국, 1991.
- 김 호. 성경의 입장에서 본 뉴에이지 운동.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5.
- 김형균. 세상에서 가장 신비로운 이야기. 서울: 동쪽나라, 1992.
- 김희성. 왜 뉴에이지에 사람들이 매혹되는가. 서울: 예영 커뮤니케이션, 1994.
- 문상희. 종교란 무엇인가?. 서울: 분도출판사, 1982.
- 박민수, 이강진, 이일배. 즐거 I. 서울: 도서출판 안티오크, 1993.
- 박영호. 뉴에이지 운동 평가. 뉴에이지 운동 비판 시리즈 1. 3판; 서울: 기독교 문서

- 선교회, 1992.
- \_\_\_\_\_. 뉴에이지 운동과 영매술. 뉴에이지 운동 비판 시리즈 8. 서울: 기독교 문서선교회, 1992.
- \_\_\_\_\_. 뉴에이지 운동연구. 뉴에이지 운동 비판 시리즈 6. 재판, 서울: 기독교 문서선교회, 1994.
- \_\_\_\_\_. 뉴에이지와 청소년 문화. 뉴에이지 운동 비판 시리즈 3. 서울: 기독교 문서선교회, 1995
- 박철수. 축복의 혁명. 서울: 도서출판 대장간, 1990.
- 백봉초 편. 티베트 사자의 서. 서울: 경서원, 불기 2535.
- 변선환. “나의 신학수업.” 종교다원주의와 한국적 신학-변선환 학장 은퇴기념 논문집.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2.
- 서정은. “종교 다원주의와 기독교선교”, 종교다원주의와 포스트 모더니즘. 서울: 제3세계 신학연구소, 1992.
- 손갑선, “뉴에이지 운동이 청소년들의 신앙생활에 미치는 영향.” 신학석사학위논문, 서울신학대 신학대학원, 1998.
- 손남영, “뉴에이지 음악이 청소년들에게 끼친 영향과 실태 조사: 시내 중, 고등부 학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손종태. 팝 음악에 나타난 사탄의 활동들. 서울: 크리스찬 서적, 1988.
- 송준섭. 현대문화와 텔레비전이라는 굴레. 서울: 선한이웃, 1993.
- 신상언. 사탄은 마침내 대중문화를 선택했습니다. 서울: 낮은 울타리, 1992.
- \_\_\_\_\_. 대중문화 최후의 유혹. 서울: 낮은 울타리, 1993.
- \_\_\_\_\_. 대중사탄문화에 대한 보고서. 서울: 낮은 울타리, 1995.
- \_\_\_\_\_. 뉴에이지에 대한 연구와 대책. 재판, 서울: 낮은 울타리, 1998.
- \_\_\_\_\_. 사탄은 마침내 대중문화를? 3판; 서울: 낮은 울타리, 1999.
- 신수정, “교회 청소년의 뉴에이지 영향에 관한 실태 조사: 부산지역 교회를 중심으로.” 신학석사학위논문, 고신대 대학원, 1998.
- 심진송. 신이 선택한 여자. 서울: 백송, 1996.
- 안점식. 세계관과 영적 전쟁. 서울: 죠이선교회 출판부, 1995.

- 오성춘. 영성훈련의 실제. 서울: 성지출판사, 1992.
- 유동식. 한국신학의 광맥. 서울: 전망사, 1982.
- 윤석기, “뉴에이지 사상의 사적 전개와 현대문화.” 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1999.
- 윤성범. 기독교와 한국사상. 서울: 기독교서회, 1983.
- 이미동, 김윤근. 신인합일. 서울: 대원출판사, 1993.
- 이민경, “뉴에이지 운동이 청소년들의 신앙생활에 미치는 영향.” 신학석사학위논문, 서울신학대 신학대학원, 1998.
- 이종필, “뉴에이지 사상과 기독교 청소년 문화: 영향과 그 대안 연구.” 신학석사학위논문, 총신대 신학대학원, 1999.
- 이종일. 마지막 시대의 미혹. 서울: 무림서원, 1992.
- 이원규. “종교다원주의 상황과 한국교회”, 종교 다원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 서울: 제3세계 신학연구소, 1992.
- 장순일. 크리스찬 록 음악의 함정. 서울: 미완성.
- 전호진. “복음주의 관점에서 본 종교다원주의.” 종교 다원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 서울: 제3세계 신학연구소, 1992.
- 정상호, “뉴에이지 운동의 반 기독교적 경향과 그 대처 방안.” 신학석사학위논문, 침례신학대 신학대학원, 1997.
- 정운돈, “뉴에이지 운동에 나타난 영성에 대한 복음적 고찰.” 신학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 신학대학원, 1994.
- 조덕영. UFO와 신비주의. 서울: 도서출판 두루마리, 1997.
- 조성노. “종교 다원주의 신학.” 최근 신학 개관. 서울: 현대신학연구소, 1993.
- 조혜정. “학교를 거부하는 아이, 아이를 거부하는 사회.” 또 하나의 문화, 1997.
- 최윤철, “뉴에이지에 대한 기독교 윤리학적 이해.” 신학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 신학대학원, 1995.
- 황영현. 사탄의 선교전략. 서울: 예영 커뮤니케이션, 1998.

## 2. 번역서적

- Barkly, Oliver.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IVP 편집부 역. 서울: 한국 기독교 학생회 출판부, 1991.
- Blavatsky, Helena Petrovna. 신지학의 열쇠. 임길영 역. 서울: 상록, 1990.
- Breck. 뉴에이지 운동과 환생. 뉴에이지 운동 비판 시리즈 7. 박영호 역. 서울: 기독교 문서선교회, 1992.
- Brinkly, Daine. 죽음 저편에서 나는 보았다. 김석희 역. 서울: 정신세계사, 1996.
- Burger, Peter. 종교와 사회. 이양구 역. 서울: 종로서적, 1981.
- Chrishunamurty. 자기로부터의 혁명 1, 2, 3. 권동수 역. 서울: 범우사, 1992.
- Ellul, Jacques. 뒤틀려진 기독교. 편집부 역. 서울: 대장간, 1992.
- Ferguson, Marilyn. 의식 혁명. 정성호 역. 서울: 민지사, 1982.
- \_\_\_\_\_. 뉴에이지 혁명. 김용주 역. 서울: 정신세계사, 1994.
- Fromm, Erich. 그리스도의 교의. 이창우 역. 서울: 양서각, 1984.
- Groothius, Douglas R. 뉴에이지 운동. 김기영 역. 서울: 한국 기독교 학생회 출판부, 1993.
- \_\_\_\_\_. 뉴에이지 운동 정체. 뉴에이지 운동 비판 시리즈 2. 박영호 역. 재판. 서울: 기독교 문서 선교회, 1995.
- Hari Das, Baba. 성자가 된 청소부. 류시화 역. 서울: 정신세계사, 1989.
- Homes, Arthor. 기독교 세계관. 이승구 역. 서울: 엠마오, 1991.
- Hunter, Dave & McMahon. 기독교 속의 미혹. 이요나 역. 서울: 도서 출판 포도원, 1991.
- Lantzcofsky, Quinter. 종교사 입문. 박태식 역. 왜관: 분도출판사, 1997.
- Lloyd Jones, Martin. 로마 카톨릭 사상 평가. 편집실 역. 서울: 도서출판 안티오크, 1994.
- Maclaine, Shirley. 명상으로 위기를 넘어. 정경숙 역. 서울: 일월서각, 1985.
- Martin, Walter. 뉴에이지 이단 운동. 뉴에이지 운동비판 시리즈 5. 박영호 역. 서울: 기독교 문서 선교회, 1992.
- Middleton, Richard & Brian Walsh. 기독교 세계관과 문화 변혁: 그리스도인의 비전.

- 황영철 역. 서울: 한국 기독교 학생회 출판부, 1992.
- Morris, Henry. 마지막 때가 되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정동수, 서현정 역. 서울: 도서 출판 말씀과 만남, 1993.
- Murgesy, Azitt. 탄드라. 김귀산 역. 서울: 동문선, 1991.
- Niebuhr, Richard. 그리스도와 문화. 김재준 역. 서울: 대한 기독교서회, 1991.
- Olson, W Robert. 좋은 생각이 난다. 양도기 역. 서울: 정신세계사, 1994.
- Pagels, Elaine. 성서 밖의 예수. 방건웅, 박희순 역. 서울: 정신세계사, 1989.
- Prophet, Elizabeth. 예수의 잃어버린 세월. 황보석 역. 서울: 동국, 1987.
- Rajneesh. 배꼽. 박상준 역. 서울: 장원, 1991.
- \_\_\_\_\_. 죽음의 예술. 변지현 역. 서울: 청하, 1991.
- Redfield, James. 천상의 예언. 김옥수 역. 서울: 한림원, 1994.
- Riplinger, G. A. 뉴에이지 성경 역본들. 서울: 말씀 보존학회, 1999.
- Rose, Ron. 뉴에이지 운동. 이재하 역. 서울: 도서 출판 은성, 1996.
- Sambaba, Padma. 티벳 사자의 서. 라마 카지 다와삼듬 역. 에반스 윈츠 편. 류시화 역. 서울: 정신세계사, 1995.
- Schlink Basilea. 왜 뉴에이지에 사람들이 매혹되는가?. 반 뉴에이지 신서 3. 김희성 편역. 서울: 예영 커뮤니케이션, 1992.
- Showilmann, Erich. 빠빠라기. 최시립 역. 서울: 정신세계사, 1990.
- Sire, James. 기독교 세계관과 현대 사상. 김현수 역. 재판. 서울: 한국 기독교 학생회 출판부, 2000.
- Steman, R. 초심령의 세계. 임종한 역. 서울: 조선문화사, 1993.
- Vain, Mcdonald. 티벳의 성자를 찾아서. 박영철 역. 서울: 정신세계사, 1987.
- Vanier, Jean. 공동체와 성장. 성찬성 역. 서울: 성바오로, 1995.
- Vernett, Jean. 뉴에이지. 이재숙 역. 서울: 성바오로, 1997.
- Cliff, Walles B. 융의 심리학과 기독교. 이기춘 역. 서울: 대한 기독교서회, 1984.
- Weber, Robert. 기독교 문화관. 이승구 역. 서울: 엠마오, 1990.
- Buttler, W. E. 초감각 투시. 유기천 역. 서울: 정신세계사, 1994.
- Wise, Brian. 전생 요법. 김철호 역. 서울: 정신세계사, 1995.

Yogananda, Parmahansa. 영혼의 스승들 요가난다(상, 하). 김정우 역. 서울: 정신세계사, 1987.

### 3. 외국 서적

Alice. Pilgrim's New Age.

Bhaktivedanta, A. C. Bhagabad-Gita. New York: Thebhaktived Book Trust, 1972.

Bonnel, Gary. Ascension. Edmonton: Richman Rose Publishing, 1990.

Canfield, Jack and Paula Kilmek. "Education in the New Age." New Age. February 1978.

Copra, Fritjof. "The Tao of Physics." The Turning Point.

Clark, David K. & Norman L. Geisler. Apologetics In the New Age. Baker Book House Company, 1990.

Cott, Jonathan. "Knots, Trangles, Frangles & Whirligigs." Rolling Stones, 30 August 1973.

Cooper, John. "The New Age": a False but Attractive Religion." The Banner. October 1989.

Corinne, Heline. New Age Bible Interpretation. Santa Monica: New Age Bible and Philosophy Center, 1961.

\_\_\_\_\_. The New Age Bible, Vol 1. Santa Monica: New Age Center, 1990.

\_\_\_\_\_. New Age Bible Interpretation Genesis. Santa Monica: New Age Press, 1992.

Creme, Benjamin. The Reappearance of the Christ & the Masters of Wisdom. London: The Tara Press, 1980.

Fox, Matthew. The Coming of the Cosmic Christ. New York: Harper & Row, 1988.

Fromm, Erich. You Shall be as God. Greenwich: Fawcett Publisher, 1996.

Galyean, Bererly. "Meditating with Children: Some Things We Learned." AHP News Letter. August/September, 1980.

- Groothius, Douglas. "Politics: Building an Interpretational Platform." The New Age Rage. ed. Karen Hoyt & J. Isamu Yamamoto, Old Tappan. New Jersey: Revell, 1987.
- \_\_\_\_\_. Confronting the New Age. Downers Grove, Ill: Inter Varsity Press, 1988.
- Henry, Carl F. God, Revelation & Authority 4 vols. Waco: World Books. 1979.
- Hick, John. The Problem of Philosophy.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67.
- Hunt, Dave. The Seduction of Christianity. Eugene: Harvest House.
- Jones, Peter. Groostic Empire Strikes back. New York: Presbyterian & Reformed Publishing, 1992.
- Keys, Donald. Security Alternative. AHP Perspective, December 1985.
- Kjos, Berit. Your Child and the New Age. Wheaton: Victor Books, A Division of Scripture Press Inc., 1990.
- Klein, Jeffrey. "Esalen Slides of the Cliff." Mother Jones. December 1979.
- Küng, Hans. The Church Maintain in Truth. New York: Vintage Books. 1982.
- Lewis, C. S. Miracles. New York: Macmillan, 1947.
- \_\_\_\_\_. The Problem of pain. New York: Macmillian, 1962.
- Light, Leoline L. Reincarnation. San Diego: Point Loma Publications, 1975.
- Maclaine, Shirley. Out of Limb. New York: Bantam Books, 1983.
- Marrs, Texe. Dark Secrets of the New Age. Illinois: Cross Way Book, 1993.
- Maslow, A. H. The Father Research of Human Nature. New York: Penguin, 1976.
- Mills, Joy. Foreward in Virginia Hanson. ed. Karma, The Universal Law of Harmony. Wheaton, Ill.: Theosophical Publishing House, 1975.
- Mumford, Lewis. The Transformation. New York: Harper & Row, 1972.
- \_\_\_\_\_. The Transformations of Man. New York: Harper & Row, 1972.
- \_\_\_\_\_. The Problem of Pain. New York: Macmillan, 1962.
- Newport, John P. The New Age Movement & the Biblical Worldview.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98.



- Nida, Eugene & Smailly, William. Introducing Animism. New York: Friendship Press, 1957.
- Niebuhr, H. Richard. Christ & Culture. Yale University Press, 1951.
- Osbourne, Ozzy. Bible of Ozzy. Tokyo: CBS Sony Group Inc, 1988.
- Paternster, Michael. Reincarnation—a Christian Critique. Christian Parapsychologist, September 1979.
- Pagles, Elaine. The Gnostic Gospels. New York: Vintage Book, 1981.
- Peale, Norman Vincent. Positive Imaging. Revell, 1982,
- Righter, Caffol. The Astrological Guide. New York: Putnam's Sons, 1969.
- Robert, Jane. The Seth Material. Englewood Cliff, New Jersey: Prentice-Hall, 1970.
- Rogers, John. New Age Bible, New Brunswick. Inner Light Publications, 1992.
- Roseman, Deborah. Meditating with Children. Boulder Creek: University of the Trees Press, 1975.
- Rozak. Where the Westland Ends, xv.
- Satin, Mark. New Age Politics. New York: Dell, 1979.
- Silverman, Syd. Variety. Los Angeles: Variety Press, 27 October 1992.
- Smith, Titus. Living in Philosophy. New York: D. Van Nostrand Co., 1974.
- Spangler, David. Explorations: Emerging Aspects of the New Culture. Forres: Findhorn Publications, 1981.
- Summers, Jodi. Metal Edge, Vol. 37 New York: Edge Press, 1993.
- Swihart, Philip J. Reincarnation, Edgar Cayce, and the Bible. Downers Grove, Ill: Inter Varisity Press, 1978.
- Thien-An, Thich. Zen Philosophy & Practice. Emeryville: Dharma College Publishing, 1972.
- Toffler, Alvin. The Third Wave. New York: Bantam, 1981.
- Wambach, Helen. Lecture in Palo Alto. 15 July 1979.
- Yogananda, Yogi. Los Angeles: Self Realization Publishing, 1979.
- Zukav, Gary. The Dancing Wu Li Masters, 1980.

VITA OF  
KYONG HWAN KO

Present Position

Senior Pastor of Full Gospel Wondang Church, Seoul Korea

Personal Data

Birthdate: January 25, 1963

Birthplace: Seoul Korea

Marital Status: Married to Hyang Ran Kim

with three daughter, Min Ji and Michelle, and Min Jung

Home Address: Sang Rok Bldg, 1000-9, Hwajung-Dong, Dukyang-Gu,  
Koyang-City, Kyonggi-Do, Korea

Denomination: Assemblies of God

Ordained: May 14, 1990

Education

Diploma: Instituto Biblico de Las Asemblea de Dios, Guayaguil, Ecuador, 1983

Licenciado: Instituto De Superacion Ministerial America Latina, Florida, U.S.A

M.A: Hansei Theological Seminary, Seoul, Korea, 1986

M.Div: Asian Center For Theological Studies and Mission, Seoul, Korea, 1991

D.Min: Fuller Theological Seminary, Pasadena, CA, 2002

Personal Experience

1/1983-5/1985: Full-Time Minister of Full Gospel Ecuador Church-Guayaguil,  
Ecuador

6/1985-1/1993: Assistant Pastor of Yoido Full Gospel Church, Seoul Korea

2/1994-3/1995: Assistant Pastor of Full Gospel California Church, USA

4/1995-8/1999: Full Time Minister of Full Gospel Bethesda Church, USA

8/1999-Present: Senior Pastor of Full Gospel Wondang Church, Seoul, Korea